

보험동향 2013년 겨울호

Ⅰ 총괄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Ⅱ 경제금융 동향	경제총괄 전용식 (연구위원) 세계경제 채원영 (연구원) 국내경제 채원영 (연구원) 금융경제 이정환 (선임연구위원)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보험총괄 전용식 (연구위원) 생명보험 김세중 (연구위원) 손해보험 최 원 (선임연구위원)

■ 목차

I. 테마진단

- 위험전가 기법을 이용한 국가 재해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 1
- 건강나이를 고려한 고령화 상품 도입 제안 / 17

II. 경제금융 동향

- 1. 세계경제 / 33
- 2. 국내경제 / 50
- 3. 금융경제 / 61

III. 국내보험시장 동향

- 1. 보험산업 총괄 / 67
- 2. 생명보험 / 70
- 3. 손해보험 / 88

부록 I. 통계표 / 114

부록 II. 글로벌 이슈 발간 목록 / 121

I. 테마진단

◀ 위험전가 기법을 이용한 국가 재해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전성주 연구위원

1. 검토 배경

■ 우리나라 자연재해의 주요 원인은 태풍과 집중호우이며 2012년의 경우 총 22회의 자연재해로 16명의 인명 피해와 1조 892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음.¹⁾

○ 이 중 재산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태풍인 볼라벤과 덴빈의 경우 6,365억 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으며, 피해 복구 비용은 1조 113억에 달함.

- 피해 복구 비용의 대부분은 국고(7,187억 원)와 지자체(2,271억 원) 등 정부 지원에 의해 부담하였으며 피해 당사자의 자체 복구 비중은 6.5%(656억 원)에 그침.

○ 그나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반과 이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와 같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 재해리스크를 민영보험 시장으로만 관리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민관협력 보험형태(private - public partnership insurance program)로 자연재해 보험제도를 운영함.²⁾

○ 민영보험 시장만으로 운영되기에는 보험회사의 자연재해에 대한 담보 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지급여력규제 등으로 인해 제한적인 상품 운영이 불가피함.

○ 따라서,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재해 리스크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성 보

1) 소방방재청, 『2012년 재해연보』.

2) 보험연구원(2012), 『자연재해보험 진흥을 위한 기본연구용역』.

험이 제공되고 있으며 재해리스크가 가장 높은 농어업분야를 중심으로 2001년 농작물 재해보험, 2004년 어선 재해보험, 2006년 풍수해보험, 2008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재해보험 보상률을 살펴보면 유럽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보험연구원(2012)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복구액 대비 자연재해보험의 지급보험금으로 나타난 재해보험 보상률은 2010년 기준 사유재산 대비 9.4%, 전체 복구액 대비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유럽의 자연재해보험 보상률(1980~2009년)을 보면, 자연재해 피해액 4,500억 달러에 대해 보험부보 손해액(insured loss)은 1,400억 달러로 31%에 달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복구액의 대부분을 정부가 감당하고 있는 형편임.

- 총 3조 6,509억 원의 자연재난 복구비가 발생한 2006년의 경우 국고에서 2조 7,489억 원(75%), 지방자치제의 예산으로 6,271억 원(17%)을 부담하였으며 자력복구비는 2,649억 원으로 전체 복구비 중 8%에 불과함.

■ 본고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재해리스크 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찰하여 체계적인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함.

- 다양한 보험리스크 전가 방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다층적 위험관리 기법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재해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소개함.
- 이를 통해, 자연재해 리스크에 대한 최종 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거대재해 발생시 피해 복구에 대비한 정부 재난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함.

2. 정부의 재해리스크 위험관리 체계

■ 많은 나라에서 자연재해를 겪게 되면 재해 자체로부터 발생한 피해 복구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 물가 상승,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복구 지원비 지출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

-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시 직접적인 피해로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구조 서비스나 파괴된 도로 복구와 같은 공공 인프라 시설을 복구하는 비용이 발생함.
-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의 둔화와 이로 인한 세수 감소, 재정 적자 발생, 복구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채무 발생,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거나 환율 변동성이 증가하게 되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액을 마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재정적 인 준비는 재해 발생 전(pre - event)과 재해 발생 후 복구재원 마련 수단(post - event financing instrument)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재해 발생 전에는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에 예비비 항목을 설정해 두거나 이를 좀 더 발전시켜 예비 펀드(reserve fund)를 조성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민간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맺거나, 혹은 자본시장을 통해 매년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조건부 용자(Contingent credit)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대재해 채권(Catastrophe bond)을 발행할 수 있음.³⁾
- 재해 발생 후에는 먼저 공공예산의 항목 조정을 통해 다른 항목의 예산을 전용하거나 국채 발행을 통한 외부 차입, 증세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해외 국가나 단체로부터 구호물자와 구호금을 받을 수 있음.

■ 각각의 복구재원 마련 수단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하며, 이를 정확히 파악한 후 활용해야

3) 조건부 용자(Contingent credit)는 재해 발생 전 용자에 대한 이자나 용자한도 등 조건을 미리 정해 놓고 재해발생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용자를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의미하며 대재해 채권(Catastrophe bond)은 대재해라는 특정사고의 발생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사고·연계 채권(event - linked bonds)을 의미함.

효율적·안정적 재해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비나 예비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복구 자금을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⁴⁾
- 그러나, 거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예비비로 편성된 자금이 피해 복구에 불충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항목을 조정하거나 증세를 해야 함.
 - 증세는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미 대재해로 발생한 피해로 인해 유발된 경제 성장 둔화가 더 악화될 수 있음.
- 한편 예비비로 설정된 예산은 평소에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발생함.
- 이에 반해, 민간 보험회사나 글로벌 재보험사와 자연재해 보험계약을 맺을 경우 매년 일정 비용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대신 재해 발생시 피해 복구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음.
- 이외에도 민간 보험회사의 자본력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대규모 자연재해리스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통해 대재해 채권을 발행하거나 조건부 용자 계약을 맺을 수 있음.

〈표 1〉 다양한 복구 자원 마련 수단의 장단점 비교

복구 자원 마련 수단		장점	단점
재해 발생 전 (pre·event)	예비비 혹은 예비펀드	• 자금의 즉시 활용 가능 • 무사고시 펀드 유지 가능	• 자본활용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 • 거대 손실 발생시 자금이 충분하지 못할 수 있음
	보험계약	• 피해액에 따른 정확한 손해 배상이 가능함 • 피해를 입은 국가에 대한 외부 자본유입 효과	• 보험료와 거래비용 발생 • 유동적인 재보험사이클에 노출될 수 있음¹⁾ • 보험사의 지급불능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²⁾
	조건부 용자	• 자금의 즉시 활용 가능 • 피해를 입은 국가에 대한 외부 자본유입 효과	• 이자비용과 거래비용 발생 • 사고 후 부가적인 채무 변제 비용 발생

4) 기획재정부(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의 2013년도 세출예산(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계)은 236조 2,253억 원으로 이중 예비비는 1.7%에 해당하는 3조 9천억 원임.

복구 자원 마련 수단		장점	단점
재해 발생 후 (post - event)	대재해 채권	• 자금의 즉시 활용 가능 • 피해를 입은 국가에 대한 외부 자본유입 효과	• 이자비용과 거래비용 발생 • 베이스스 리스크 노출³⁾
	예산 전용	• 자금의 즉시 활용 가능 • 추가비용이 없음	• 사용이 제한적임
	국채 발행	• 국가의 자구 계획에 의한 수립 가능	• 사고발생 후 이자비용이 폭등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림
	증세	• 국가의 자구 계획에 의한 수립 가능	• 제한적이며 정치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음 • 경제성장 둔화 가능
	구호금 혹은 구호물자	• 비용이 들지 않음	• 시간이 많이 걸림 • 불확실한 규모

주: 1) 재보험사이클(reinsurance cycle)이란 전세계 대재해의 발생유무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성시장(Hard market)이 형성되거나 인하되는 연성시장(Soft market)이 형성되어 보험료가 변동하는 현상을 의미함.

2) 전세계적으로 거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한번에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에 해당하는 보험회사의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파산할 수 있음.

3) 베이스스 리스크란 사고에 따른 보험회사의 실제 손실액과 보험회사에 대한 채권 원금의 지급액 차이를 의미함.

자료: Swiss Re(2011)와 Mechler(2005) 자료를 참조함.

■ 국가적인 재해리스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상태 및 안정성, 재해리스크 노출 정도와 경제 발전 계획 등에 따라 피해 복구자원 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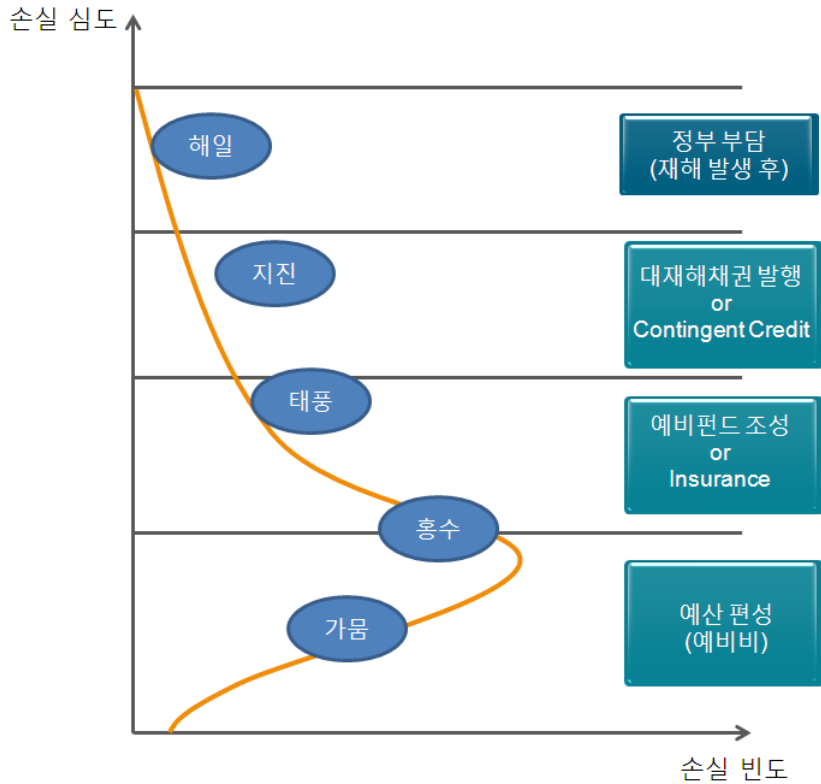
○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뭄이나 홍수와 같이 5년 이내의 주기로 발생하면서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조성해놓거나 예비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10년 이상, 혹은 심지어 100년 사이에 한번 일어날 정도로 빈도는 낮지만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예상 피해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예비비로 보유하기에는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큰 기회비용이 발생함.

- 이 경우, GDP 규모와 정부의 재정상태, 예산 전용의 유연성 정도에 따라 보험회사를 통해 자연재해 보험계약을 맺거나 자본시장을 통한 대재해 채권 발행 혹은 조건부 용자 계약을 맺는 것이 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 캐리비안 대재해 위험 보험공단(Caribbean Catastrophe Risk Insurance Facility)의 경우, 10년 이내에 일어날 수 있는 대재해 위험에 대해서는 기금 자체 내에 보유함(Mechler 2005).

〈그림 1〉 재해리스크 손실 발생 심도와 빈도에 따른 위험전가 구조의 예



자료: Swiss Re(2011)와 Mechler(2005) 자료를 참조함.

- 따라서,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리스크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위험에 알맞은 리스크 전가방법을 사용하면 재해 발생 후 일어나는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상의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음.

3. 다층적 위험전가기법을 이용한 국가 재해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사례

가. 멕시코의 자연재해펀드(FONDEN)

■ 멕시코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연방정부 예산을 이용하여 FONDEN이라 불리는 자연재해 펀드를 조성함.⁵⁾

- 조성 목적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함.
- 1996년 연방 정부 예산경비 항목으로 설정된 이후 1999년 정식 기금으로 출범하였으며, 이 기금은 공공 인프라시설 복구, 저소득층에 대한 피해복구 자금 지원, 산림자원과 자연보호지역 복구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멕시코는 연방법에 의해 매년 연방정부 예산의 0.4% 이상(2011년 기준 8억 US 달러)을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예산은 자연재해 복구 기금인 FONDEN을 비롯하여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기금(FOPREDEN)과 자연재해 농업기금(Agricultural Fund for Natural Disaster)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사용됨.
- 이러한 예산배정에도 불구하고, 부족분이 발생할 시 멕시코 연방법에서는 석유 생산 매출잉여금과 같은 다른 연방 프로그램이나 기금으로부터 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9년 8억 5,700만 US달러에 이르기도 하였던 FONDEN 펀드는 2010년 주요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대부분이 고갈되어 2011년 다시 8억 3,300만 US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함.

- 2010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액을 마련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는 대부분의 FONDEN 기금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33억 US달러에 달하는 예산전용을 시행해야만 했음.
- 이러한 기금 고갈 사태를 예방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멕시코 재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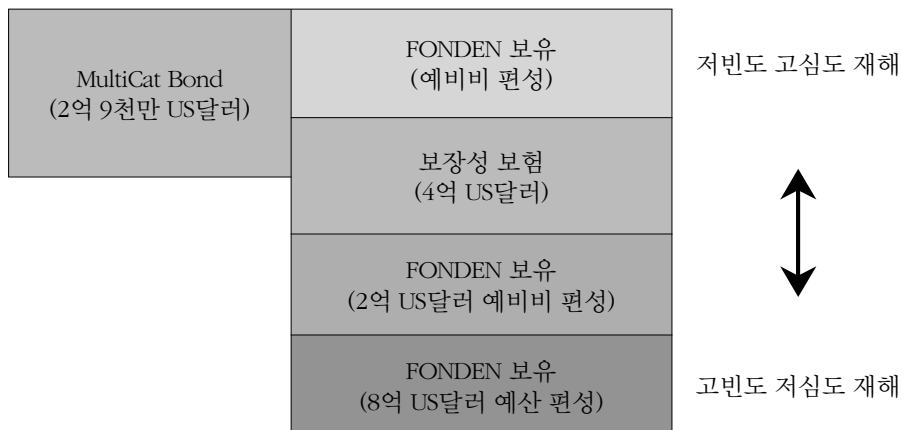
5) Martinez(2005)와 World Bank(2012)를 참조함.

(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SHCP)에서는 자연재해 자금 조달 전략을 구축함.

■ 2011년 FONDEN의 자원 운용 전략은 빈도가 높은 재해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금 조성을 통해 준비하는 한편, 빈도가 낮고 심도가 높은 재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본시장을 통한 리스크 전가 기법을 이용하는 것임.

-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FONDEN은 자연재해 리스크 유형별로 빈도와 심도에 따라 4가지 계층으로 나누어 고빈도 저심도 재해리스크에 대해서는 보유전략을 사용하여 10억 US달러의 기금을 적립하였음.
- 10억 US달러를 초과하는 자연재해 리스크에 대해서는 4억 US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함.
- 재해복구 비용이 14억 US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멕시코 정부예산의 다른 기금이나 펀드로부터 추가적인 예산전용을 할 계획임.
- 이와 별도로, 2009년 3년 만기 대재해 채권을 발행, 지진피해나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응급지원을 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 마련을 담보함.

〈그림 2〉 2011년 FONDEN의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 전략



자료: World Bank(2012).

나. 캐리비안 대재해위험 보험공단(Caribbean Catastrophe Risk Insurance Facility)

■ 2004년에 일어난 허리케인 이반으로 막대한 피해를 경험한 캐리비안 지역의 여러 나라들은 세계 최초의 지역 보험 기금인 CCRIF를 설립함.

- 2004년 그레나다(Grenada)와 케이만 제도(Cayman Islands)의 경우 연간 GDP의 200%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었으며 케이만 제도의 주택과 시설물의 경우 95% 정도가 파괴되거나 피해를 입었으며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음.
- 미래 자연재해 위험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2007년 캐리비안 지역의 16개 정부가 참여하는 캐리비안 대재해 위험 보험공단(CCRIF)을 창설함.

■ CCRIF는 캐리비안 지역의 정부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지진 위험과 허리케인 위험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표성(Parametric) 보험을 제공함.

- 캐리비안 지역의 각국 정부는 15년에서 20년에 한번 발생하는 허리케인이나 지진 위험에 대해 최대 1억 US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최근 CCRIF는 손실액을 과거 및 현재 데이터를 이용한 모형을 통해 추정하는 모형화된 손실지수를 사용하는 보험계약을 제공하고 있음.

■ CCRIF는 다양한 수준의 자연재해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리스크 전가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자연재해 발생 시 처음 2,000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액에 대해서는 CCRIF 기금에서 직접 부담함.
- 이를 초과하는 손실액에 대해서는 최고 5,000만 달러까지 민간보험시장의 전통적인 재보험계약을 통해 담보함.
- 그 이상의 손실액에 대해서는 재보험회사와 세계은행에서 8,250만 달러까지 부담하는데 세계은행에서 부담하는 위험은 계약금액의 36%에 해당함.

〈그림 3〉 2011년 CCRIF의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금 운용전략

Layer 3 Traditional Reinsurer (5,250만 US달러)	Layer 3 Capital Market (3,000만 US달러)
Layer 2 Traditional Reinsurer (3,500만 US달러)	
Layer 1 Traditional Reinsurer (1,500만 US달러)	
CCRIF 보유 (2,000만 US달러)	

자료: World Bank(2011).

다. 태국의 국가재해 보험기금(National Catastrophe Insurance Fund) 설립 추진

- Courbage et al.(2012)에 따르면, 2011년 50년 만에 최악의 홍수를 경험한 태국은 1조 4,250억 바트(457억 US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음.
 - 열대성 저기압 Haima와 열대성 태풍인 Nok - ten의 발생으로 인해 태국의 총 77개 주 가운데 65개 주가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음.
 - 태국의 대홍수로 인한 피해의 90%는 민간으로부터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이 기업이나 제조업 분야에 해당하였음.
 - Standard & Poor's(2012)에 따르면, 태국 홍수로 인한 보험시장의 손실액은 160억~180억 US달러에 달하며 이 중 10~15%는 태국 보험회사들에 의해, 65~70%는 일본 보험회사의 현지 조인트 벤처와 자회사들에 의해, 그리고 20%는 국제 보험회사들에 의해 지급되었음.

■ 태국 정부(Office of Insurance Commission)는 미래 자연재해 리스크를 담보하기 위해 2012년 500억 바트(15억 7천만 US달러)규모의 대재해 보험기금을 조성함.⁶⁾

- 이 보험기금은 홍수, 태풍, 지진 등의 세 가지 주요 자연재해 리스크를 담보하며 일반 가정, 기업과 산업 시설물에 대해 자연재해 보험을 제공함.
- 태국 정부는 이 기금이 담보하는 재해 리스크 가운데 20억 바트에서 300억 바트에 해당하는 손실액에 대해서는 직접 부담하기로 하고 300억 바트에서 5,000억 바트에 해당하는 손실액에 대해서는 해외 재보험사에 재보험 계약을 맺을 계획임.
- 2012년은 태국이 홍수피해를 입은 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아 재보험료가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재보험 계약을 맺기 힘들 경우, 적절한 리스크 풀링 혹은 대재해 채권과 같은 수단을 동원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리스크 전가를 이용할 계획임.

4. 결론 및 시사점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 일어난 자연재해의 피해규모를 살펴보면 가장 적은 해(2008년 637억 원)와 가장 큰 해(2002년 6조 1,153억 원)의 편차가 6조 이상일 정도로 피해규모의 편차가 매년 달라짐.

-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2000년 이후 가장 큰 재산 피해를 기록한 자연재해는 2002년의 태풍 루사로서 270명의 인명피해와 총 6조 1,153억 원의 재산 피해를 기록하였음.⁷⁾
 - 2003년의 태풍 매미로 인해 148명의 인명피해와 4조 4,082억 원의 재산피해를 겪은 이후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줄어든 상태임.
 - 2002년 발생한 태풍 루사의 경우 일일 최대 강수량이 870.5mm에 달하는 등 많은 비를 동반한 반면, 2003년 발생한 태풍 매미의 경우 순간최대풍속이 60m/s에 달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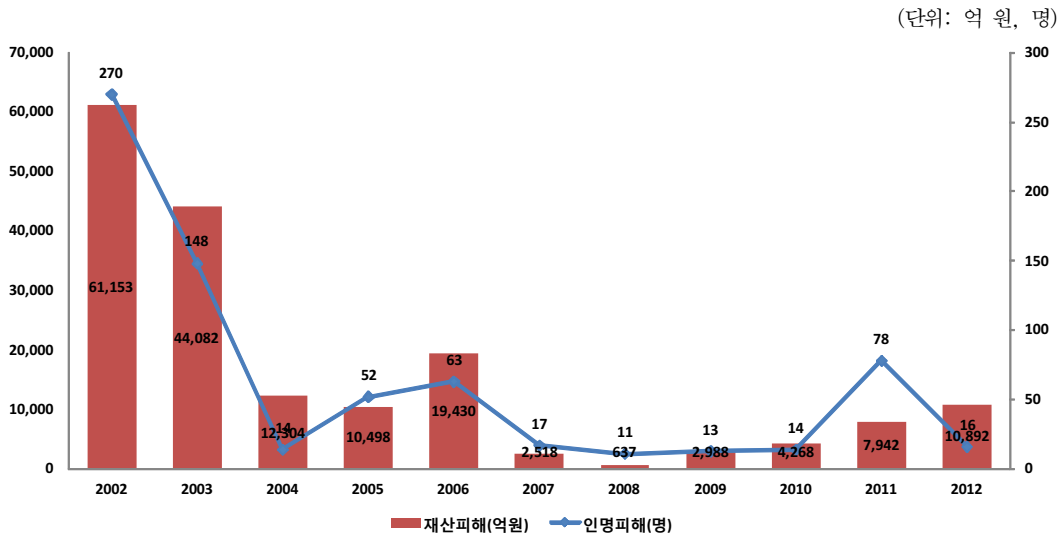
6) Artemis(2012) 참조.

7)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12년 기준 실질 피해액으로 환산하면 2002년 피해액은 8조 3,136억 원이며 2003년 피해액은 5조 7,894억 원임.

등 최대 풍속이 강한 태풍이었음.

- 일반적으로 강수량이 많은 태풍은 상대적으로 보험가입률이 낮은 농가와 가정에 피해가 집중되는 반면, 최대 풍속이 강한 태풍은 산업시설에 주요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림 4〉 우리나라 자연재난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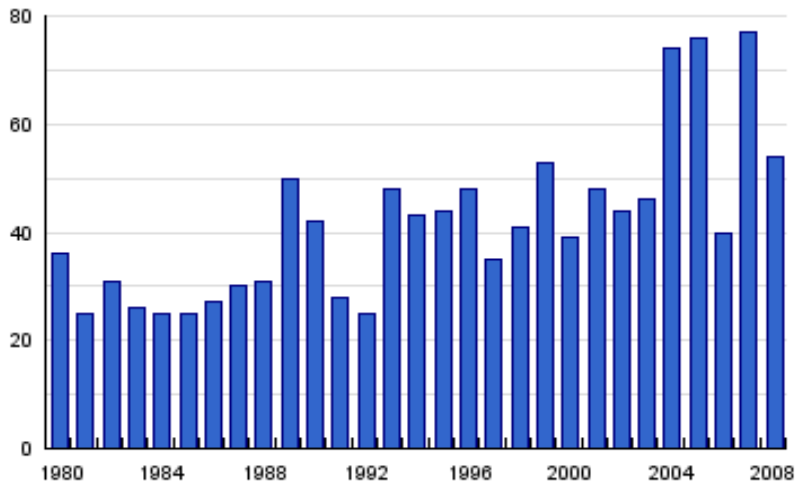
자료: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 UNISDR은 태풍으로 인한 잠재적 경제손실 규모를 300억 달러(약 32.8조 원)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상 기후로 인한 태풍 발생빈도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자연재해위험을 심화시킬 수 있음.

○ UN의 재해감소를 위한 국제전략기구(UNISDR)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 등의 자연재해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는 태풍(cyclone)으로 잠재적인 경제손실액 규모가 약 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89개국 가운데 4번째로 큰 규모임(1위 일본(8,900억 달러), 2위 미국(1460억 달러)).

-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1980년부터 전세계 태풍 발생횟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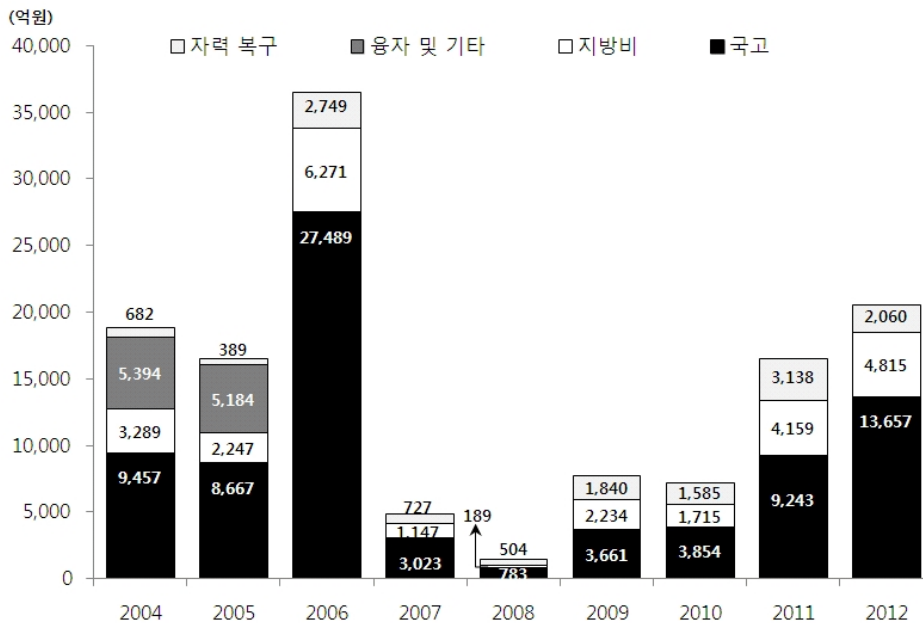
〈그림 5〉 전세계 태풍 발생횟수 추이



자료: EM-DAT: The OFDA/CRED International Disaster Database.

- 2조 억 원 이상의 자연재해 발생 시 국고와 지방비와 같은 정부 지원금이 총 복구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므로 거대 재해리스크의 발생은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자연재해 복구비에서 피해당사자의 자력복구 부담율은 8% 이하였으며 2006년 풍수해보험이 도입된 이후 2008년 자력복구 부담율이 34%까지 증가하였음.
- 그러나, 2011년과 2012년 피해복구액이 각각 1조 6,540억 원과 2조 532억 원을 기록하면서 자력복구 부담율은 19%와 10%로 떨어짐.
- 1995년 이후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2002년 태풍 루사의 경우 재산피해액만 6조 1,153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당시 우리나라 전체 GDP의 0.85%에 해당함.

〈그림 6〉 우리나라 자연재해 복구비 추이



자료: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 2013년도 정부예산을 살펴보면, 정부는 재해 및 재난 예방투자를 위해 5조 8,494억 원을 책정한 반면, 재해복구로 사용가능한 예비비로 3조 9천억 원을 책정함.⁸⁾

- 재해 및 재난 예방투자 예산은 도심지 침수예방, 하천 및 재해위험지역정비, 산사태 예방, 방재관련 R&D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총 예비비 가운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조 3천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예산총칙 제12조에 따르면 예비비 중 2조 8천억 원은 재해 대책비,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경비, 취득세 감면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및 가정양육수당지원 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재원 보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음.
- 이와 같은 예산 책정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바로 동원할 수 있는 예산은 적어도 1조 3천억 원에서 최대 3조 9천억 원으로 볼 수 있으며, 나머지는 예산전용이나 추가경정을 통해 조달해야 함.

8) 기획재정부(2013) 참조.

■ 최근 증가하는 기상이변이나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한 재산피해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비비 이외의 다른 위험 전가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비비 규모 이상의 피해 복구액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산 전용이나 추가경정을 통해서 조달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매년 불확실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 자연재해 예비펀드를 조성하여 10억 달러 이하의 자연재해리스크에 대해 자체적으로 위험을 보유하는 멕시코 FONDEN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자연재해 예비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음.
- 더 나아가, 보장성보험과 대재해 채권을 다층적으로 활용하여 10억 달러 이상의 거대 재해리스크를 담보하거나 유동성 확보를 보장하고 있는 FONDEN의 재해리스크 관리 전략을 참조해 볼 필요도 있음.

■ 따라서, 기상이변이나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을 감안한 보다 정확한 잠재적 자연재해 리스크 및 경제적 손실규모를 추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재해리스크 프로파일을 작성·분석하여 자연재해 리스크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위험에 알맞은 리스크 전가방법을 고민해야 함.
- 김소연(2012)이 주장하였듯이 국가 재난위험지도를 완성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국가 재해리스크 프로파일을 작성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 전체 재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참 고 문 헌〉

기획재정부(2013), 『2013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김소연(2012), 『풍수해보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 KIRI Weekly, 제191호.

소방방재청(2012), 『재해연보』.

이기형 · 송윤아 · 김소연 · 장동식 · 박정희(2012), 『자연재해보험 진흥을 위한 기본연구용역』, 보험연구원.

Artemis(2012), “Thailand to establish catastrophe insurance fund”.

Courbage, C., M. Orie, and W.R. Stahel(2012), “2011 Thai floods and insurance”, Geneva Reports-Risk and Insurance Research No.5, pp. 121~132.

Martinez, C.B.(2005), “Natural Disasters Fund(FONDEN)”, *Policy Issues in Insurance: Catastrophic Risks and Insurance*, OECD, Ch. 17, pp. 321~335.

Mechler, R.(2005), “Financing Disaster Risks in Developing and Emerging Economy Countries”, *Policy Issues in Insurance: Catastrophic Risks and Insurance*, OECD, Ch. 9, pp. 105~149.

Standard and Poor's(2012), “Thai Floods Dampen Asian Insurers' Earnings and Capitalization”.

Swiss Re(2011), “Closing the financial gap”.

World Bank(2011), “Innovation in Disaster Risk Financing for Developing Countries: Public and Private Contributions”.

_____ (2012), “FONDEN : Mexico's Natural Disaster Fund-A Review”.

◆ 건강나이를 고려한 고령화 상품 도입 제안

변혜원 연구위원, 김석영 연구위원

1. 검토 배경

경제적, 사회적, 규제환경적 도전하에서 생명보험회사들은 이에 적합한 성장전략, 특히 상품전략에 관심을 두고 있음. 이에 동 연구는 보장성상품 시장에 주목하여 보험 시장 현황 검토 및 상품 전략을 분석하고 상품전략 방안을 제시하였음.

- 2013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8%에 그쳤으며, 국내외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2014년 실질GDP 전망: 3.3%(보험연구원)).

- 한국은행과 KDI도 2014년 GDP 성장률을 각각 3.8%와 3.7%로 전망하였음.

- 경제성장 둔화는 보험수요 감소와 투자수익 저하를 가져와 보험회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

-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기업의 생산활동이 둔화되고 가계소득도 감소하면서 보험수요가 줄어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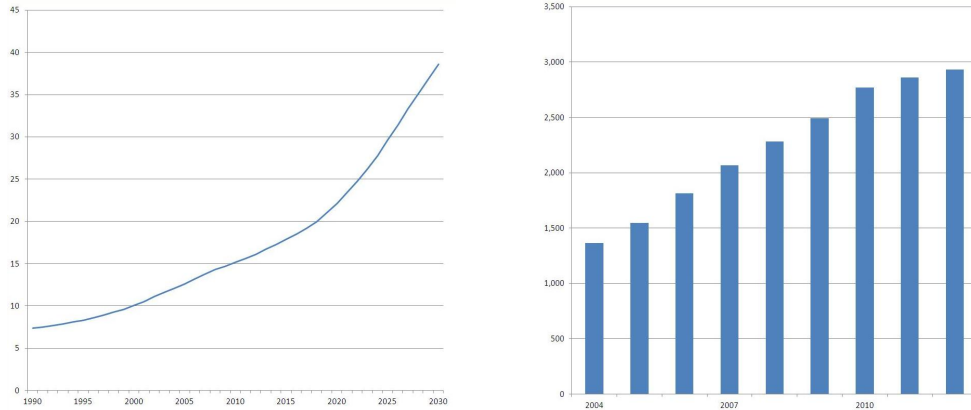
- 아울러 통상적으로 낮은 금리는 보험상품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계약자가 얻게 될 혜택을 축소시키게 되어 보험수요를 감소시킴.

- 저금리 환경하에서는 미래 자산의 현재가치가 상승하게 되므로, 미래에 같은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상승하고, 보험료를 그대로 둘 경우에는 보장 혜택이 줄게 되어, 소비자들의 구매요인이 감소함.

-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저금리 현상으로 인하여 투자수익률이 하락하고 기존에 높은 금리를 보장하고 판매한 상품에서 이차역마진 부담이 발생함.

〈그림 1〉 노년부양비 및 건강보험상 1인당 고령자 진료비

(단위: %, 천 원)



주: 1)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2) 진료비는 심사실적 기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3) 1인당 고령자 진료비: 65세 이상 진료비/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수

자료: 1)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3년 건강보험심사평가통계연보』, 『2004년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 『2005년~2007년 건강보험통계지표』, 『2008~2012년 진료비통계지표』.

■ 한편 의학기술 발달로 인한 기대여명의 연장과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데, 이는 보험산업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할 것임.

○ 인구 고령화는 보험산업의 사업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으나, 장수리스크 증가, 의료비용 상승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도 함께 미칠 수 있음.

■ 이에 동 연구는 보장성상품 시장,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시장에 주목하여 보험시장 현황 검토 및 상품 전략을 분석하고 상품전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보장성 상품은 보험회사의 본업인 리스크관리를 주 기능으로 하는 상품이며, 보험회사가 사업비차익 중심 경영에서 위험률차익 중심 경영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중요성이 커지는 상품임.

2. 국내 보장성 보험상품 공급 현황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의 상품 판매 포트폴리오는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고연령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었음. 아울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을 연령, 가격, 언더라이팅 측면에서 살펴 본 결과, 먼저 전 연령에 걸쳐서 대부분의 상품이 일반적 언더라이팅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었으며, 보험료가 높더라도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의 공급도 매우 제한적이었음.

가. 국내 보장성 보험상품의 일반적 특징

-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의 보장성 상품 판매 포트폴리오는 회사별로 큰 차이가 없으며, 대부분의 회사가 사망, 상해, 건강, 어린이, 암 담보 상품을 모두 판매하고 있음.
 - 사망보험으로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VIP정기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으로는 실손보험 혹은 3대 질병(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심의 상품을 입원 특약과 함께 판매하고 있음.
- 보장성 상품을 살펴 볼 때 몇 개의 회사를 제외하고는 특정 상품군에 대해 뚜렷하게 특화된 회사가 없음.
 - 변액보험에 특화된 회사는 있으나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 특화된 회사는 없음.
 - 판매채널 측면에서 TM 혹은 온라인 전문 판매로 특화된 회사는 있으나 상품 포트폴리오 측면에서의 특화라기보다는 판매채널 측면에서의 특화라고 할 수 있음.
 - 건강보험 전문회사를 표방하는 회사가 있으나 시장에서 큰 차별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 대부분의 회사들은 기본 상품에 여러 가지 특약들을 추가함으로써 상품들이 복잡화 되면서 회사별 상품 포트폴리오 차이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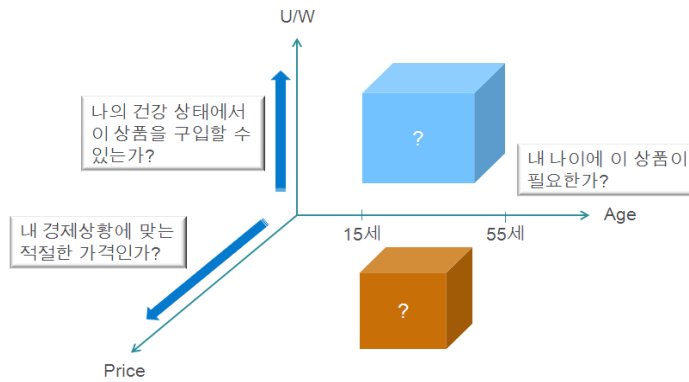
- 아울러 보장기간, 가입금액, 추가되는 담보들로 인해서 회사별 상품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브랜드를 바탕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함.
- 한편 급속한 고령화를 보이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고연령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 사망보험의 경우 최고 80세까지, 암보험의 경우 최고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최고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함.
 - 기존의 보험은 높은 보험료, 리스크 관리 등으로 인해서 가입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60~7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최근 간편심사보험 혹은 무심사 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가입 연령이 최대 80세까지 늘어남.

나. 3D 분석: 연령, 가격, 언더라이팅

- 소비자 측면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현재 소비자 연령에서 필요한 보험이 존재하는지, 나의 건강상태로 가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격은 적절한지를 살펴볼 것임.
- 따라서 연령, 언더라이팅, 가격 세 가지 측면에서 상품이 시장에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⁹⁾
 - 연령과 언더라이팅을 고려할 때 시장은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는가?
 - 가격과 언더라이팅을 고려할 때 시장은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는가?

9) 2013년 하반기 현재 22개 생명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을 분석함.

〈그림 2〉 소비자의 보험가입 선택 사례



1) 연령과 언더라이팅 측면

■ 전 연령에 걸쳐서 대부분의 상품이 정상적인 언더라이팅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으며, 정상적인 언더라이팅을 통과할 수 없는 표준미달체 계약자들은 할증 등을 통해서 상품을 가입할 수 있음.

■ 다만 고연령화의 진행과 함께 질병 유경험자 혹은 유병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이들을 위해서 차별화된 언더라이팅을 적용하는 상품들을 일부 판매하고 있음.

○ 질병 유경험자 혹은 유병자는 일반보험상품의 보험가입이 어려운데, 이러한 소비자들을 위해 간편심사보험(Simplified Issue)과 무심사보험(Guaranteed Issue)이 도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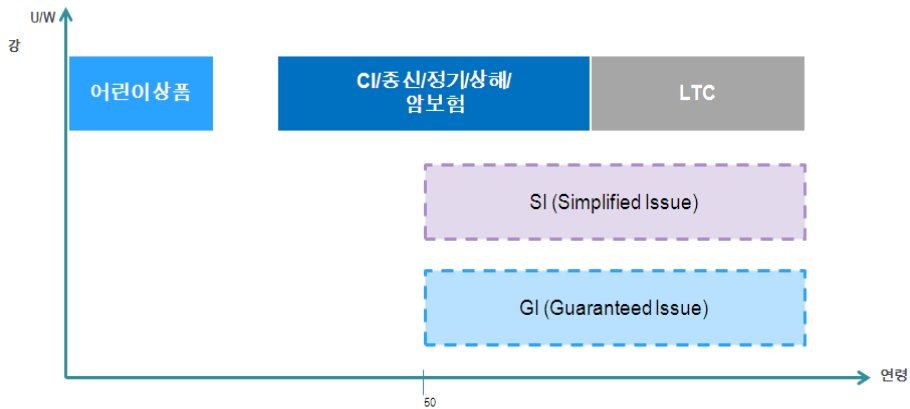
■ 차별된 언더라이팅을 적용하는 간편심사보험과 무심사보험은 주로 당뇨병환자, 고혈압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주 판매대상에 따라 가입연령에 차이가 있음.

○ 당뇨병환자에 대해서만 판매하는 가입한정형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저연령층에서도 당뇨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입연령은 30세에서 60세까지인 것으로 조사됨.

○ 당뇨병 혹은 고혈압 유병자에 대해서 암, 뇌졸중,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등을 보장하는 간편심사상품의 경우, 주로 고연령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연령은 주로 60세부터인 것으로 나타남.

○ 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무심사상품은 가입연령이 주로 50세부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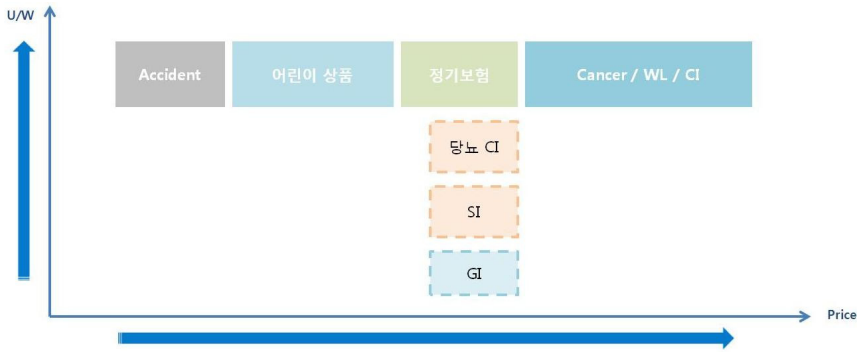
〈그림 3〉 언더라이팅 연령 측면 상품 판매현황 분석



2) 가격과 언더라이팅 측면

- 일반적으로 언더라이팅을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위험집단이 판매대상에 포함되어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게 됨.
 - 일부 상품의 경우 언더라이팅을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게 하는 대신 가입금액을 낮추어 보험료를 낮추기도 함.
-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소비자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이 미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고령자 혹은 유병자 대상 특화상품 개발이 필요함.
 - 일부 고령자 혹은 유병자는 비싼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가입금액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에 가입을 원하기도 함.
- 언더라이팅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상품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한 급부설계와 언더라이팅 해법을 통해 언더라이팅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가격을 차별화할 수 있음.
 - 온라인 채널과 같은 새로운 채널에서 언더라이팅과 가격의 새로운 조합을 통하여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그림 4〉 언더라이팅 가격 측면 상품판매현황 분석



다. 시사점

- 국내 보장성 보험시장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 본 결과, 보험회사들은 상품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크게 차별화되어 있지 않았음.
 - 또한 대부분의 상품들은 기본 담보에 여러 가지 특약들을 추가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가 동일 담보에 대해 회사별로 상품을 비교하기가 어려움.
- 현재 보장성상품 시장에서 공급되고 있는 상품들을 연령, 가격, 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을 찾을 수 있었음.
 - 최근 차별화된 언더라이팅을 통한 상품개발이 새로운 추세로 등장하였는데, 특히 고연령 상품 개발시 언더라이팅을 차별화함으로서 상품개발이 가능해짐.
 - 한편 언더라이팅 완화로 인해서 이질적인 위험집단에 대해서 보험료를 동일하게 산출함으로써 상품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언더라이팅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상품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3. 고령층을 위한 보장성상품 전략

고령층을 위한 보장성상품 활성화 전략으로서 동질적인 위험집단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출 및 위험관리를 하기 위해 보험나이가 아닌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동질적인 위험 집단을 분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동 방안은 보험계약자에게 건강상태를 향상 시키거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유인을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건강나이에 기초한 보험상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건강나이에 대한 정의의 정립, 측정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과제가 해결되어야 함.

■ 전체 인구 중 고연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고연령 층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되면서 고연령층은 새로운 고객층으로 등장하고 있음.

-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1960년 3.7%에서 2010년 11.3%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15.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 기대수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65세 이상 인구는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세대가 아니라 앞으로 15년 이상 인생을 즐길 세대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들의 보험 수요가 예상되며 이에 맞는 보험상품 공급은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됨.

〈표 1〉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단위: %)

구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2020
65세 이상	3.7	3.3	3.9	5.0	7.3	9.3	11.3	13.1	15.7
85세 이상	0.1	0.1	0.1	0.2	0.4	0.5	0.8	1.1	1.6

자료: 통계청.

■ 현재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보장성 보험상품에는 암보험, 사망보험, 건강보험 상품이 있는데, 간편심사 상품, 무심사 상품 형태 등으로 제공되고 있음.

- 현재 판매되고 있는 61세에서 80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암보험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고혈압, 당뇨 유병자에 대해서도 상품 가입을 거절하지 않음.
- 50세에서 81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사망보장 상품은 무심사 상품으로 의적질문 및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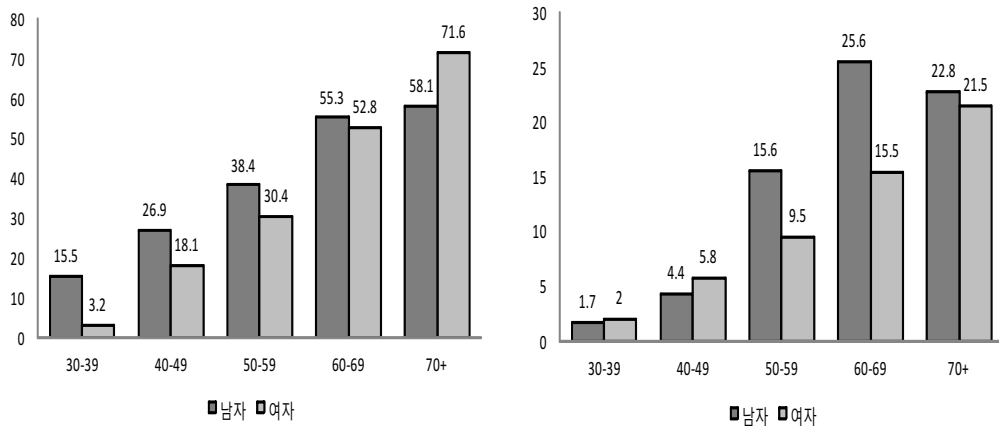
료 검진 없이 계약이 성립되는 상품으로, 특정 질병의 유무가 가입 시 문제되지 않는 보험상품임.

- 61세에서 75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상품은 고혈압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며,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을 보장하는 상품임.

■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고연령층은 정상적인 언더라이팅을 통과하기 어려우며, 고혈압, 당뇨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가입거절 혹은 할증체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2012년 현재 60세 이상 연령층의 고혈압 유병률은 50%를 넘고 있으며, 특히, 7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은 남자는 58.1%, 여자는 71.6%으로 매우 높음.
- 2012년 현재 70세 이상 연령층의 당뇨병 유병률은 20% 이상임.

〈그림 5〉 고혈압(좌), 당뇨병(우) 유병률



주: 1) 고혈압 유병률: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약물을 복용한 분율, 만 30세 이상.

2) 당뇨병 유병률: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 받고 있는 분율, 만 30세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2013. 11. 4).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언더라이팅을 간소화하거나 없애는 간편심사 상품과 무심사 상품이 개발되어 도입된 것임.

- 간편심사 상품은 특정 질병에 대해서 과거 병력에 상관없이 상품을 가입시켜주는 상품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은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해서 병력에 상관없이 상품을 가입할 수 있음.
- 무심사 상품은 언더라이팅을 전혀 하지 않는 상품으로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주로 사망을 보장함.

■ 그러나 국내 보장성상품 시장에서 건강상태가 정상적인 고연령이 가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품은 찾기 어려움.

■ 현재 판매 중인 간편심사 고연령 상품 보험료는 정상체와 유병자 발생률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하므로, 건강한 사람은 실질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반면, 건강이 나쁜 사람은 실질보험료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지불하게 됨.¹⁰⁾

- 건강한 사람은 가입하려 하지 않고, 건강이 나쁜 사람은 오히려 가입하려고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보험회사는 보험료 산출에 사용된 가정과 다른 포트폴리오를 가질 리스크를 가지게 됨.
- 감독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한 사람들에게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할인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보험료 산출에는 위배되는 것임.

■ 한편, 보험회사들은 언더라이팅 기법을 강화하여 할인체 및 할증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기법을 축적하고 있음.

- 동일 연령에서 건강상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건강상태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음.
- 이러한 세분화를 통하여 보험회사는 정확한 보험료 산출하고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10) 간편심사 고연령 상품의 질병 발생률은 다음과 같이 산출됨. $q = a \cdot q_{-1} + (1-a) \cdot q_{-2}$ (여기서, q_{-1} : 정상체 발생률, q_{-2} : 유병자 발생률)

〈표 2〉 우량체 판정기준 예시

구분	비흡연자		
	上 건강체	中 건강체	下 건강체
흡연유무	흡연한적 없음	흡연한적 없음 또는 1년 이상 비흡연	좌동
혈압조건	수축기 120mmhg 미만 이완기 80mmhg 미만	수축기 130mmhg 미만 이완기 85mmhg 미만	수축기 130mmhg 미만 이완기 85mmhg 미만
BMI 조건	20 = < BMI < 23.5	18.5 = < BMI < 25	전체
콜레스테롤	총콜레스테롤 190 미만	총콜레스테롤 200 미만	총콜레스테롤 240 미만
HDL 콜레스테롤	남성 50 이상, 여성 60 이상	남성 45 이상, 여성 55 이상	남성 40 이상, 여성 50 이상
당뇨유무	없음	없음	없음
보험료 할인폭	남성 17.8%, 여성 5.5%	남성 13.0%, 여성 4.3%	남성 11.5%, 여성 3.4%

■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들은 계약자를 5~6 class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임.

- 예를 들어, 비흡연자를 초우량체, 우량체, 표준체로 구분하고, 흡연자를 우량체, 표준체로 구분함.
- 우량체 세분화를 위한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은 경험데이터를 바탕으로 10~12개의 다양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됨.
- 우량체라는 것은 해당 연령에 비해서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연령에 비해서 젊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건강상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뛰어나다는 것은 본인의 나이보다 젊다는 것과 같은 의미임.

■ 고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우량체에 대한 개념을 확대시킨 건강나이를 도입함으로써 활성화시킬 수 있음.

- 고연령으로 갈수록 동일 연령 집단 내 구성원들의 건강상태는 큰 분산을 보임.
- 계리적으로 동일한 위험집단에 대해서 동일한 보험료를 책정하여야 하는데 불구하고 이질적인 위험집단에 동일한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어려움.

○ 보험나이가 아닌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동질적인 위험집단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질병이 있는 사람은 일반보험가입이 거절되지만 건강나이를 기반으로 한 상품에서는 본인의 나이보다 높은 건강나이를 보험가입이 가능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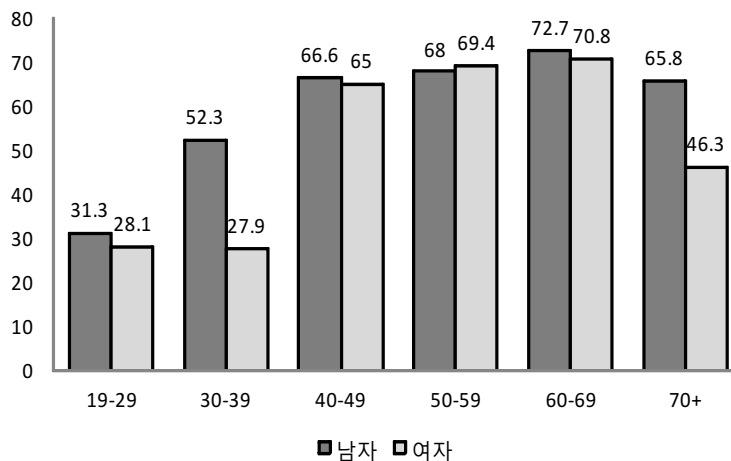
■ 건강나이란 건강과 관련된 생활습관, 가족력, 환경요인 등을 기초로 하여 개인의 사망위험도를 평가한 것임.¹¹⁾

○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나이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험집단이 같은 건강나이를 가지게 됨.

○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개인의 건강나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건강나이를 확인할 수 있음.

- 2011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남자 56%, 여자 47.8%이며, 60대 연령대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70%를 넘음.

〈그림 6〉 건강검진 수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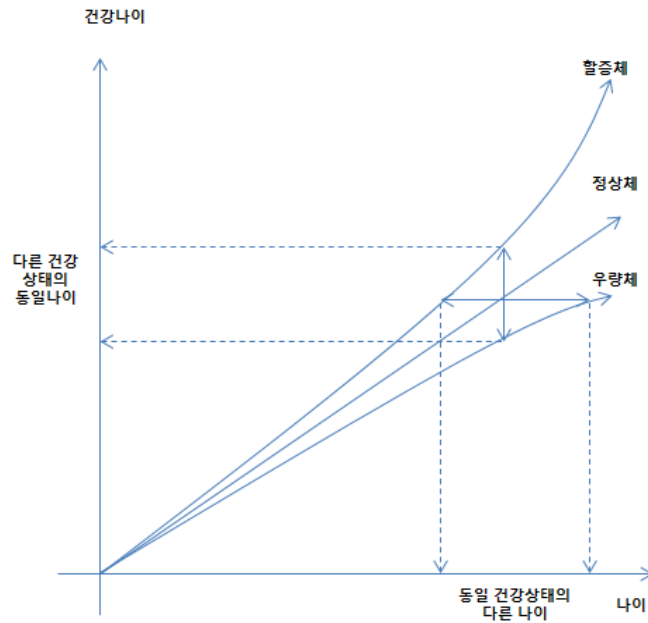
주: 건강검진수진율: 최근 2년 동안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 만 19세 이상.
자료: 2011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1) 국민건강보험.

■ 건강나이개념 도입은 우량체와 할증체에 의한 접근방법을 더 정교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우량체와 할증체 사용은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일정비율로 할인 또는 할증하는 것인 반면, 건강나이 사용은 건강나이를 측정해서 그에 맞는 보험료를 연령별로 산출하는 방식임.

〈그림 7〉 일반 나이와 건강나이 비교



■ 건강나이를 이용한 상품 도입은 보험회사의 위험률차익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보험계약자에게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것임.

- 건강나이는 건강관리에 따라 오히려 젊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건강나이의 도입은 건강관리 유인을 강화시켜 건강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임.

- 건강수명이란 현재의 사망률과 불-건강률(ill-health)에 근거한 ‘온전히 건강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평균 년수’를 의미함.

- 즉, 질병 없이 살아가는 기간을 의미하며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은 질병으로 인한 기간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개선이 필요함.

〈표 3〉 연도별 건강수명 및 기대수명

구분	98年	2002	2005	2007	2009
기대여명(歲)	74.4	77	78.6	79.6	80.6
男	-	73.4	75.1	76.1	77
女	-	80.4	81.9	82.7	83.8
건강수명(歲)	64.3	67.8	68.6	71	75.6

자료: 통계청.

〈표 4〉 국가별 건강수명

일본	스위스	독일	영국	칠레	한국
76	75	73	72	70	71

자료: WHO(2009), "World Health Statistics".

■ 그러나 현재 건강나이 측정에 대한 통일된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여러 의료기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어서, 현재 건강나이 측정방법에 대한 공신력이 부족한 상태임.

- 일반적으로 건강나이는 식생활 습관, 운동여부, 흡연, 음주, 스트레스, 비만도, 감염여부, 건강검진 등에 기초하여 측정되고 있음.
- 의료기관별로 조사 문항에 약간씩의 차이가 존재하며 다양한 측정 방법은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건강나이에 기초한 보험상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수립이 필요한데,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나이를 측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 40세 이상 연령대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므로 통일된 방법이 도출될 경우 건강나이 산출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임.¹²⁾

- 이를 위해서는 감독당국과 업계는 건강나이에 대한 개념 정립, 측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며, 건강나이에 따른 위험률 산출방법과 이의 운영방법, 그리고 기존상품과의 관계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요구됨.

12)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건강나이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참 고 문 헌〉

국가암정보센터, 『연령군별 암발생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2013. 11. 4), “남자 30대, 여자 20대 건강생활실천 비율 낮아”.

보험개발원(2013), 『FY2012 생명보험 통계자료집』.

통계청(2012) 『2012년 사망원인통계』.

WHO(2009), “World Statistics”.

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mbs/cancer/subview.jsp?id=cancer_040103000000).

Ⅱ.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2013년 3/4분기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2013년 3/4분기 미국, 중국 등의 경제 성장세가 2/4분기에 비해 확대되었으나 유로존과 일본의 경우 소폭 둔화되었음.

○ 미국의 경우 전분기보다 1.6%p 상승한 4.1% 성장하였으며 중국도 전분기대비 0.3%p 상승한 2.2% 성장하며 성장폭이 확대되었음.

○ 반면 유로존의 경우, 3/4분기 전기대비 성장률이 0.1%에 그쳤으며 일본도 전기대비 성장률이 0.3%에 그쳐 회복세가 둔화되었음.

〈표 1〉 세계경제 성장률¹⁾

(단위: 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1	2012	2012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세계 ²⁾	3.9	3.1	0.8	0.6	0.7	0.6	0.7	-	-
선진국 ²⁾	1.7	1.2	0.4	0.1	0.3	0.0	0.3	-	-
신흥국 ²⁾	6.2	4.9	1.1	1.3	1.3	1.3	1.1	-	-
미국 ³⁾	1.8	2.8	3.7	1.2	2.8	0.1	1.1	2.5	4.1
유로 ⁴⁾	1.6	-0.7	-0.1	-0.3	-0.1	-0.5	-0.2	0.3	0.1
일본 ⁵⁾	-0.5	1.4	0.9	-0.5	-0.8	0.1	1.1	0.9	0.3
중국 ⁶⁾	9.3	7.8	1.4	2.2	2.0	1.9	1.5	1.9	2.2

주: 1) 분기 경제성장률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가율, 연간 경제성장률은 원계열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83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타이완 외 32개국 / 신흥국: 멕시코, 이란 외 149개국.

3) 분기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2)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3. 10).

3) U.S. Department of Commerce(2013. 12).

4) Eurostat(2014. 1).

5) 일본 내각부(2013. 12).

6) 중국 국가통계국(2013. 10).

■ 2013년 3/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100.0을 나타냄.

- 미국, 유로지역, 일본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하며 기준치 100을 상회하였으나 중국은 전분기대비 0.2p 하락하며 99.1을 나타냄.

〈표 2〉 OECD 경기선행지수¹⁾

구분	2011	2012	2012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세계 ²⁾	100.5	99.8	100.0	99.8	99.7	99.7	99.8	99.9	100.0
선진국 ³⁾	100.3	99.8	99.9	99.8	99.7	99.8	100.1	100.3	100.6
미국	99.9	100.0	100.0	100.0	99.9	100.1	100.5	100.7	100.8
유로	100.8	99.3	99.7	99.4	99.1	99.1	99.5	99.9	100.5
일본	100.1	99.8	100.1	99.9	99.6	99.6	100.1	100.6	101.0
중국	100.8	99.9	99.9	99.7	99.8	100.1	99.9	99.3	99.1

주: 1) 2007.1=100, 월간자료를 분기는 3개월, 연간은 12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OECD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3) OECD 국가.

자료: OECD.

■ 2013년 3/4분기 세계 무역규모는 선진국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2/4분기대비 1.5%p 확대된 3.2% 증가함.

- 선진국의 경우 무역규모가 2013년 2/4분기 0.3% 감소에서 3/4분기 0.6%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신흥국 무역규모도 전분기대비 2.1%p 확대된 6.1% 증가함.

〈표 3〉 세계 무역규모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1	2012	2012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세계 ¹⁾	6.2	1.9	2.3	2.8	1.1	1.5	1.9	1.7	3.2
선진국	4.3	0.1	0.8	1.3	0.0	-1.5	-1.2	-0.3	0.6
신흥국	8.3	3.9	3.9	4.4	2.4	4.7	5.3	4.0	6.1

주: 1) 2013년 현재 OECD 국가 중 Luxembourg를 제외한 23개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60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함.

2) 선진국과 신흥국은 IMF의 분류 기준과 동일.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2013년 3/4분기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전분기대비 0.2%p 오른 3.4%를 기록함.

○ 선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2/4분기 1.3%보다 0.2%p 상승한 1.5%를 기록하였으며 신흥국의 경우 같은 기간 5.5%에서 5.9%로 0.4%p 상승함.

○ WTI 현물지수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와 리비아 생산 차질 지속 등으로 전분기대비 11.9% 상승하였으며 두바이 현물지수도 6.4% 상승하였고, CRB지수도 소폭 상승함.

〈표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구분	소비자물가 상승률 ¹⁾ (%)					구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²⁾				
	2012		2013				2012		2013		
	연간	4/4	1/4	2/4	3/4		연간	4/4	1/4	2/4	3/4
세계	4.0	3.3	3.2	3.2	3.4	두바이 현물지수	107.7	107.5	107.3	100.2	106.6
선진국	2.0	1.8	1.5	1.3	1.5	WTI 현물지수	93.8	88.1	100.7	93.9	105.1
신흥국	6.1	5.1	5.2	5.5	5.9	CRB 상품지수 ²⁾	301.5	298.7	297.2	285.8	287.8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1967=100 기준.

자료: IMF WEO(2013.10), 한국은행.

가. 미국경제

2013년 3/4분기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와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함.

〈최근 동향〉

■ 2013년 3/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민간투자 확대로 2/4분기보다 1.6%p 상승한 4.1%를 기록함.

- 민간소비는 개인소득 증가율 확대¹⁾로 전분기보다 2.0% 증가하였음.
- 민간투자는 주택투자(10.3%)와 설비투자(4.8%)모두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분기대비 8.0%p 상승한 17.2% 증가하였음.
- 수출과 수입은 각각 3.9%, 2.4%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정부지출도 0.4% 늘어남.

〈표 5〉 미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

구분	2011	2012	2012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실질GDP	1.8	2.8	3.7	1.2	2.8	0.1	1.1	2.5	4.1
민간소비	2.5	2.2	2.9	1.9	1.7	1.7	2.3	1.8	2.0
재화	3.4	3.3	4.6	2.2	3.7	3.7	3.7	3.1	4.5
서비스	2.1	1.6	2.1	1.7	0.7	0.6	1.5	1.2	0.7
민간투자	4.9	9.5	10.5	-1.6	6.5	-2.4	4.7	9.2	17.2
설비	7.6	7.3	5.8	4.5	0.3	9.8	-4.6	4.7	4.8
주택	0.5	12.9	23.0	5.7	14.1	19.8	12.5	14.2	10.3
수출	7.1	3.5	4.2	3.8	0.4	1.1	-1.3	8.0	3.9
수입	4.9	2.2	0.7	2.5	0.5	-3.1	0.6	6.9	2.4
정부지출	-3.2	-1.0	-1.4	0.3	3.5	-6.5	-4.2	-0.4	0.4

주: 분기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3. 12), Bureau of Economic Analysis.

1) 2013년 3/4분기 중 개인소득 증가율은 연초 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 및 주가상승, 고용시장 개선 등에 힘입어 2/4분기 3.0%에 비해 0.6%p 상승한 3.6%를 기록함.

〈내수부문〉

■ 소매판매는 2013년 3/4분기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다가 10월과 11월 둔화되었음.

○ 3/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3%p 확대된 1.2%를 나타냈으나, 10월 0.6%, 11월 0.7%를 기록하며 증가세가 둔화되었음.

○ 3/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경기회복세로 전분기대비 5.9p 상승한 81.0을 기록하였으나 10월 초 연방정부 일부 폐쇄의 영향으로 10월 72.4, 11월 70.4를 나타내며 하락함.

■ 2013년 3/4분기 주택경기는 신규 및 기존주택 판매와 신규주택착공이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임.

○ 신규주택착공호수는 2/4분기 9.3% 감소에서 3/4분기 1.6%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10월 1.8%, 11월 22.7% 늘어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2013년 3/4분기 주택가격지수는 전분기대비 8.3p 상승한 164.2를 기록하며 2012년 1/4분기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표 6〉 미국의 주요 내수부문 지표

구분	2011	2012	2012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7.5	5.3	1.7	0.2	1.3	1.4	1.0	0.9	1.2	0.6	0.7
소비자신뢰지수 ²⁾	58.1	67.1	67.5	65.3	65.7	69.7	62.8	75.1	81.0	72.4	70.4
신규주택착공호수 ³⁾ (%)	4.5	28.0	6.4	3.7	5.5	14.7	6.8	-9.3	1.6	1.8	22.7
주택가격지수 ⁴⁾	140.0	141.3	134.5	139.2	145.6	146.0	147.0	155.9	164.2	165.9	-

주: 1) 계절조정, 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2) Conference Board 1985=100

3) 계절조정, 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4)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2000.1=1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S&P Dow Jones Indices.

〈생산부문〉

■ 산업생산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선행지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3년 3/4분기 산업생산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3%p 상승한 0.6%를 나타냈으며 10월 연방정부 일부 폐쇄에 따른 제조업 생산 감소 등으로 0.1%로 하락하였다가 11월 1.1%로 상승함.

- 설비가동률은 3/4분기 78.0, 10월 78.2, 11월 79.0을 기록하며 2012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 3/4분기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대비 5.6p 상승한 55.8을 기록하였으며 10월과 11월 56.4, 57.3을 나타내며 상승세를 보임.

○ 경기선행지수는 3/4분기 96.5, 10월 97.5, 11월 98.3을 나타내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

〈표 7〉 미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1	2012	2012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산업생산증가율 ¹⁾ (%)	3.4	3.6	1.3	0.7	0.1	0.6	1.0	0.3	0.6	0.1	1.1
설비가동률 ²⁾	76.8	77.7	78.0	77.7	77.4	77.6	78.0	77.9	78.0	78.2	79.0
ISM제조업PMI	55.2	51.7	53.0	52.3	50.9	50.6	52.9	50.2	55.8	56.4	57.3
경기선행지수 ³⁾	91.3	93.1	92.7	93.0	93.0	93.5	94.3	95.2	96.5	97.5	98.3

주: 1)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2) 2007=100

3) 2004=1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고용과 물가〉

■ 2013년 3/4분기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실업률은 하락세를 보이는 등 고용여건은 대체로 개선되고 있음.

○ 전기대비 비농업 취업자 증감은 3/4분기 50만 명으로 전분기대비 4,700명 감소하였으나 월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수는 3/4분기 33만 1,000명으로 전분기대비 1만 6,000명 줄어 들었음.

○ 3/4분기 실업률은 7.3%를 기록하여 전분기대비 0.3%p 하락하였고 10월과 11월에도 7.3%, 7.0%를 나타내며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음.

- 포괄적 실업률도 2013년 3/4분기 13.8%, 10월 13.8%, 11월 13.2%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임.

■ 2013년 3/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상승하였으나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하였음.

○ 3/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2%p 상승한 1.6%를 나타냈으며, 10월 1.0%, 11월 1.2%를 기록하며 소폭 하락함.

- 3/4분기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7% 상승하였으며 에너지가격 하락 등으로 10월과 11월에도 1.7% 상승하는데 그침.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3/4분기 1.3%를 나타냈으며 10월 0.3%, 11월 0.7%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임.

- 근원 생산자 물가상승률은 3/4분기 1.2%, 10월 1.4%, 11월 1.3%를 나타냄.

〈표 8〉 미국의 주요 고용·물가 지표

구분	2011	2012	2012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실업률 ¹⁾ (%)	8.9	8.1	8.3	8.2	8.0	7.8	7.7	7.6	7.3	7.3	7.0
포괄적 실업률(u-6) ²⁾ (%)	15.9	14.7	14.9	14.7	14.8	14.4	14.2	14.0	13.8	13.8	13.2
비농업취업자 증감 ³⁾ (만 명)	210.3	219.3	78.7	32.4	45.6	62.6	62.2	54.7	50.0	20.0	20.3
실업수당 청구자 수 ⁴⁾ (만 명)	40.9	37.5	37.2	37.8	37.1	37.9	35.7	34.7	33.1	32.4	35.7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	3.2	2.1	2.8	1.9	1.7	1.9	1.7	1.4	1.6	1.0	1.2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1.7	2.1	2.3	2.3	2.0	1.9	1.9	1.7	1.7	1.7	1.7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	6.0	1.9	3.4	1.0	1.5	1.7	1.5	1.5	1.3	0.3	0.7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2.4	2.6	3.0	2.7	2.5	2.2	1.8	1.7	1.2	1.4	1.3

주: 1) 16세 이상, 계절조정.

2)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16세 이상, 계절조정.

3) 전기대비 증감.

4) 해당 기간의 청구자 수 평균.

5) 1982-84=100, 전년동기(월)대비.

6) 1982=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나. 유로경제

2013년 3/4분기 유로경제는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동향〉

- 2013년 3/4분기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독일(+0.3%)과 스페인(+0.1%)을 중심으로 0.1%를 기록하며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냄.
- 3/4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와 동일한 0.1% 증가함.
- 고정자본투자는 제조업경기 호조로 0.4% 증가하였으며 정부지출도 전분기대비 0.2%p 확대된 0.2% 증가함.
- 수출은 역내 및 아시아 지역의 수요 감소로 전분기대비 0.2% 증가하는데 그쳤고, 수입은 전분기대비 1.0% 늘어나는데 그침.

〈표 9〉 유로지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1	2012	2012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EA17 GDP	1.6	-0.7	-0.1	-0.3	-0.1	-0.5	-0.2	0.3	0.1
민간소비	0.3	-1.4	-0.3	-0.5	-0.1	-0.5	-0.1	0.1	0.1
고정자본투자	1.6	-4.1	-1.1	-2.0	-0.6	-1.2	-1.9	0.2	0.4
정부지출	-0.1	-0.5	-0.3	-0.3	-0.2	0.0	0.3	0.0	0.2
수출	6.5	2.5	0.8	0.9	0.7	-0.5	-1.0	2.1	0.2
수입	4.5	-1.0	0.0	-0.2	0.3	-0.9	-1.2	1.6	1.0

자료: Eurostat(2014, 1).

- 지역별로는 독일과 영국의 경제성장률이 플러스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세에서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하였으나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2/4분기 플러스 성장에서 3/4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하였음.
- 2013년 3/4분기 독일과 영국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였음.

- 독일은 2/4분기 0.7% 성장에서 0.4%p 하락하여 3/4분기 0.3% 성장하는데 그쳤음.
-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2/4분기에 이어 3/4분기에도 0.8% 성장하며 유로존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경기 둔화폭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3/4분기 각각 0.0%, 0.1% 성장하며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함.
- 반면 프랑스는 고정자본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3/4분기 수출도 1.3% 감소하여 전분기대비 0.1% 마이너스 성장함.

〈생산 및 내수부문〉

- 2013년 3/4분기 유로지역 산업생산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의 산업생산이 각각 0.3%, 0.4% 감소함에 따라 0.2% 줄어들었으며 10월에도 1.1% 감소하였음.
- 2013년 3/4분기 소매판매는 전분기대비 0.4% 증가하였으며 향후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줄어들고 있음.
 - 3/4분기 유로지역 ESI(경기체감지수)는 94.9로 전분기대비 5.1p 상승하였으며, 10월 97.7, 11월 98.5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지속함.
 - 3/4분기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4.9p 상승한 -16.0을 나타냈고 10월 -14.5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나 11월 프랑스 소비자 신뢰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월대비 0.9p 하락한 -15.4를 나타냄.

〈표 10〉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1	2012	2012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유로지역											
ESI ¹⁾	101.7	90.4	95.0	92.3	87.4	86.8	90.1	89.8	94.9	97.7	98.5
소매판매 증가율 ²⁾ (%)	-0.3	-1.7	-0.4	-0.8	0.1	-1.4	0.2	0.2	0.4	-0.3	-
소비자신뢰지수 ³⁾	-14.5	-22.3	-19.9	-19.5	-23.8	-26.2	-23.7	-20.9	-16.0	-14.5	-15.4
산업생산 증가율 ⁴⁾ (%)	3.5	-2.5	-0.7	-0.6	0.1	-2.1	0.4	0.7	-0.2	-1.1	-

주: 1)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서비스업(30%)
+소비자신뢰(20%)+건설업(5%)+소매거래(5%)

2)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3)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4) 계절조정 2010=100, 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자료: Eurostat, Bloomberg.

〈고용과 물가〉

■ 2013년 3/4분기 유럽 지역의 실업률은 소폭 하락하였음.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로지역 주요국의 2013년 3/4분기 실업률은 2/4분기와 동일한 8.0%를 기록하였으며, 북유럽도 전분기와 동일한 6.6%를 나타냄.
- 반면 3/4분기 남유럽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20.6%를 기록하였으며 동유럽 실업률도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10.4%를 기록함.

〈표 11〉 유럽 권역별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분기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주요국 ¹⁾	북유럽 ²⁾	동유럽 ³⁾	남유럽 ⁴⁾	주요국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2013년 1/4	8.0	6.8	10.7	20.6	1.9	1.2	2.7	1.3
2013년 2/4	8.0	6.6	10.6	20.7	1.7	1.3	2.1	0.9
2013년 3/4	8.0	6.6	10.4	20.6	1.8	1.5	1.7	0.5

주: 1) 독일, 프랑스, 영국.

2)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3)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4)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5) 전년동기대비.

자료: Eurostat.

■ 2013년 3/4분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주요국과 북유럽의 경우 전분기보다 상승하였고 동유럽과 남유럽은 하락하였음.

○ 3/4분기 주요국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분기대비 0.1%p 상승한 1.8%를 기록하였으며 북유럽은 전분기대비 0.2%p 상승한 1.5%를 기록함.

○ 3/4분기 동유럽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1.7%를 나타냈으며 북유럽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분기대비 0.4%p 하락하여 0.5%를 기록함.

〈표 12〉 유럽 주요국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1	2012	2012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독일 GDP	3.3	0.7	0.7	-0.1	0.2	-0.5	0.0	0.7	0.3
민간소비	2.3	0.8	0.0	0.0	0.3	0.1	0.3	0.6	0.1
고정자본투자	6.9	-2.1	-0.4	-1.9	0.1	-0.6	-1.9	1.6	1.6
수출	8.0	3.2	1.7	1.4	0.5	-1.6	-1.0	2.4	0.1
수입	7.4	1.4	0.1	0.7	0.1	-0.9	-0.6	1.9	0.8
프랑스 GDP	2.0	0.0	0.0	-0.3	0.2	-0.2	-0.1	0.6	-0.1
민간소비	0.6	-0.3	0.3	-0.5	0.1	0.0	-0.1	0.4	0.1
고정자본투자	2.9	-1.2	-1.3	-0.4	-0.8	-0.6	-0.9	-0.4	-0.4
수출	5.4	2.4	0.4	0.3	0.4	-0.8	-0.3	1.9	-1.3
수입	5.1	-1.1	0.8	0.2	0.0	-1.2	0.1	1.5	0.9
이탈리아 GDP	0.5	-2.5	-1.1	-0.6	-0.5	-0.9	-0.6	-0.3	0.0
민간소비	-0.3	-4.1	-1.8	-0.5	-1.5	-0.8	-0.5	-0.5	-0.2
고정자본투자	-2.2	-8.3	-3.8	-1.6	-1.3	-1.7	-2.9	0.0	-0.6
수출	6.2	2.0	0.2	-0.1	0.8	-0.1	-1.2	0.7	0.7
수입	0.8	-7.4	-2.7	-0.8	-1.6	-2.0	-0.5	-0.7	2.0
스페인 GDP	0.1	-1.6	-0.4	-0.5	-0.4	-0.8	-0.4	-0.1	0.1
민간소비	-1.2	-2.8	0.2	-1.1	-0.7	-2.0	-0.6	0.0	0.4
고정자본투자	-5.4	-7.0	-1.7	-3.3	0.2	-3.0	-1.6	-2.0	0.2
수출	7.6	2.1	-3.1	0.6	6.5	0.6	-4.3	6.4	2.2
수입	-0.1	-5.7	-3.3	-2.2	4.6	-2.6	-4.5	5.2	2.8
영국 GDP	1.1	0.3	0.0	-0.4	0.8	-0.1	0.5	0.8	0.8
민간소비	-0.4	1.5	0.5	0.5	0.2	0.7	0.7	0.4	0.8
고정자본투자	-2.4	0.7	5.1	-2.8	-2.2	-4.5	0.7	1.7	1.5
수출	4.5	1.1	-1.7	-1.0	2.9	-1.9	-0.2	3.3	-3.0
수입	0.3	3.1	0.7	1.4	0.6	-0.2	-1.7	2.5	0.7

자료: Eurostat,

다. 일본경제

2013년 3/4분기 일본경제는 경기부양 정책 등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성장폭은 2분기 연속 둔화하고 있음.

〈최근 동향〉

- 2013년 3/4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둔화와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0.6%p 하락한 0.3% 증가하는데 그침.
 - 3/4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보다 0.5%p 감소한 0.2% 증가하는데 그침.
 - 2013년 3/4분기 주택투자는 전분기보다 2.3%p 상승한 2.6%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는 전분기보다 0.9%p 하락하여 2/4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 정부지출 증가율은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하여 3/4분기 0.2%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공공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3/4분기 6.5% 증가함.
 - 수출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따른 신흥국 경제 둔화 등으로 해외수요가 부진하여 전분기대비 0.6% 감소하였고 수입은 투자 확대에 전분기대비 0.5%p 확대된 2.2%를 기록하였음.

〈표 13〉 일본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1	2012	2012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실질 GDP	-0.5	1.4	0.9	-0.5	-0.8	0.1	1.1	0.9	0.3
민간소비	0.3	2.0	0.4	0.4	-0.5	0.6	1.0	0.7	0.2
설비투자	4.1	3.7	-2.1	0.4	-2.1	-0.6	-1.0	0.9	0.0
주택투자	5.1	2.9	-1.3	2.8	1.1	3.1	2.2	0.3	2.6
정부지출	1.2	1.7	1.3	-0.5	0.4	0.7	0.7	0.6	0.2
공공투자	-8.2	2.8	6.8	-1.9	-2.4	2.9	1.1	6.3	6.5
수출	-0.4	-0.1	2.7	-0.5	-3.8	-3	3.9	2.9	-0.6
수입	5.9	5.3	1.9	1.4	-0.4	-1.7	1.0	1.7	2.2

자료: 일본 내각부(2013. 12).

〈생산 및 내수부문〉

■ 2013년 3/4분기 광공업생산은 주택투자 확대에 따라 건설업을 중심으로 1.7% 증가하였음.

- 그러나 증가세는 10월 1.0%, 11월 0.1%를 나타내며 둔화되었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소비세 인상 결정 및 미국 양적완화 축소 관련 불확실성 확대 때문임.

■ 아베노믹스 성공 여부 불확실성과 관련한 우려로 2013년 3/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소폭 하락하였음.

- 2013년 3/4분기 소매판매는 주가상승세 둔화로 인한 경기회복 기대 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전분기대비 0.1% 감소하였으며 10월에도 0.9% 감소함.
- 2013년 3/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0.8p 하락한 44.0을 나타냈으며, 10월 소비세 인상 결정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41.2로 하락하였음.

■ 2013년 3/4분기 주택투자는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설비투자는 부진하였음.

- 2013년 3/4분기 주택착공호수는 13.5% 증가하였으며, 10월과 11월 각각 7.1%, 14.1% 늘어나 증가세가 유지되었음.
- 3/4분기 민간기계수주액은 전분기대비 2.5%p 둔화된 4.3%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10월에도 0.6% 증가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임.

〈표 14〉 일본의 주요 내수부문 경제지표

구분	2011	2012	2012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광공업생산 증가율 ¹⁾ (%)	-2.8	0.6	0.8	-2.2	-3.2	-1.9	0.6	1.5	1.7	1.0	0.1
소매판매 증가율 ²⁾ (%)	-1.0	1.8	1.0	0.3	-0.9	-0.2	0.6	1.1	-0.1	-0.9	1.9
소비자신뢰지수 ³⁾	37.8	40.0	39.5	40.6	40.5	39.3	43.3	44.8	44.0	41.2	42.5
주택착공호수 증가율 ⁴⁾ (%)	2.6	5.8	3.7	6.2	-1.1	15.0	5.1	11.9	13.5	7.1	14.1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⁵⁾ (%)	7.8	-4.6	1.5	-2.6	-1.3	-0.8	0.0	6.8	4.3	0.6	-

주: 1) 계절조정, 2005=100, 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2) 전기대비.

3) 기준치=50, 기간 중 평균.

4) 전년동기(월)대비.

5)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기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총무성.

〈고용과 물가〉

■ 2013년 3/4분기 고용시장은 유효구인배율이 상승하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 3/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4.0%를 기록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 반면 유효구인배율은 3/4분기 0.95, 10월 0.98, 11월 1.00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함.

■ 소비자물가는 엔화 약세에 따라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 2013년 3/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를 기록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도 1.1%, 1.5%를 나타냄.
-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3/4분기 0.1% 하락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 0.3%, 0.6% 상승하였음.

〈표 15〉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1	2012	2012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실업률(%)	4.6	4.4	4.5	4.4	4.3	4.2	4.2	4.0	4.0	4.0	4.0
유효구인배율(배) ¹⁾	0.65	0.80	0.75	0.80	0.81	0.82	0.85	0.90	0.95	0.98	1.00
소비자물가 상승률 ³⁾ (%)	-0.3	0.0	0.3	0.1	-0.4	-0.2	-0.6	-0.3	1.1	1.1	1.5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³⁾ (%)	-1.0	-0.6	-0.6	-0.5	-0.6	-0.5	-0.8	-0.4	-0.1	0.3	0.6

주: 1) 구인 수/구직자 수

2) 계절조정, 전분기(월)대비 증감.

3) 2010=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총무성.

라. 중국경제

2013년 3/4분기 중국경제는 투자가 소폭 확대되었고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경제성장률이 반등함.

〈최근 동향〉

- 2013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2/4분기 대비 0.3%p 상승한 7.8%를 기록함.
 - 3/4분기 고정자산투자는 인프라투자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으로 20.2% 증가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도 각각 20.1%, 19.9% 늘어남.
 - 3/4분기 수출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의 수요가 확대되었으나 미국 및 EU로의 수출 증가폭이 줄어들어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4.0% 증가하는데 그침.
 - 3/4분기 수입 증가율은 8.5%를 기록하였으며 10월과 11월 각각 7.6%, 5.3%를 나타내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음.

〈표 16〉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1	2012	2012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실질 GDP(%) ¹⁾	9.3	7.8	8.1 (1.4)	7.6 (2.2)	7.4 (2.0)	7.9 (1.9)	7.7 (1.5)	7.5 (1.9)	7.8 (2.2)	-	-
고정자산투자 ²⁾ (%)	23.8	20.6	20.9	20.4	20.5	20.6	20.9	20.1	20.2	20.1	19.9
수출 증가율(%)	20.7	7.9	8.9	10.5	4.5	9.5	18.9	4.1	4.0	5.6	12.7 ³⁾
수입 증가율(%)	25.3	4.3	9.9	6.5	1.5	2.8	9.6	5.2	8.5	7.6	5.3

주: 1) 전기(월)대비, 괄호는 전분기대비.

2) 도시지역 기준.

3) 11월 전년동기대비 수출증가율은 미국(+17.7%), EU(+18.4%), 홍콩(+5.4%)를 중심으로 10월에 비해 크게 증가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내수부문〉

■ 소매판매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반면 소비자신뢰지수는 소폭 하락하였고 기업가신뢰지수는 소폭 상승함.

○ 2013년 3/4분기 소매판매는 추석연휴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0.3%p 상승한 13.3% 증가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도 13.3%, 13.7% 늘어남.

○ 소비자신뢰지수는 3/4분기 98.3을 기록하여 전분기보다 1.6p 하락하였으나 10월 102.9, 11월 98.9를 기록하며 소폭 상승함.

○ 2013년 3/4분기 기업가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2.5p 상승한 119.5를 나타냄.

〈표 17〉 중국의 주요 내수관련 지표

구분	2011	2012	2012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17.1	14.3	15.0	13.9	13.5	14.9	12.4	13.0	13.3	13.3	13.7
소비자신뢰지수	103.3	102.4	103.1	102.4	99.0	105.0	105.1	99.9	98.3	102.9	98.9
기업가신뢰지수 ²⁾	130.6	120.3	123.0	121.2	116.5	120.4	122.4	117.0	119.5	-	-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ECI(Entrepreneurs Confidence Index): 0부터 200까지 값을 갖는데 100~200일 경우 중국 기업가들(건설, 도매 등 8개 섹터 21,000개 기업)이 기업경기가 긍정적인 것으로, 0~100일 경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생산부문〉

■ 산업생산 증가율이 소폭 확대됨에 따라 구매자관리지수도 소폭 상승함.

○ 2013년 3/4분기 산업생산은 소매판매 증가세 확대 등으로 전분기대비 1.0%p 상승한 10.1% 증가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도 각각 10.3%, 10.0% 증가함.

○ 3/4분기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²⁾는 전분기보다 0.3p 상승한 50.8을 나타냈으며 10월과 11월에도 각각 51.4를 기록함.

2)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표 18〉 중국의 주요 생산관련 지표

구분	2011	2012	2012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산업생산 증가율 ¹⁾ (%)	13.8	10.0	11.7	9.5	9.1	10.0	9.5	9.1	10.1	10.3	10.0
구매자관리지수 ²⁾	51.4	50.8	50.6	52.3	49.8	50.5	50.5	50.5	50.8	51.4	51.4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PMI, 기준=50.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물가〉

■ 2013년 하반기들어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확대되고 있으며 생산자물가 하락세는 둔화되고 있음.

- 2013년 3/4분기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가격 불안과 집세 상승 등으로 2/4분기보다 0.4%p 높아진 2.8% 상승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도 각각 3.2%, 3.0% 올랐음.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3/4분기 -1.7%, 10월 -1.5%, 11월 -1.4%를 기록하며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음.

〈표 19〉 중국의 주요 물가지표

구분	2011	2012	2012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	2.6	3.8	2.9	1.9	2.1	2.4	2.4	2.8	3.2	3.0
생산자물가 상승률(%)	6.1	-1.7	0.1	-1.4	-3.3	-2.3	-1.7	-2.7	-1.7	-1.5	-1.4

주: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2. 국내경제

〈성장 및 내수〉

2013년 3/4분기 국내경제는 내수부진이 다소 완화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 2013년 3/4분기 국내경제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소폭 확대되고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전환하여 전분기대비 1.0%p 상승한 3.3% 성장하였음.

- 민간소비는 전분기대비 0.3%p 상승한 2.1% 증가하며 소폭 개선되었으나 근로소득 증가율 둔화³⁾, 저금리에 따른 이자소득 감소⁴⁾ 등으로 회복속도는 완만함.
- 건설투자는 정부의 추경 조기 집행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8.6% 증가하였으며 설비투자는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로 전환하였음.
- 재화수출은 전분기대비 3.2%p 축소된 2.8% 증가하였으며 재화수입도 2.9% 증가함.

〈표 20〉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실질 GDP	3.7	2.8 (0.8)	2.4 (0.3)	1.6 (0.0)	1.5 (0.3)	2.0	1.5 (0.8)	2.3 (1.1)	3.3 (1.1)
- 민간소비	2.4	1.3	1.0	1.7	2.7	1.7	1.5	1.8	2.1
- 설비투자	3.6	8.8	-3.5	-6.9	-5.2	-1.9	-11.9	-4.6	1.5
- 건설투자	-4.7	-0.4	-3.1	-0.3	-4.2	-2.2	2.4	7.2	8.6
- 재화수출 ³⁾	9.9	4.7	2.4	3.2	4.7	3.8	4.5	6.0	2.8
- 재화수입 ³⁾	8.6	4.4	-0.1	0.3	1.7	1.5	1.5	5.1	2.9

주: 1) 2000년 가격기준에서 2005년 연쇄가격 기준으로 전환됨.

2) ()는 계절조정이 반영된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3)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3) 2011년 수치는 확정치, 2012년과 2013년 1/4~3/4분기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3) 근로소득 증가율(전년동기대비): 2012년 3/4분기 7.8% → 2013년 2/4분기 3.4% → 2013년 3/4분기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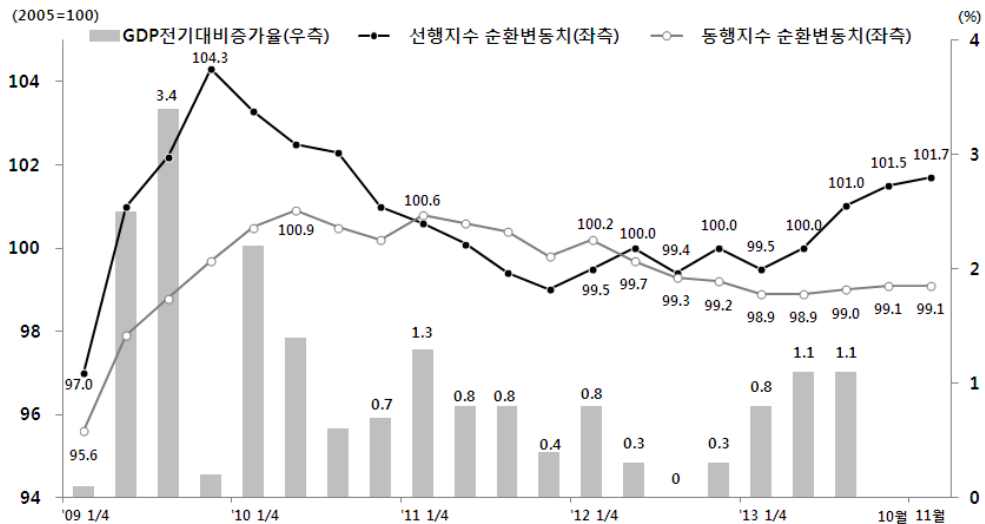
4) 재산소득 증가율(전년동기대비): 2013년 2/4분기 1.1% → 3/4분기 -12.7%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3년 2/4분기 이후 기준치(100.0)를 상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기준치(100.0)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음.

○ 2013년 3/4분기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분기대비 1.0p 상승한 101.0을 기록하였으며 10월과 11월 101.5, 101.7을 기록하며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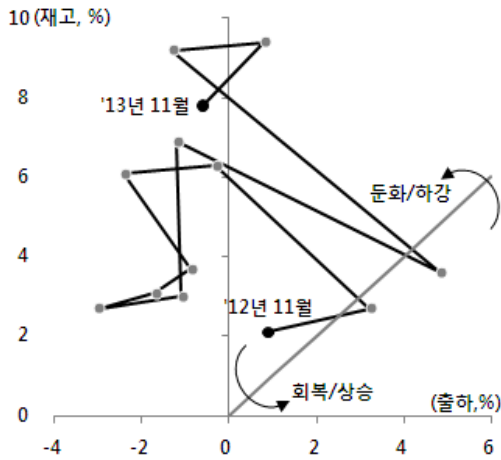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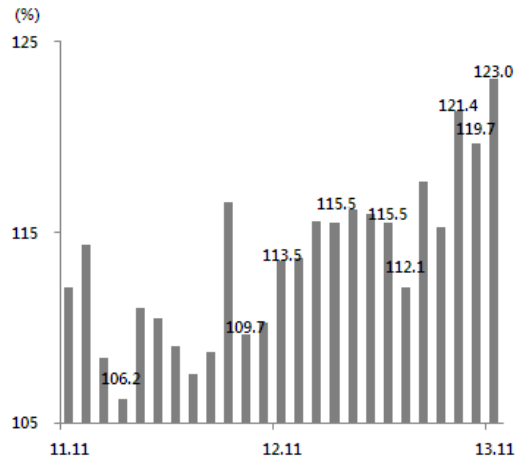
○ 그러나 3/4분기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0을 기록하며 기준치(100.0)을 하회하고 있으며 10월과 11월에도 각각 99.1을 나타냄.

〈그림 1〉 GDP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2013년 3/4분기, 10월과 11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제조업 재고 출하 순환도

〈그림 3〉 제조업 재고/출하비율¹⁾

주: 재고출하 순환도는 X축에 출하 전년동월비(계절조정), Y축에는 재고 전년동월비(계절조정)를 표시하여 출하와 재고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경기국면 변환을 판단하는 도표.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주: 1)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 비율

$$= (\text{계절조정재고지수} \div \text{계절조정출하지수}) \times 100$$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제조업 재고·출하순환⁵⁾의 경우 2013년 11월 제조업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0.7% 감소하였으며 재고는 7.8% 증가하여 2012년 11월에 비해 둔화/하강 국면에 더 깊숙히 진입함.

○ 제조업 출하대비 재고비율(재고율)은 123.0%로 2012년 11월 113.5%에 비해 9.5%p 상승함.

■ 2013년 3/4분기 소매판매는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0.7%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10월과 11월 각각 1.7%, 1.3%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임.

○ 2013년 3/4분기 내구재 판매는 1.4% 감소하였으며 10월 일시적으로 3.2% 증가하였다가 11월 0.9% 감소함.

○ 의복 및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는 3/4분기 2.2% 증가하였으며 10월 온화한 기온 등에 따른 계절의류 판매 둔화로 2.5% 감소하였다가 11월 2.8% 증가하며 등락을 보임.

○ 음식료품,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는 3/4분기 1.2%, 10월 3.0%, 11월 1.9%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지속함.

5) 2013년 9~11월의 재고, 출하, 재고율은 잠정치임.

〈표 21〉 소비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2				2013				
	2/4	3/4	4/4	연간	1/4	2/4	3/4 ¹⁾	10월 ¹⁾	11월 ¹⁾
소매 판매	1.4	2.6	2.5	2.3	0.2	1.1	0.7	1.7	1.3
- 내구재	2.9	6.6	7.5	5.3	1.2	2.3	-1.4	3.2	-0.9
* 승용차	1.5	-1.8	15.5	2.4	4.0	2.1	6.2	2.7	-3.2
- 준내구재	-1.0	-3.5	0.3	-1.1	1.8	0.9	2.2	-2.5	2.8
- 비내구재	1.6	3.0	1.0	2.3	-1.0	0.7	1.2	3.0	1.9

주: 1) 잠정치.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3년 3/4분기 이후 설비투자자와 국내기계수주는 회복세를 보임.

○ 3/4분기 설비투자지수는 4.7% 하락하는데 그쳐 감소폭이 5.3%p 줄어들었음.

- 10월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 수입 증가, 자동차 파업 해소 등으로 14.4% 상승하였고, 11월에도 6.2%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임.

○ 국내기계수주는 3/4분기 4.9%, 10월 71.7%, 11월 27.6% 증가하며 큰 폭으로 회복됨.

〈표 22〉 투자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2				2013				
	2/4	3/4	4/4	연간	1/4	2/4	3/4 ¹⁾	10월 ¹⁾	11월 ¹⁾
설비투자지수	-2.7	-8.2	-6.9	-2.0	-15.4	-10.0	-4.7	14.4	6.2
- 기계류	-2.6	-7.8	-10.3	-2.2	-20.8	-13.1	-8.0	7.2	3.5
- 운송장비	-3.1	-10.1	7.2	-1.1	10.4	3.4	10.2	42.2	15.6
국내기계수주 ²⁾	-19.8	-10.4	-21.5	-13.4	-10.9	8.7	4.9	71.7	27.6
건설투자	-3.1	-0.3	-4.2	-2.2	2.4	7.2	8.6	-	-
- 건설기성(불변) ³⁾	-9.7	-2.3	-5.6	-5.8	5.2	15.6	11.1	17.2	12.0
건축	-12.5	-6.2	-7.6	-7.6	4.9	20.6	15.3	19.0	25.9
토목	-6.1	3.2	-3.4	-3.5	5.5	9.7	5.5	14.8	-3.7
- 국내건설수주(경상)	-0.7	-13.6	-33.1	-8.9	-41.2	-28.8	-9.0	48.9	-5.4
건축	-7.0	-7.1	-27.4	-8.7	-33.6	-28.3	-7.9	41.5	-9.0
토목	12.5	-26.3	-43.7	-9.3	-51.3	-29.7	-11.5	70.2	4.6

주: 1) 잠정치.

2) 선박제외.

3) 불변.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3년 3/4분기 건설투자는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건설기성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소폭 둔화하였고, 국내건설수주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2013년 3/4분기 건설기성은 전분기대비 4.5%p 감소한 11.1% 증가하였음.

- 10월과 11월에는 각각 17.2%, 12.0% 증가하며 증가폭이 소폭 확대됨.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한 건축부문의 실적 하락으로 3/4분기 7.9% 감소함.

- 10월 기저효과 등으로 48.9% 상승하였으나 11월 5.4%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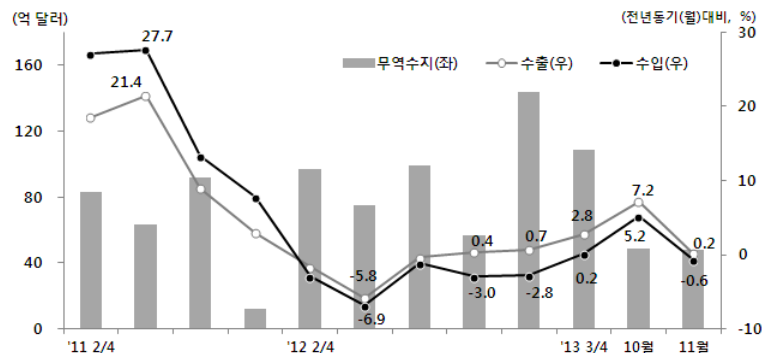
〈대외거래〉

■ 2013년 11월 수출⁶⁾은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한 479억 달러, 수입¹⁷⁾은 0.6% 감소한 431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무역수지는 48억 달러 흑자임.

○ 수출은 식료 및 직접소비재(-6.6%)와 경공업 제품(-7.2%)에서 감소하였으며, 원료 및 연료(+3.0%), 중화학 공업품(+0.6%)의 경우 소폭 증가함.

○ 수입은 국제유가 하락 및 석유제품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원자재(-4.3%) 수입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내수의 점진적인 개선으로 소비재(7.9%)와 자본재(4.5%)는 증가세를 유지함.

〈그림 4〉 대외거래지표 추이



자료: 관세청(통관 기준).

6) 수출과 수입은 2013년 11월까지 확정치임.

〈표 23〉 주요 품목별 수출입 증감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2				2013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수출	식료 및 직접소비재	1.8	4.2	0.6	4.6	0.9	-3.2	-7.1	10.2	-6.6
	원료 및 연료	-6.8	2.8	9.2	6.2	2.9	-8.5	-9.4	-15.0	3.0
	경공업 제품	3.2	3.2	-0.2	3.9	-3.7	-1.2	-8.5	5.2	-7.2
	중화학 공업품	-2.1	-7.2	-1.9	-2.9	0.3	2.3	6.0	10.9	0.6
	전체	-1.7	-5.2	-0.4	-1.3	0.4	0.7	2.7	7.2	0.2
	금액(억 달러)	1,401	1,331	1,398	5,479	1,353	1,412	1,368	504.9	479.0
수입	소비재	-1.8	-2.3	6.4	2.0	5.4	7.1	6.2	16.0	7.9
	원자재	-0.8	-7.0	-0.8	0.1	-3.4	-6.9	-2.9	-0.2	-4.3
	자본재	-6.9	-10.1	-3.8	-4.2	-4.9	3.0	5.1	12.4	4.5
	전체	-2.6	-7.4	-1.1	-0.9	-3.0	-2.8	0.3	5.1	-0.6
	금액(억 달러)	1,304	1,257	1,298	5,196	1,297	1,268	1,260	456.1	431.0
무역수지		97.0	74.7	99.4	282.9	56.5	143.8	108.1	48.8	48.0

주: 금액은 천만 달러에서 반올림함.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 2013년 11월 미국(+2.8%)과 EU(+6.5%), 중국(+3.7%)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수입의 경우 일본(-11.9%)과 중동(-2.3%), 중남미(-10.5%) 등에서 감소하였음.

○ 미국과 EU 경가 회복세가 지속되고 중국도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함에 따라 대 중국 및 EU, 미국 수출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표 24〉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11월	증감률	1~11월	증감률	11월	증감률	1~11월	증감률
미국	52.6	2.8	569.0	5.4	34.0	7.6	377.4	-6.3
일본	33.8	-6.6	320.0	-10.5	47.1	-11.9	551.8	-6.7
EU	37.0	6.5	450.0	-1.4	43.3	8.3	508.3	11.8
동남아	105.8	-11.9	1155.5	0.0	58.5	3.2	640.4	2.2
중동	27.5	-10.7	293.3	-12.8	108.2	-2.3	1157.0	-0.8
중국	128.9	3.7	1328.6	8.6	72.5	4.8	759.6	2.1
중남미	23.3	-5.6	331.5	-2.7	15.8	-10.5	170.6	-6.2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산업생산〉

■ 2013년 3/4분기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마이너스 증가세를 벗어났으나 서비스업생산이 부진하여 1.1%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10월에는 자동차 파업 해소 등 일시적인 영향으로 4.1% 증가하였고 11월 1.2% 증가함.

○ 3/4분기 광공업생산은 제조업(0.0%)과 자동차(5.2%)가 증가세로 전환하고 ICT(7.7%)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마이너스 증가세를 벗어났음.

- 10월에도 자동차 생산이 증가하면서 3.3% 확대되었다가 11월 제조업, 자동차, ICT 생산이 감소하면서 1.3% 감소함.

○ 3/4분기 서비스업생산은 숙박 및 음식점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감소세를 보이며 0.7% 증가하는데 그침.

〈표 25〉 산업생산지수의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2				2013				
	2/4	3/4	4/4	연간	1/4	2/4	3/4 ¹⁾	10월 ¹⁾	11월 ¹⁾
전산업생산 ²⁾	0.6	0.7	0.1	1.0	0.2	1.7	1.1	4.1	1.2
광공업	1.1	-1.0	-0.1	0.8	-1.7	-0.7	0.0	3.3	-1.3
- 제조업	1.0	-1.1	-0.2	0.8	-1.8	-0.8	0.0	3.3	-1.3
- 자동차	3.2	-11.6	-2.3	-0.1	-3.8	-2.2	5.2	10.6	-0.4
- ICT	-2.3	-5.5	5.3	0.4	-1.5	0.2	7.7	2.2	-2.2
서비스업	1.5	1.5	0.8	1.6	0.8	1.7	0.7	2.8	1.8
- 도매 및 소매업	0.1	0.5	0.4	0.7	-0.6	0.5	-0.6	1.7	-0.4
- 운수업	0.8	1.2	2.1	1.2	2.0	2.2	-1.4	-0.5	-1.5
- 숙박 및 음식점업	-3.3	1.1	-0.6	-1.2	-0.4	-0.3	0.5	4.1	3.0
- 금융 및 보험업	1.6	1.8	2.2	2.8	1.4	2.8	-1.2	-0.9	-0.4
- 부동산 및 임대업	-3.6	-6.0	-1.4	-4.3	-1.1	5.7	1.2	5.1	0.2

주: 1) 잠정치.

2) 농림어업 제외.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물가 및 고용〉

2013년 3/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였고, 고용시장에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계소득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실질소비지출은 감소하였음.

■ 2013년 3/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를 기록하며 2/4분기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10월과 11월에 각각 0.7%, 0.9%를 나타내며 큰 폭으로 하락함.

○ 2013년 3/4분기 상품 가격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5%p 상승한 1.1%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폭이 전분기대비 0.7%p 줄어들었으나, 공업제품 가격 상승률이 전분기대비 0.9%p 증가하였기 때문임.

- 그러나 10월 이후 농축수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상품 가격은 10월과 11월 각각 0.1%, 0.8% 상승하는데 그침.

○ 반면 2013년 3/4분기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1.3%를 기록함.

■ 2013년 3/4분기 소비자기대지수는 전분기보다 1.2p 상승한 112.5를 기록하였으며 10월 112.5, 11월 116.1로 상승하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는 모습임.

〈표 26〉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소비심리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2				2013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소비자기대지수 ¹⁾	103.8	94.4	97.1	97.5	107.8	111.3	112.5	112.5	116.1
소비자물가 상승률	2.4	1.6	1.7	2.2	1.4	1.1	1.2	0.7	0.9
〈품목성질별 물가지수 상승률〉									
상품	4.0	2.2	2.2	3.0	1.5	0.6	1.1	0.1	0.8
- 농축수산물	5.8	1.3	3.4	3.1	1.6	-1.2	-0.5	-5.4	-3.7
- 공업제품	3.5	1.8	1.7	2.9	1.0	0.1	1.0	1.0	1.4
- 전기·수도·가스	4.6	6.1	3.6	5.0	4.9	5.8	3.5	3.4	4.6
서비스	1.3	1.1	1.4	1.5	1.3	1.4	1.3	1.1	1.1
- 집세	4.5	4.0	3.4	4.1	3.0	2.7	2.6	2.6	2.6
- 공공서비스	0.7	0.6	1.1	0.5	1.0	0.8	0.5	0.7	0.7
- 개인서비스	0.6	0.6	0.7	1.1	1.0	1.3	1.2	1.0	1.0

주: 1) 소비자 기대 및 평가지수가 2008년 8월까지 통계청에서 작성된 후 2008년 9월부터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지수로 개편되었으나, 자료의 연속성을 위해 '85.0/77.0 × 향후경기전망CSI(Consumer Sentiment Index)'로 산출함.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 국내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3/4분기 이후 11월까지 고용지표는 개선세를 보임.

- 총취업자 수는 2013년 3/4분기 1.7% , 10월 1.9%, 11월 2.4% 늘어나며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음.
- 청년 취업자 수는 3/4분기 1.1% 감소하였으나, 10월 0.8%, 11월 1.4%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고용률은 2013년 3/4분기 60.3%, 10월 60.5%, 11월 60.4%를 기록하며 2013년 1/4분기 이후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실업률은 3/4분기 3.0%를 기록하였으며 10월과 11월 각각 2.8%, 2.7%를 나타내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청년실업률도 2013년 3/4분기 전분기와 동일한 7.9%를 기록하였으나 10월 7.8%, 11월 7.5%를 기록하며 개선세를 보임.

■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폭은 확대되었음.

-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 수는 2013년 2/4분기 1.6% 감소에서 3/4분기 1.1% 증가로 전환한데 이어 10월에도 0.8% 증가하였으나 11월에는 1.9% 감소하며 증감을 반복함.
- 2013년 3/4분기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⁷⁾는 전분기대비 2.4%p 하락한 0.6% 증가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도 각각 0.7%, 0.9%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부진한 흐름을 보임.
- SOC 및 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정부의 추경사업 효과⁸⁾ 등으로 3/4분기에 이어 10월과 11월에도 증가세가 확대되었음.
- 2013년 3/4분기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0.2% 증가로 전환하였으나 10월에는 0.8% 감소로 다시 전환하였으며 11월에도 1.0% 줄어들었음.
- 2013년 3/4분기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취업자 수의 경우 2/4분기보다 0.8%p 상승한 2.5% 증가하였으며 10월 3.6%, 11월 4.5% 늘어나는데 그쳐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7) 제조업 포함.

8) 공공행정(전년동월비, 만 명): 2013년 6월 -0.4 → 7월 +1.6 → 8월 +1.6 → 9월* +2.3 → 10월* +6.2

* 9월과 10월 사이에는 추경 효과 이외에 기저효과 등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공공행정 전년동월비 증감 규모(만 명): 2012년 9월 -0.5 → 10월 -3.7).

- 도·소매, 음식, 숙박업 취업자 수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임.
- 2013년 3/4분기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취업자 수의 경우 2/4분기보다 0.7%p 상승한 3.8% 증가하였으나 10월 1.2%, 11월 2.2% 늘어나는데 그쳐 증가폭이 감소함.

〈표 27〉 고용 관련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2				2013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총취업자	1.8	2.1	1.4	1.8	1.1	1.3	1.7	1.9	2.4
- 청년취업자	-0.2	-1.4	-2.1	-0.9	-3.0	-2.3	-1.1	0.8	1.4
고용률	60.2	60.0	59.4	59.4	57.7	60.2	60.3	60.5	60.4
실업률	3.3	3.0	2.8	3.2	3.6	3.1	3.0	2.8	2.7
- 청년실업률	8.1	6.8	7.0	7.5	8.4	7.9	7.9	7.8	7.5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1.4	0.1	-0.2	-0.9	-0.7	-1.6	1.1	0.8	-1.9
광공업	-1.6	2.1	3.4	0.3	3.0	3.0	0.6	0.7	0.9
- 제조업	-1.6	2.1	3.5	0.3	3.0	3.0	0.6	0.7	0.8
SOC 및 기타서비스업	2.8	2.2	1.1	2.4	0.8	1.2	2.0	2.2	3.0
- 건설업	1.9	0.9	-2.2	1.3	-3.7	-0.4	0.2	-0.8	-1.0
- 도·소매, 음식, 숙박	2.6	2.1	1.1	1.9	-0.7	-0.2	0.7	1.7	2.6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2.0	-0.4	-0.4	1.4	-0.4	1.7	2.5	3.6	4.5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3.4	3.5	2.3	3.2	3.1	3.1	3.8	1.2	2.2

주: 1)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으로 정의됨.

2) 청년은 15~29세 기준임.

3) SOC는 전기, 가스, 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3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2/4분기 대비 0.4%p 확대된 2.9%를 기록하였으며 월평균 소비지출도 전년동기에 비해 1.1% 증가하였음.

○ 2013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26만 원으로 2.9% 증가하였음.

-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45만 2,000원으로 2/4분기 대비 1.0%p 확대된 3.1% 증가하였으며 흑자액은 95만 9,000원으로 8.6% 증가함.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9만 4,000원으로 1.1% 증가하였으며, 실질소비지출은 0.1% 줄어들어 흑자액은 8.6% 증가하였음.

- 평균소비성향이 72.2%로 전년동기보다 1.4%p 감소하면서 저축능력을 나타내는 흑자율은 27.8%로 전년동기대비 1.4%p 상승함.

〈표 28〉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 관련 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 %p)

구분	2012				2013		
	2/4	3/4	4/4	연간	1/4	2/4	3/4
가구당 월평균 소득(만 원)	394.2	414.2	409.3	407.7	419.3	404.1	426.0
- 증가율	6.2	6.3	5.4	6.1	1.7	2.5	2.9
- 실질소득 증가율	3.7	4.6	3.6	3.8	0.3	1.3	1.6
처분가능소득(만 원)	321.9	335.0	336.1	331.7	339.1	328.7	345.2
- 증가율	6.8	6.3	5.7	6.4	1.7	2.1	3.1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만 원)	238.6	246.7	241.2	245.7	254.3	240.3	249.4
- 증가율	3.6	1.0	1.4	2.7	-1.0	0.7	1.1
- 실질소비지출 증가율	1.1	-0.7	0.3	0.5	-2.4	-0.4	-0.1
흑자액(만 원)	83.3	88.3	94.8	86.0	84.8	88.4	95.9
- 증가율	17.5	24.8	18.5	18.4	10.8	6.1	8.6
평균소비성향 ¹⁾	74.1	73.6	71.8	74.1	75.0	73.1	72.2
흑자율 ²⁾	25.9	26.4	28.2	25.9	25.0	26.9	27.8

주: 1)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

2) 흑자율 =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3. 금융경제

〈금리〉

2013년 4/4분기 중 기준금리는 2.50%로 동결됨.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美 재정협상 지연, 미연준의 양적완화 조기축소 전망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12월 초 3.04%까지 상승하였으나 양적완화 축소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 외국인 순매수가 증가하여 4/4분기 말 2.86%까지 하락함.

■ 2013년 4/4분기 중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0% 수준에서 유지하였음.

- 금융통화위원회는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국내 경기도 회복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함.

■ 2013년 4/4분기 평균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미연준의 양적완화 조기축소 전망으로 상승하였으나 실제 양적완화 축소 결정 이후 외국인 순매수가 증가하면서 하락함.

- 10월 국고채 금리는 10월 16일 미국의 재정협상 타결 이전까지 상승하였으나 타결 이후에는 하락하기 시작하여 월 평균 2.83%를 기록함.
- 11월 국고채 금리는 미연준의 양적완화 조기축소 가능성과 이에 따른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 국내 경기회복 기대 강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여 월 평균 2.94%를 유지함.
- 12월 들어 국고채 금리는 미연준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 우려로 3.04%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실제 양적완화 축소 이후 외국인 순매수가 증가하면서 12월 말 2.86%까지 하락함.

■ 2013년 4/4분기 CD(91일) 평균 금리는 2.65%로 하락하였고 장단기 금리차이는 전분기대비 변동이 없었으며 신용등급 간 스프레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 CD 금리는 기준금리 동결, 발행부진 등의 영향으로 경직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3/4분기 평균 2.67%에서 4/4분기 평균 2.65%로 하락함.
- ‘국고채(3년) - CD(91일)’ 간 스프레드는 4/4분기 평균 25bp로 전분기대비 변동이 없었음.

- 회사채금리는 동양그룹 부실화 등 신용경계감 증대 등으로 국고채금리보다 더 크게 상승하여 신용스프레드가 전분기대비 넓어짐.
- 3/4분기 평균 41bp를 기록한 '회사채(3년, AA-) - 국고채(3년)' 간 스프레드는 4/4분기 평균 43bp를 기록함.

〈표 29〉 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

(단위: %)

구분	2012 4/4	2013 1/4	2013 2/4	2013 3/4	2013 4/4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기준금리	2.75	2.75	2.50	2.50	2.50	0.00	-0.25
CD(91일)	2.89	2.83	2.74	2.67	2.65	-0.02	-0.24
국고채(3년)	2.81	2.68	2.66	2.92	2.90	-0.02	0.09
회사채(3년, AA-)	3.31	3.07	3.02	3.33	3.33	0.00	0.02
스프레드(국고채-CD)	-0.08	-0.15	-0.08	0.25	0.25	0.00	0.33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0.50	0.39	0.36	0.41	0.43	0.02	-0.07

주: 금리는 분기 평균 값임.
자료: Bloomberg.

〈환율〉

2013년 4/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1,061.8원으로 3/4분기 1,111.6원 보다 49.8원 하락함. 4/4분기 말 미연준의 양적완화 축소결정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원화강세가 강화됨.

■ 4/4분기 원/달러 환율은 상품수지 흑자 지속, 양호한 국내 경제, 수출업체 달러 매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원화강세를 보임.

- 10월 원/달러 환율은 상품수지 흑자 지속과 글로벌 달러 약세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여 평균적으로 전월대비 19.4원 하락함.
- 11월 원/달러 환율은 상품수지 흑자기조 유지, 미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지연으로 하락하였으나 외환당국 개입 가능성 경계로 환율 하락폭은 제한됨.

- 12월 원/달러 환율은 수출업체 달러 매도로 하락하였으며 미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결정 이후에도 하락세가 유지됨.

〈표 30〉 환율 추이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2012	2013						
	4/4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원/달러	1,098.7	1,084.8	1,122.3	1,111.6	1,061.8	1,066.1	1,062.8	1,056.5
엔/달러	80.4	92.4	98.8	99.0	100.5	97.9	100.1	103.6
달러/유로	1.294	1.320	1.306	1.324	1.361	1.364	1.349	1.370

주: 환율은 분기 또는 월 평균 값임.

자료: Bloomberg.

■ 4/4분기 달러화는 유로존 경기회복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고, 엔화에 대해서는 일본의 추가 경기부양책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임.

- 10월 달러화는 유로존 경기회복 지속 기대감과 글로벌 자금의 유로존 증시 유입 증가 등으로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으며, 엔화에 대해서는 미연방정부 폐쇄 가능성 강화로 인해 약세를 보임.
- 11월 달러화는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유로화에 대해 강세를 보였으며, 일본은행의 엔화약세 옹호 및 추가 경기부양책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엔화에 대해 강세를 보임.
- 12월 달러화는 유로존 경기회복세 지속, 글로벌 자금의 유로존 유입 증가로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고, 중국 경기회복에 따른 안전자산(엔화) 선호 심리 하락으로 엔화에 대해 강세를 보임.

〈주가지수〉

2013년 4/4분기 중 주가지수는 美 재정 협상 타결로 연중 최고치인 2,060포인트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차익실현에 따른 매도 증가로 1,963포인트까지 하락하였고, 美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반등하여 분기 말 2,011포인트를 기록함.

■ 2013년 4/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美 재정협상 타결과 차익실현 매도 증가로 등락을 보였으나 이후 글로벌 경제지표 호조, 美 통화정책 불확실성 해소 등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분기 말에는 2,011포인트까지 반등함.

- 10월 중 종합주가지수는 美 디폴트 우려 완화, 외국인 순매수 지속에 힘입어 상승폭이 커졌으며 美 재정 협상 타결 이후에는 연중 최고치인 2,060포인트를 기록함.
- 11월 중 종합주가지수는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차익실현 매도 증가로 1,963포인트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글로벌 경제지표 호조로 주식 순매수가 증가하여 11월 말 2,044포인트까지 상승함.
- 12월 중 종합주가지수는 美 양적완화 축소 우려 및 외국인 순매도 증가로 하락하였으나 美 통화정책 불확실성 해소 이후 반등하여 월말에는 2,011포인트를 기록함.

〈그림 5〉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자금흐름〉

2013년 3/4분기 비보험 금융권 순수수는 은행, 증권, 자산운용 등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감소세로 전환됨. 보험권의 순수수는 전분기대비 0.8% 감소함.

■ 2013년 3/4분기 보험권 총순수수는 전분기대비 0.8% 감소하였음.

- 3/4분기 생명보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0.7% 감소함.
- 수입보험료는 전분기대비 2.0% 감소하였고, 지급보험금은 전분기대비 3.1% 감소함.
- 3/4분기 손해보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1.0% 감소함.
- 원수보험료는 전분기대비 1.4% 감소하였고 원수손해액은 전분기대비 1.5% 감소함.

〈표 31〉 금융권 순수신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1/4	2/4	3/4	4/4
보험 ¹⁾	121,898	139,042	174,037	201,794	195,836	139,623	138,497	-
- 생보	96,401	105,806	145,350	169,906	166,114	109,365	108,554	-
수입보험료	223,891	245,286	281,233	313,339	313,227	245,003	240,001	-
지급보험금	127,490	139,480	135,883	143,434	147,113	135,639	131,447	-
- 손보	25,497	33,236	28,687	31,889	29,722	30,258	29,943	-
원수보험료	160,799	167,964	167,265	180,624	169,569	173,584	171,156	-
원수손해액	135,303	134,729	138,578	148,736	139,847	143,326	141,213	-
은행	269,108	120,525	113,355	104,974	123,354	182,746	-31,782	229,979
- 일반 ²⁾	190,485	108,131	54,395	118,680	48,120	147,443	-40,955	128,580
- 신탁	78,623	12,394	58,960	-13,706	75,234	35,303	9,173	101,399
증권 ³⁾	44,117	-33,365	67,718	-22,900	96,983	9,232	-5,597	-47,519
자산운용 ⁴⁾	50,029	83,820	32,104	21,299	183,595	44,093	-9,264	-41,835
총합 ⁵⁾	11,809	-490	-17,161	-2,493	-21,220	-11,420	1,082	2,444

주: 1)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실세충예금 + CD 순발행액

3) 고객예탁금 + RP매도 + CMA

4) 채권형 + MMF + 혼합형 + 주식형 + 기타

5) 발행어음 + CMA예탁금 + 어음매출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 2013년 3/4분기 비보험 금융권의 순수신은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은행권의 경우 신탁계정 순수신과 일반계정 순수신 모두 감소하여 전분기대비 117.4% 감소함.
- 일반계정의 경우 부가세 등 세금납부 등으로 실세충예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은행채 발행 확대영향으로 CD 순발행액이 감소함.

- 증권사의 경우 대고객 RP 매도, CMA 순수신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객예탁금 순수신 감소 전환으로 전체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크게 감소함.
- 자산운용의 경우 MMF 순수신은 은행 단기여유자금 유입 영향으로 증가한 반면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는 신흥국 금융불안에 따른 환매 증가 등으로 감소하여 전체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121.0% 감소함.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13 2/3분기 보험산업 수입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14.7% 감소하고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세가 2.3%로 둔화되면서 8.3% 감소한 41조 1,157억 원을 기록함.

■ FY2013 2/3분기¹⁾ 보험산업의 수입(원수)보험료는 일반저축성보험 기저효과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크게 감소하고 장기보험 성장 둔화 등으로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8.3% 감소한 41조 1,157억 원을 나타냄.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기저효과로 개인보험 수입보험료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도 소폭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14.7% 감소한 24조 1억 원을 기록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자동차보험, 연금부문, 일반손해보험도 저성장하여 전년동기대비 2.3% 증가에 그친 17조 1,156억 원을 기록함.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단위: 조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2/3
생명보험	87.8 (5.8)	24.5 (16.5)	28.1 (35.9)	31.3 (32.3)	31.3 (39.9)	115.3 (31.3)	24.5 (-0.1)	24.0 (-14.7)
손해보험	61.0 (16.7)	16.8 (19.4)	16.7 (17.8)	18.1 (8.7)	17.0 (5.5)	68.5 (12.4)	17.4 (3.3)	17.1 (2.3)
합계	148.8 (10.0)	41.3 (17.6)	44.8 (28.5)	49.4 (22.6)	48.3 (25.5)	183.9 (23.6)	41.9 (1.3)	41.1 (-8.3)

주: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 기준임.

3) 특별계정이 포함됨.

4)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 회계연도 개편으로 FY2013은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됨.

나. 총자산

FY2013 2/3분기 말 보험산업 총자산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총자산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분기대비 2.6% 증가한 749조 원을 기록함.

■ FY2013 2/3분기 말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일반계정 수입보험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회복으로 생명보험 자산이 증가하고, 보험료적립금 증가와 퇴직연금 자산 증가로 손해보험 자산도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2.6% 증가한 749조 원을 나타냄.

- 생명보험 총자산의 경우 일반계정 수입보험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회복으로 일반계정 운용자산 중 주식 및 수익증권과 특별계정 자산도 증가하면서 전분기에 비해 2.6% 증가함.
- 손해보험 총자산의 경우 보험료적립금 증가로 일반계정자산이 늘어난 가운데 퇴직연금 자산 증가로 특별계정자산도 늘어나 전분기대비 3.0% 증가함.

〈표 2〉 보험산업 총자산

(단위: 조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2/3
생명보험	458.2	505.4	529.2	547.8	569.8	569.8	569.5	584.1
	(10.0)	(10.3)	(4.7)	(3.5)	(4.0)	(24.4)	(-0.1)	(2.6)
손해보험	129.8	138.5	146.0	151.8	156.5	156.5	160.3	165.1
	(27.0)	(6.7)	(5.4)	(4.0)	(3.1)	(20.5)	(2.5)	(3.0)
합계	588.0	643.9	675.2	699.6	726.3	726.3	729.8	749.2
	(13.3)	(9.5)	(4.8)	(3.6)	(3.8)	(23.5)	(0.5)	(2.6)

주: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3)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수익성

FY2013 2/3분기 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전년동기기에 비해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0.3%p 낮아진 2.0%를 기록함.

■ FY2013 2/3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은 생명보험 자본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소폭 하락에 그친 반면 손해보험(재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제외)의 자본이익률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0.3%p 하락한 2.0%를 기록함.

○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이 소폭 감소하고 총자본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한 1.8%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자동차보험 실적 악화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0%p 하락한 2.4%를 기록함.

〈표 3〉 보험산업 자본이익률^{1),2)}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연간 ³⁾	1/4	2/4	3/4	4/4	연간 ³⁾	1/3	2/3
생명보험	8.4	1.9	1.9	1.4	1.4	6.6	1.6	1.8
손해보험	16.3	4.1	3.4	1.8	1.9	11.6	2.9	2.4
합계	10.2	2.4	2.3	1.5	1.5	7.8	2.0	2.0

주: 1)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는 농협생명, 화재보험 진입으로 FY2012 1분기부터 각각 24개, 18개 국내외 보험회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3)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개요〉

■ FY2013 2/3분기²⁾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수입보험료가 각각 15.1%, 2.4%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14.7% 감소한 24조 1억 원을 기록하였음.

○ 개인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사망보험 수입보험료가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2012년 8월 이후 급증세를 보였던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수입보험료가 기저효과로 인해 큰 폭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15.1% 감소함.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소폭 축소되면서 2.4% 감소함.

■ FY2013 2/3분기 생명보험 총자산은 수입보험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회복으로 일반계정 운용자산 중 주식 및 수익증권과 특별계정 자산도 증가하면서 전분기에 비해 2.6% 증가함.

〈표 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¹⁾

(단위: 조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2/3
수입보험료 ²⁾	87.8	24.5	28.1	31.3	31.3	115.3	24.5	24.0
	(5.8)	(16.5)	(35.9)	(32.3)	(39.9)	(31.3)	(-0.1)	(-14.7)
총자산	458.2	505.4	529.2	547.8	569.8	569.8	569.5	584.1
	(10.0)	(10.3)	(4.7)	(3.5)	(4.0)	(24.4)	(-0.1)	(2.6)

주: 1) 괄호는 증가율이며,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임.

2)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연금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회계연도 개편으로 FY2013은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됨.

〈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 FY2013 2/3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사망보험 수입보험료가 증가세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도 소폭 감소하면서 15.1% 감소함.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2013년 8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즉시연금을 중심으로 한 수입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가 발생하면서 39.6% 감소하였음.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2012년 8월 즉시연금 세제혜택 축소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급증세를 나타내었으나 2013년 2월 15일 개정세법 발효 이후 예년 수준으로 축소됨.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암보험 등 질병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4.1%의 양호한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사망보험은 FY2013 이후 종신보험 보다는 암보험 등의 질병보험이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임.
-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또한 2013년 8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세제혜택 축소 전 가입수요 증가에 대한 기저효과로 15.4% 감소하였음.
 - 저금리로 인한 비과세 혜택 부각 등의 요인으로 생사혼합보험의 기저효과는 생존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변액유니버설보험 수입보험료는 증가한 반면 변액연금 수입보험료의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0.8% 감소함.
 - 2013년 6월 말 1,900포인트를 하회하던 주가지수가 2013년 9월 말 2,000포인트 수준을 회복하면서 변액유니버설보험 수입보험료는 증가세를 유지함.
 - 반면변액연금 수입보험료는 주식시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감소추세를 지속하였으며, 이는 변액연금의 수요기반이 취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함.

■ FY2013 2/3분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단체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둔화되고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소폭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2.4% 감소함.

- 일반단체보험과 퇴직연금 모두 뚜렷한 성장동력이 부재한 가운데 소폭의 증감을 기록함.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2/3
생존	보험료	179,425	58,357	89,359	91,316	97,580	336,612	53,144	53,996
	증가율	5.0	42.6	107.5	108.6	88.9	87.6	-8.9	-39.6
	구성비	20.4	23.8	31.8	29.1	31.2	29.2	21.7	22.5
사망	보험료	287,112	76,376	76,309	77,232	78,494	308,411	78,913	79,458
	증가율	0.0	6.8	6.5	7.6	8.8	7.4	3.3	4.1
	구성비	32.7	31.1	27.1	24.6	25.1	26.7	32.2	33.1
생사 혼합	보험료	122,378	46,073	54,615	52,905	68,084	221,677	47,606	46,222
	증가율	16.3	68.5	91.7	79.9	83.3	81.1	3.3	-15.4
	구성비	13.9	18.8	19.4	16.9	21.7	19.2	19.4	19.3
변액 보험	보험료	212,937	52,354	51,775	52,803	55,297	212,230	52,577	51,368
	증가율	9.7	-1.2	-5.4	1.3	4.1	-0.3	0.4	-0.8
	구성비	24.2	21.3	18.4	16.9	17.7	18.4	21.5	21.4
개인 계	보험료	801,852	233,160	272,058	274,256	299,455	1,078,929	232,239	231,044
	증가율	5.9	20.9	37.5	39.1	39.9	34.6	-0.4	-15.1
	구성비	91.3	95.1	96.7	87.5	95.6	93.6	94.8	96.3
단체	보험료	76,508	12,126	9,175	39,083	13,772	74,156	12,765	8,957
	증가율	5.3	-32.0	1.5	-1.8	40.1	-3.1	5.3	-2.4
	구성비	8.7	4.9	3.3	12.5	4.4	6.4	5.2	3.7
합계	보험료	878,360	245,286	281,233	313,339	313,227	1,153,086	245,003	240,001
	증가율	5.8	16.5	35.9	32.3	39.9	31.3	-0.1	-14.7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연금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3)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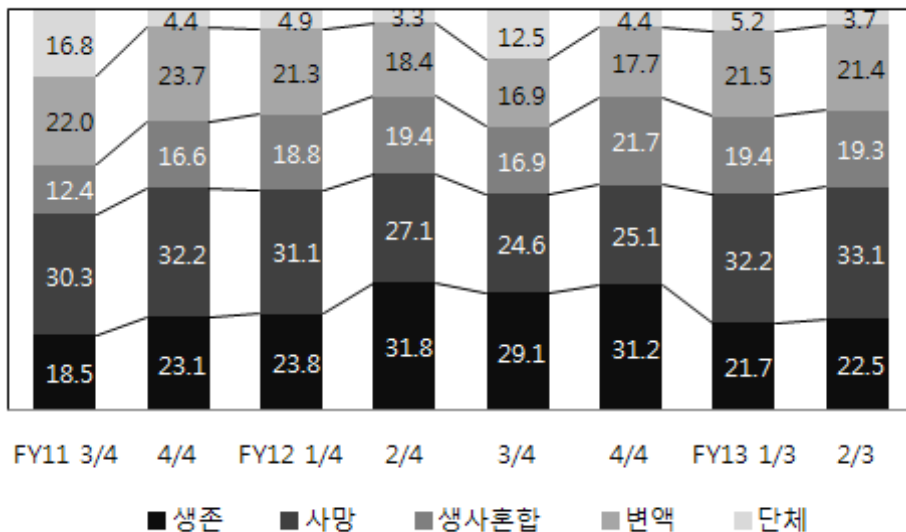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 FY2013 2/3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의 경우 수입보험료가 증가한 사망보험과 소폭 감소에 그친 변액보험, 단체보험의 비중이 상승하고 수입보험료가 감소한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의 비중은 하락함.

- 사망보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6.0%p 증가한 33.1%로 생명보험 종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변액보험과 단체보험 비중은 각각 3.0%p, 0.4%p 상승한 21.4%, 3.7%를 나타냄.
-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비중은 수입보험료의 큰 폭 감소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각각 9.3%p, 0.1%p 하락한 22.5%, 19.3%를 기록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단위: %)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13 2/3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의 경우 상위 3사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국내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점유율은 상승함.

- 상위 3사의 경우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면서 전년동기대비 2.8%p 축소된 48.1%의 점유율을 나타냄.
- 국내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점유율은 수입보험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각 1.4%p 상승한 34.6%, 17.3%로 나타남.

■ FY2013 2/3분기 허핀달지수는 상위 3사의 점유율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0.0104포인트 하락한 0.1072로 나타남.

〈표 6〉 생명보험시장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¹⁾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2/3
상위 3개사	51.8	45.8	50.9	53.0	50.6	50.3	46.8	48.1
국내중소형사 ²⁾	28.4	37.2	33.2	33.2	34.6	33.9	36.7	34.6
외국사 ³⁾	19.8	17.0	15.9	13.8	14.8	15.8	16.4	17.3
허핀달지수 ⁴⁾	0.1179	0.1031	0.1176	0.1308	0.1272	0.1199	0.1062	0.1072

주: 1) 퇴직보험·연금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국내중소형사(12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13년 9월 말 알리안츠 등 9개사이며 ING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금 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13 2/3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보험금 지급률은 사망보험, 변액보험, 단체보험의 지급률이 하락하였으나 수입보험료가 크게 감소한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지급률이 상승하면서 전년동기대비 6.5%p 상승한 54.8%로 나타남.

- 수입보험료가 증가한 사망보험과 소폭감소에 그친 변액보험, 단체보험 지급률은 각각 3.0%p, 2.9%p, 27.6%p 하락한 53.9%, 54.6%, 100.1%로 나타남.
-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지급률은 수입보험료의 큰 폭 감소로 각각 18.9%p, 10.5%p 상승한 49.0%, 54.5%로 나타남.

■ 수입보험료 대비 실제 지출한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1.5%p 상승한 15.5%로 나타났으며, 해지율은 전년동기보다 0.4%p 하락한 5.0%를 기록함.

〈표 7〉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2/3
보험금 지급률 ¹⁾	58.9	56.9	48.3	45.8	47.0	49.1	55.4	54.8
개인계	52.6	53.9	45.6	45.7	44.3	47.1	52.9	53.0
- 생존	56.1	44.1	30.1	31.8	29.4	32.8	49.1	49.0
- 사망	53.3	55.0	56.9	54.8	58.5	56.3	54.3	53.9
- 생사혼합	43.3	65.3	44.0	43.8	40.6	47.3	58.1	54.5
- 변액	53.9	53.1	57.5	58.5	54.8	56.0	49.8	54.6
단체	124.6	113.9	127.7	46.2	105.7	78.4	100.7	100.1
사업비율	16.6	15.4	14.0	13.1	13.7	14.0	15.0	15.5
해지율 ²⁾	10.2	2.8	5.4	7.8	10.0	10.0	2.5	5.0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2)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해지율은 누계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13 2/3분기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이익이 큰 폭 감소하고 투자영업이익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한 9,062억 원을 기록함.

〈표 8〉 생명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십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2/3
총수익	보험영업	60,872	18,563	22,505	22,621	24,951	88,640	18,476	18,446
	투자영업	20,024	5,656	5,600	6,129	5,266	22,651	6,540	5,753
	영업외	3,664	984	1,000	1,018	1,037	4,039	1,011	1,012
	소 계	84,560	25,204	29,105	29,768	31,254	115,330	26,027	25,211
총비용	보험영업	46,700	14,023	13,958	14,107	15,057	57,144	14,028	13,883
	투자영업	3,308	1,049	699	1,420	217	3,385	1,494	728
	영업외	738	165	168	181	161	674	205	190
	소 계	50,746	15,236	14,825	15,708	15,435	61,203	15,726	14,801
수지차	보험영업	14,172 (14.8)	4,540 (27.0)	8,547 (175.3)	8,514 (166.0)	9,895 (130.6)	31,496 (122.2)	4,448 (-2.0)	4,563 (-46.6)
	투자영업	16,717 (-0.1)	4,608 (9.6)	4,901 (28.2)	4,709 (13.6)	5,049 (11.1)	19,266 (15.2)	5,046 (9.5)	5,024 (2.5)
	영업외	2,926	820	832	837	876	3,365	807	822
	소 계	33,814	9,968	14,280	14,060	15,819	54,127	10,301	10,410
책임준비금전입		29,452	8,909	13,103	13,146	15,057	50,216	9,142	9,207
법인세		992	215	252	208	36	711	309	296
당기순이익		3,371 (-16.1)	844 (-22.6)	925 (78.3)	706 (-3.6)	726 (-29.5)	3,200 (-5.1)	850 (0.7)	906 (-2.0)

주: 1)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2)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 보험영업이익은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급감으로 전년동기대비 46.6% 감소하였고 투자영업이익은 2.5% 증가에 그침.

〈부채 및 자본〉

■ FY2013 2/3분기 총부채는 책임준비금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하였으며, 총자본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감소로 0.2% 증가에 그침.

- 총부채 항목 중 책임준비금은 전년동기대비 12.8% 증가하며 증가폭이 둔화되었고, 총자본 항목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시중금리 상승으로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이익이 축소되면서 16.5% 감소함.

〈표 9〉 생명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1/4	2/4	3/4	4/4	1/3	2/3
책임준비금	금액	309	352	366	379	394	403	412
	증가율	10.7	23.1	24.6	26.1	27.6	14.3	12.8
계약자지분조정	금액	7	7	9	9	9	7	7
	증가율	14.3	19.2	54.1	34.1	29.6	0.4	-15.8
기타부채	금액	13	14	14	14	15	14	13
	증가율	15.6	23.9	13.5	12.7	18.5	-0.4	-6.3
특별계정부채	금액	86	86	90	94	97	96	100
	증가율	5.0	4.0	13.5	14.4	12.0	11.7	11.5
부채총계	금액	415	460	478	496	515	520	533
	증가율	9.6	19.0	22.5	23.4	24.1	13.2	11.5
자본금	금액	9	9	9	9	9	9	10
	증가율	1.7	5.7	6.0	7.6	7.6	1.9	3.5
자본잉여금	금액	3	5	5	6	6	6	6
	증가율	-10.4	76.6	77.6	89.9	89.5	9.8	9.2
이익잉여금	금액	19	19	20	21	21	22	22
	증가율	18.0	15.3	16.9	15.3	12.7	13.1	12.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금액	13	13	17	17	19	14	14
	증가율	27.8	23.8	67.6	46.5	48.7	5.2	-16.5
자본총계	금액	43	46	51	52	55	49	51
	증가율	13.3	18.3	31.0	27.2	27.1	7.7	0.2
부채및자본총계	금액	458	505	529	548	570	570	584
	증가율	10.0	18.9	23.2	23.8	24.4	12.7	10.4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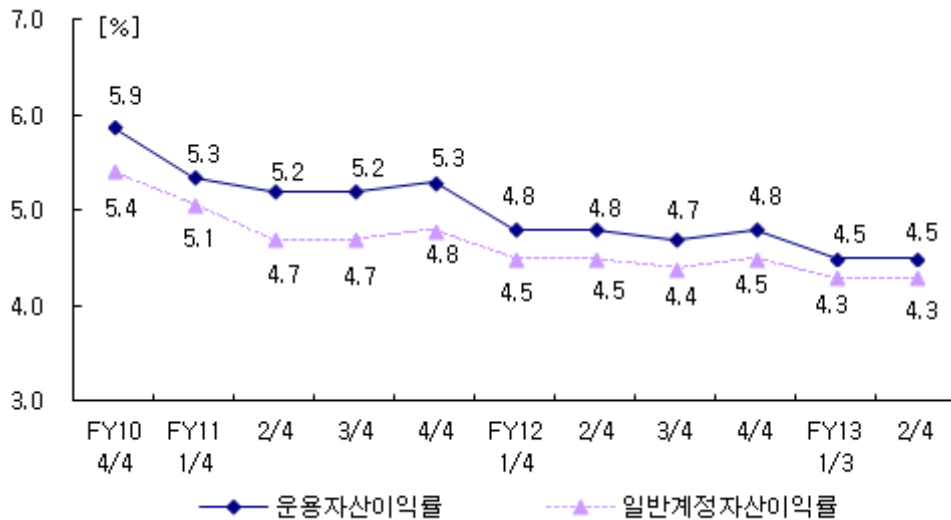
〈자산 운용〉

■ FY2013 2/3분기 운용자산 이익률과 일반계정자산 이익률은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대비 각각 0.3%p, 0.2%p 하락한 4.5%와 4.3%로 나타남.

○ 운용자산 중 가장 비중이 큰 매도가능채권의 수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한 4.4%로 나타남.

■ 일반계정 투자자산 비중은 유가증권 70.8%, 대출채권 17.7%, 현금과 예금 2.8%, 부동산 3.0%임.

〈그림 2〉 운용자산 이익률^{1),2),3)} 추이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 환산)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일반계정자산에서 비운용자산을 제외한 것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10〉 생명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FY2012						FY2013			
	2/4		3/4		4/4		1/3		2/3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	4.5	100.0	4.4	100.0	4.5	100.0	4.3	100.0	4.3
운용자산 계	93.7	4.8	93.9	4.7	94.1	4.8	93.9	4.5	94.3	4.5
현금과예금	3.9	3.5	4.4	3.1	3.6	3.5	3.1	3.3	2.8	2.8
유가증권	69.1	4.4	69.0	4.3	70.5	4.3	70.2	4.2	70.8	4.1
○당기손익인식증권 ³⁾	2.5	5.2	2.4	5.0	3.2	4.5	2.8	-0.3	3.3	1.5
- 주식	0.1	-2.2	0.1	-1.1	0.1	1.4	0.1	-21.6	0.1	-3.6
- 채권 등	0.8	8.3	0.6	7.9	0.7	7.4	0.6	0.0	0.7	2.1
- 수익증권	1.6	4.1	1.7	4.0	2.4	3.5	2.0	0.6	2.5	1.6
○매도가능증권	49.3	4.2	49.4	4.1	51.5	4.1	50.5	4.2	49.7	4.1
- 주식	4.8	-0.1	5.1	-0.4	5.0	0.3	4.6	0.9	4.5	1.6
- 채권 등	41.9	4.7	41.5	4.7	43.5	4.6	43.0	4.5	42.4	4.4
- 수익증권	2.6	3.4	2.8	3.4	3.0	3.5	2.9	4.3	2.9	4.0
○만기보유증권	15.9	5.2	15.8	5.1	14.2	5.3	15.3	4.7	16.2	4.6
- 채권 등	15.9	5.2	15.8	5.1	14.2	5.3	15.3	4.7	16.2	4.6
- 수익증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1.4	2.5	1.4	2.0	1.5	2.4	1.7	7.0	1.6	4.9
대출채권	17.6	7.0	17.4	6.9	17.0	6.9	17.6	6.4	17.7	6.4
부동산	3.2	3.8	3.1	3.8	3.0	3.8	3.1	3.6	3.0	3.7
비운용자산	6.3	0.0	6.1	0.2	5.9	0.1	6.1	0.2	5.7	0.3
총자산	100.0	4.3	100.0	4.2	100.0	4.3	100.0	2.3	100.0	3.7
일반계정	83.1	4.5	83.4	4.4	83.2	4.5	83.5	4.3	83.0	4.3
특별계정	16.9	3.0	16.6	3.2	16.8	3.4	16.5	-7.3	17.0	1.1
총자산 규모	5,291,873		5,478,271		5,698,366		5,695,133		5,840,714	

주: 1) 이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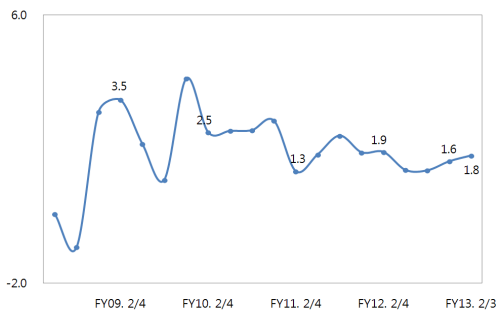
1) 자본이익률(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³⁾

■ FY2013 2/3분기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이 소폭 감소하고 총자본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한 1.8%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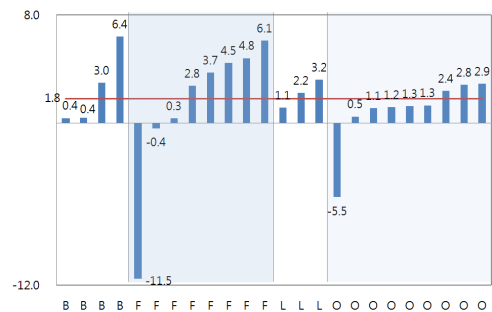
-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하였고, 총자본(자본총계)은 전년동기대비 0.2%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됨.
- 2개의 외국사와 1개의 중소형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음(-)의 자본이익률을 나타냄.

〈그림 3〉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단위: %)

〈그림 4〉 회사별 자본이익률^{1),2)}

(단위: %)



주: 1)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3 2/3분기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자본이익률은 하락한 반면 외국사와 방카사의 자본이익률은 상승함.

- 외국사의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 증가로 0.9%p 상승한 3.0%를 나타냈으며, 방카사

3)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R_t / E_t^o :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을 매출이익률(R_t / S_t :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자산회전율(S_t / A_t^o : 기중자산대비 매출액), 레버리지비율(A_t^o / E_t^o : 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로 분해하여 분석하며, 분석대상은 이번 분기부터 농협생명보험의 진입으로 24개 회사임.

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면서 자본이익률도 3.3%p 상승한 1.5%로 크게 개선됨.

- 대형사의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과 총자본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한 1.8%를 나타냈으며, 중소형사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반면 총자본은 증가하면서 자본이익률은 1.2%p 하락한 1.0%를 기록함.
- 외국사의 자본이익률이 생명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을 상회하였으며, 대형사의 경우 전체 자본이익률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냄.

〈표 11〉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추이¹⁾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연간 ²⁾	1/4	2/4	3/4	4/4	연간 ²⁾	1/3	2/3
대형사	7.5	1.7	1.9	1.2	1.5	6.4	1.5	1.8
중소형사	13.5	2.9	2.2	1.4	1.1	7.1	1.4	1.0
외국사	11.4	2.0	2.1	2.1	0.9	7.3	2.4	3.0
방카사 ³⁾	0.4	-0.2	-1.8	1.2	1.8	1.4	0.6	1.5
전체	8.4	1.9	1.9	1.4	1.4	6.6	1.6	1.8

주: 1)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2)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년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3) 방카사는 은행지주 계열사 중 KB생명, 우리아비바생명, 하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등 4개사를 대상으로 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3 2/3분기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을 분해해보면 레버리지비율과 매출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상승한 반면 자산회전율은 하락함.

- 생명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7p 상승한 9.6배를 나타냈고 매출이익률은 0.4%p 상승한 3.7%를 나타냈으며, 자산회전율은 1.4%p 하락한 5.1%를 기록함.
-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방카사 모두 레버리지비율이 상승하고 자산회전율이 하락하였으며, 대형사, 외국사, 방카사의 매출이익률은 상승한 반면 중소형사의 매출이익률은 하락함.

〈표 12〉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분해

(단위: 배, %)

구분	레버리지비율 ¹⁾			자산회전율 ²⁾			매출이익률 ³⁾		
	FY2012 2/4	FY2013 1/3	FY2013 2/3	FY2012 2/4	FY2013 1/3	FY2013 2/3	FY2012 2/4	FY2013 1/3	FY2013 2/3
대형사	8.3	8.5	8.9	5.6	4.3	4.2	4.1	4.2	4.7
중소형사	12.4	12.5	13.3	8.2	7.1	6.5	2.2	1.6	1.1
외국사	6.9	7.1	7.4	6.7	5.7	5.6	4.5	6.0	7.3
방카사	12.8	13.3	13.3	9.8	6.1	6.2	-1.4	0.8	1.8
전체	8.9	9.1	9.6	6.5	5.3	5.1	3.3	3.4	3.7

주: 1) 레버리지비율(배) = 기중자산 / 기중자본

2)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3)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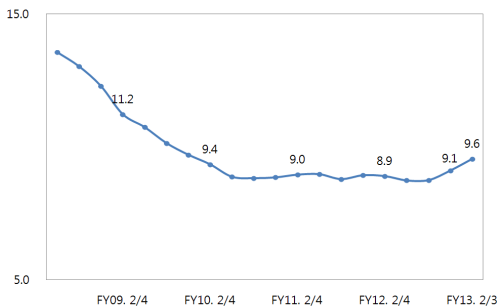
① 레버리지비율(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

■ FY2013 2/3분기 생명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은 기중자본 증가율이 기중자산 증가율을 하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7p 상승한 9.6배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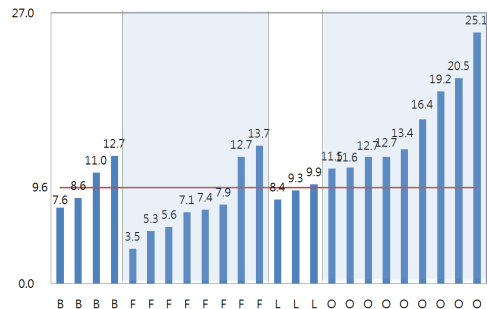
○ 생명보험산업의 전년동기대비 자본증가율은 0.2%로 크게 둔화된 반면 자산증가율은 10.4%를 기록함.

〈그림 5〉 생명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

(단위: 배)

〈그림 6〉 회사별 레버리지비율^{1),2)}

(단위: 배)



주: 1)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2)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레버리지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13〉 FY2013 2/3분기 생명보험산업 자산 및 자본증가율

(단위: %)

구분	자산증가율		자본증가율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대형사	9.4	2.2	-0.8	2.9
중소형사	14.4	2.8	4.4	1.6
외국사	7.0	3.0	-2.6	2.8
방카사	14.1	4.4	15.2	21.7
전체	10.4	2.6	0.2	3.0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회사그룹별로는 대형사, 중소기업사, 외국사, 방카사의 레버리지비율이 모두 상승함.

〈표 14〉 생명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배)

구분	FY2011	FY2012					FY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2/3
대형사	11.0	8.4	8.3	8.1	8.1	12.3	8.5	8.9
중소형사	15.2	12.6	12.4	12.2	12.1	8.3	12.5	13.3
외국사	10.2	7.2	6.9	6.8	6.9	14.5	7.1	7.4
방카사	15.7	13.2	12.8	12.4	12.4	8.0	13.3	13.3
전체	10.8	8.9	8.9	8.7	8.8	11.4	9.1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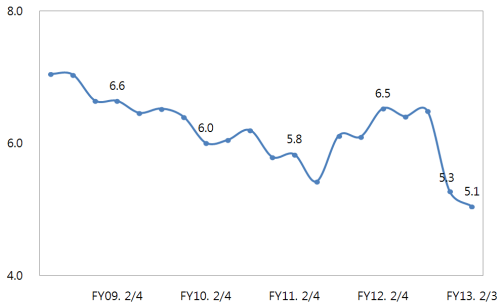
주: 레버리지비율 = 기중자산 / 기중자본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② 자산회전율(기중자산대비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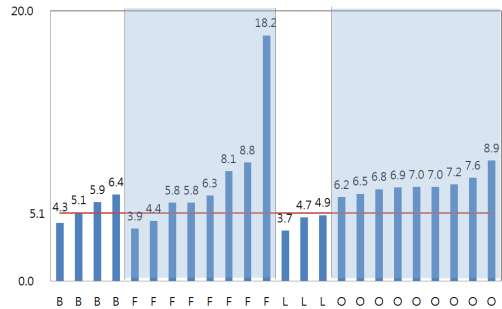
■ FY2013 2/3분기 자산회전율은 보험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투자영업이익이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1.4%p 하락한 5.1%를 기록함.

〈그림 7〉 생명보험산업 자산회전율

(단위: %)

〈그림 8〉 회사별 자산회전율^{1),2)}

(단위: %)



주: 1)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산회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보험영업회전율은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감소로 보험영업수익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3%p 하락한 3.9%를 나타냈고 투자영업이익률은 투자영업수익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한 1.2%를 기록함.

〈표 15〉 생명보험산업 자산회전율 분해

(단위: %)

구분	자산회전율 ¹⁾			보험영업 ²⁾			투자영업 ³⁾		
	FY2012 2/4	FY2013 1/3	FY2013 2/3	FY2012 2/4	FY2013 1/3	FY2013 2/3	FY2012 2/4	FY2013 1/3	FY2013 2/3
대형사	5.6	4.3	4.2	4.3	2.9	3.0	1.3	1.4	1.2
중소형사	8.2	7.1	6.5	6.9	5.7	5.3	1.3	1.4	1.2
외국사	6.7	5.7	5.6	5.4	4.4	4.4	1.3	1.3	1.2
방카사	9.8	6.1	6.2	8.6	4.9	5.2	1.2	1.2	1.0
전체	6.5	5.3	5.1	5.2	3.9	3.9	1.3	1.4	1.2

주: 1)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2) 보험영업회전율 = 보험영업수익 / 기중자산

3) 투자영업회전율 = 투자영업수익 / 기중자산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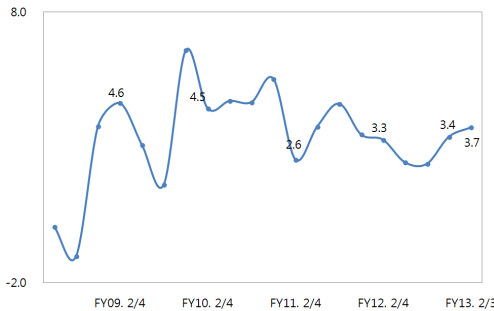
③ 매출이익률(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 FY2013 2/3분기 생명보험산업 매출이익률은 보험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당기순이익은 소폭 감소에 그치면서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한 3.7%를 기록함.

○ 보험영업이익률은 11.5%p 하락한 18.9%를 기록한 반면 투자영업이익률은 3.4%p 상승한 20.8%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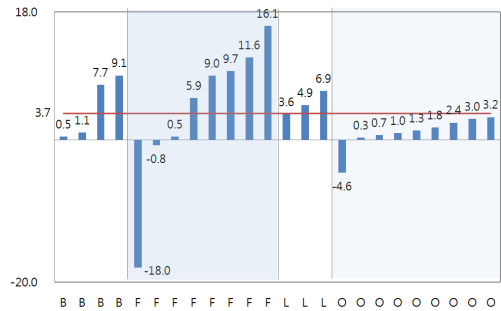
〈그림 9〉 생명보험산업 매출이익률

(단위: %)



〈그림 10〉 회사별 매출이익률^{1),2)}

(단위: %)



주: 1)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2)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매출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16〉 생명보험산업 매출이익률 분해

(단위: %)

구분	매출이익률 ¹⁾			보험영업 ²⁾			투자영업 ³⁾		
	FY2012 2/4	FY2013 1/3	FY2013 2/3	FY2012 2/4	FY2013 1/3	FY2013 2/3	FY2012 2/4	FY2013 1/3	FY2013 2/3
대형사	4.1	4.2	4.7	30.0	14.0	15.9	20.6	24.5	25.4
중소형사	2.2	1.6	1.1	32.7	23.5	23.6	13.6	15.1	15.9
외국사	4.5	6.0	7.3	20.1	13.2	14.0	16.8	19.0	18.2
방카사	-1.4	0.8	1.8	51.2	29.5	32.0	11.0	16.9	15.9
전체	3.3	3.4	3.7	30.4	17.8	18.9	17.4	20.2	20.8

주: 1)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이익 + 특별계정이익 - 법인세비용

2) 보험영업이익률 = 보험영업이익 / 영업수익 *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3) 투자영업이익률 = 투자영업이익 / 영업수익 *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13 2/3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방카슈랑스채널 비중이 높은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초회보험료가 크게 감소하면서 방카슈랑스 비중이 크게 하락한 반면, 설계사, 대리점, 임직원 등 타 판매채널 비중은 모두 상승함.

- FY2013 2/3분기 방카슈랑스 비중은 방카슈랑스를 통한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초회보험료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1.7%p 하락한 60.8%를 기록함.
- 설계사와 대리점의 경우에도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초회보험료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방카슈랑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감소폭을 나타내면서 각각 2.6%p, 1.9%p 상승한 22.2%, 7.2%의 비중을 기록함.
- 임직원 비중은 퇴직연금 초회보험료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7.0%p 증가한 9.6%를 나타냄.

〈표 17〉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FY2011	FY2012					FY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2/3
임직원	21.3	5.3	2.6	6.9	3.6	4.5	12.1	9.6
설계사	24.7	19.3	19.6	23.9	19.9	21.0	20.3	22.2
대리점	7.1	5.4	5.3	8.3	5.6	6.3	5.7	7.2
중개사	0.0	0.0	0.0	0.0	0.0	0.0	0.0	0.0
방카슈랑스	46.6	69.9	72.5	60.8	70.8	68.1	61.7	60.8
기타	0.3	0.1	0.0	0.1	0.0	0.0	0.2	0.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48,510	45,622	82,265	82,087	225,028	307,114	33,279	29,262

주: 합계의 하단 수치는 전체 초회보험료 규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13 2/3분기 생명보험산업 모집조직의 경우 임직원 수는 증가한 반면 설계사 수와 대리점 수는 감소함.

-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166명 증가한 30,744명으로 나타났으며, 상위3사와 외국사에서 증가함.
- 설계사 수는 전분기에 비해 2,722명 감소하였으며, 전속설계사와 교체설계사가 각각 1,448명, 1,274명 감소함.
 - 상위3사의 경우 전속설계사와 교차설계사 수가 모두 크게 감소함.
- 대리점 수는 개인대리점과 법인대리점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149개가 감소한 7,335개를 나타냄.

〈표 18〉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1/4	2/4	3/4	4/4	1/3	2/3
임직원	27,963	29,065	29,586	29,717	30,436	30,578	30,744
설계사	153,189	156,149	157,738	156,152	154,830	151,805	149,083
- 전속	141,499	144,736	147,004	145,933	145,113	142,391	140,943
- 교차	11,690	11,413	10,734	10,219	9,717	9,414	8,140
대리점	8,965	8,981	8,865	8,455	7,693	7,484	7,335
- 개인	5,712	5,624	5,514	5,157	4,451	4,141	4,023
- 법인	3,253	3,357	3,351	3,298	3,242	3,343	3,312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개요〉

■ FY2013 2/3분기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 증가세 둔화를 비롯한 전 종목의 저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2.3% 증가에 그친 17조 1,156억 원을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12년 세제개편으로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가 크게 줄어들어 5.4% 증가에 그친 10조 6,053억 원을 기록함.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모두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어 10.8% 감소한 1조 3,100억 원을 시현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 증가로 대당보험료가 감소하여 0.1% 증가에 그친 3조 2,190억 원을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경기둔화에 따른 대부분 종목의 실적 부진으로 0.1% 증가한 1조 9,813억 원의 저성장을 기록함.

■ FY2013 2/3분기 말 손해보험 총자산은 일반계정자산과 특별계정자산이 모두 늘어나면서 전분기대비 3.0% 증가한 165조 960억 원을 기록함.

- 일반계정자산은 계속보험료의 꾸준한 유입으로 보험료적립금이 늘어나 전분기대비 3.0% 증가하였으며, 특별계정자산은 퇴직연금 관련 자산 증가로 전분기대비 2.0% 증가함.

4) 회계연도 개편으로 FY2013은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됨.

〈표 19〉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¹⁾

(단위: 조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2/3
원수보험료	61,0	16,8	16,7	18,1	17,0	68,5	17,4	17,1
	(16,7)	(19,4)	(17,8)	(8,7)	(5,5)	(12,4)	(3,3)	(2,3)
장기손보	34,1	9,8	10,1	10,0	10,3	40,2	10,3	10,6
	(21,2)	(28,1)	(24,0)	(14,9)	(6,8)	(17,7)	(4,9)	(5,4)
연금부문 ²⁾	6,7	1,6	1,5	2,8	1,5	7,4	1,7	1,3
	(24,8)	(14,4)	(41,6)	(0,3)	(7,0)	(11,1)	(3,1)	(-10,8)
자동차	13,0	3,3	3,2	3,2	3,1	12,8	3,2	3,2
	(5,1)	(2,0)	(-2,9)	(-1,6)	(-3,5)	(-1,5)	(-0,9)	(0,1)
일반손해	7,1	2,1	2,0	2,0	2,0	8,1	2,1	2,0
	(12,7)	(16,9)	(14,4)	(11,0)	(13,5)	(13,9)	(2,6)	(0,1)
총자산 ³⁾	129,8	138,5	146,0	151,8	156,5	156,5	160,3	165,1
	(27,0)	(6,7)	(5,4)	(4,0)	(3,1)	(20,5)	(2,5)	(3,0)
일반계정	124,9	133,5	140,4	146,0	150,2	150,2	154,3	158,9
	(26,8)	(6,8)	(5,2)	(4,0)	(2,9)	(20,2)	(2,7)	(3,0)
특별계정	4,9	5,2	5,6	5,8	6,3	6,3	6,0	6,2
	(32,9)	(5,8)	(7,7)	(3,4)	(8,6)	(27,8)	(-3,7)	(2,0)

주: 1) () 안은 증감률이며,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고,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2) 연금부문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실적을 포함함.

3) FY2011 1/4분기부터 총자산 및 증가율은 IFRS의 변경된 계정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

1) 장기손해보험

■ FY2013 2/3분기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축성보험이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5.4% 증가에 그친 10조 6,053억 원을 기록함.

- 상해보험은 실손의료보험 제도 변경⁵⁾ 이전 신규가입이 급증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신규계약의 계속보험료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FY2013 2/3분기 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13.1% 증가한 2조 6,923억 원을 기록함.
- 질병보험 원수보험료는 2013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된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⁶⁾의 판매 호조와 계속보험료 증가세로 21.0% 늘어난 2조 482억 원을 나타냄.
-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2012년 세제개편에 따른 기저효과로 초회보험료가 크게 줄어들고 계속보험료 증가율도 둔화되어 4.7% 감소한 3조 682억 원을 기록함.

■ FY2013 2/3분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세제개편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에 따른 상해보험과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역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48.0% 감소한 5,568억 원을 기록함.

-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으로 FY2012 하반기에 상해보험 신규가입 수요가 집중되었고,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FY2013 2/3분기 상해보험 초회보험료는 16.8% 감소한 482억 원을 나타냄.
- 질병보험 초회보험료는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 신규가입 수요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55.7% 증가한 587억 원을 기록함.
-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세제개편에 따른 기저효과로 일시납 초회보험료가 급감하여 56.1% 줄어든 4,034억 원을 나타냄.

5) 2013년 1월 1일부터 단독상품 출시, 갱신주기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이 시행됨.

6) 실손의료보험만을 주계약으로 단독 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의미하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함.

〈표 20〉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2/3
원 수 보험료	상 해	보험료	83,554	23,029	23,813	24,678	25,782	97,301	26,497	26,923
		증가율	12.1	13.1	18.2	16.7	17.8	16.5	15.1	13.1
	운전자	보험료	22,781	6,146	6,129	6,151	6,128	24,555	6,156	6,233
		증가율	1.1	6.9	7.3	8.3	8.6	7.8	0.2	1.7
	재 물	보험료	28,993	9,315	9,392	9,456	9,266	37,429	9,451	9,417
		증가율	33.1	48.7	26.2	25.5	19.6	29.1	1.5	0.3
	질 병	보험료	62,490	16,426	16,927	17,665	18,468	69,485	19,390	20,482
		증가율	10.4	7.6	9.3	12.4	15.2	11.2	18.0	21.0
	저축성	보험료	97,465	31,437	32,186	29,689	31,247	124,559	29,351	30,682
		증가율	55.8	75.8	53.4	17.7	-6.4	27.8	-6.6	-4.7
	통합형	보험료	45,417	11,926	12,072	12,047	12,151	48,196	12,337	12,265
		증가율	6.2	7.7	7.9	5.7	3.4	6.1	3.4	1.6
	자산 연계형	보험료	732	103	99	96	73	371	56	51
		증가율	-30.6	-53.6	-50.7	-44.9	-46.1	-49.3	-45.7	-48.5
소 계	보험료	341,432	98,381	100,619	99,782	103,114	401,896	103,238	106,053	
	증가율	21.2	28.1	24.0	14.9	6.8	17.7	4.9	5.4	
초 회 보험료	상 해	보험료	1,976	562	579	682	912	2,735	447	482
		증가율	-3.4	22.1	36.6	39.3	51.3	38.4	-20.5	-16.8
	운전자	보험료	279	101	110	104	105	419	115	138
		증가율	-48.3	52.7	68.7	45.3	36.7	50.1	14.7	25.8
	재 물	보험료	1,565	399	306	285	259	1,249	353	250
		증가율	42.5	12.3	-31.7	-31.5	-25.0	-20.2	-11.6	-18.2
	질 병	보험료	1,150	302	377	498	650	1,828	480	587
		증가율	-3.9	-2.6	59.8	82.4	96.4	58.9	58.6	55.7
	저축성	보험료	28,476	10,294	9,189	5,595	5,461	30,539	3,919	4,034
		증가율	132.9	261.0	95.8	-22.5	-60.2	7.2	-61.9	-56.1
	통합형	보험료	603	153	142	130	230	653	67	75
		증가율	47.5	49.7	-9.8	-11.2	15.9	8.3	-56.3	-46.8
	자산 연계형	보험료	-2	0	0	0	0	0	0	0
		증가율	-70.5	-84.9	-69.7	-100.0	-	-99.2	-100.0	100.0
소 계	보험료	34,048	11,811	10,703	7,294	7,616	37,423	5,379	5,568	
	증가율	94.5	184.9	77.6	-15.3	-50.1	9.9	-54.5	-48.0	
계 속 보험료	상 해	보험료	81,578	22,467	23,234	23,995	24,870	94,566	26,050	26,441
		증가율	12.6	12.9	17.8	16.1	16.8	15.9	16.0	13.8
	운전자	보험료	22,502	6,046	6,019	6,047	6,023	24,136	6,040	6,094
		증가율	2.3	6.4	6.6	7.9	8.2	7.3	-0.1	1.2
	재 물	보험료	27,428	8,916	9,086	9,171	9,007	36,180	9,098	9,167
		증가율	32.6	50.9	29.9	28.8	21.7	31.9	2.0	0.9
	질 병	보험료	61,340	16,124	16,550	17,167	17,817	67,658	18,910	19,895
		증가율	10.7	7.8	8.5	11.2	13.5	10.3	17.3	20.2
	저축성	보험료	68,989	21,143	22,997	24,094	25,787	94,020	25,433	26,647
		증가율	37.1	40.7	41.1	33.8	31.2	36.3	20.3	15.9
	통합형	보험료	44,813	11,773	11,931	11,917	11,921	47,543	12,271	12,190
		증가율	5.8	7.3	8.2	5.9	3.2	6.1	4.2	2.2
	자산 연계형	보험료	734	103	99	96	73	371	56	51
		증가율	-30.9	-53.6	-50.7	-45.5	-46.1	-49.5	-45.7	-48.5
소 계	보험료	307,384	86,571	89,916	92,488	95,498	364,472	97,858	100,484	
	증가율	16.3	19.1	19.7	18.2	17.5	18.6	13.0	11.8	

주: 기간별 수치는 분기별 실적이며, 자산연계형은 FY2009 3/4분기부터 초회와 계속보험료로 구분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3 2/3분기 장기손해보험 해지율은 질병보험과 저축성보험 해지율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0.2%p 낮아진 6.2%를 기록함.

- 질병보험 해지율은 FY2012 질병보험 실적호조로 FY2013 연초보유계약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0.8%p 하락한 5.2%를 나타냄.
- 저축성보험 해지율은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이 보유계약액보다 더 크게 감소하여 0.5%p 하락한 6.1%를 나타냄.

〈표 21〉 장기손해보험 해지율^{1,2)}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1/4	2/4	3/4	4/4	1/3	2/3
상 해	3.1	6.0	8.8	11.9	2.9	6.4
운전자	3.2	6.1	9.0	12.2	3.2	6.2
재 물	5.1	9.2	12.7	15.5	5.0	8.6
질 병	3.1	6.0	9.1	12.7	2.7	5.2
저축성	3.5	6.6	9.6	12.8	3.1	6.1
통합형	2.6	5.2	7.7	10.2	2.4	4.8
계	3.4	6.4	9.4	12.5	3.1	6.2

주: 1)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보유계약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연금부문(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 FY2013 2/3분기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모두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10.8% 감소한 1조 3,100억 원을 시현함.

- 개인연금은 2011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⁷⁾되어 신규가입이 크게 늘어났으나 이러한 효과가 점점 줄어들면서 FY2013 2/3분기에는 2.7% 증가에 그친 1조 573억 원을 기록함.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대기업 퇴직연금 가입이 마무리된 이후 신규수요 확보가 어려워 42.4% 감소한 2,527억 원을 기록함.

7)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2011년 1월부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됨.

〈표 22〉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2/3
개인 연금	보험료	34,273	9,857	10,296	10,707	10,628	41,489	10,622	10,573
	증가율 ¹⁾	38.8	29.9	25.6	17.1	13.8	21.1	7.8	2.7
	구성비 ²⁾	51.2	60.2	70.1	38.0	70.4	55.8	62.9	80.7
퇴직 보험	보험료	835	1	6	2	0	9	3	0
	증가율	-84.2	-99.8	48.5	-97.7	-100.0	-99.0	229.6	-100.0
	구성비	1.2	0.0	0.0	0.0	0.0	0.0	0.0	0.0
퇴직 연금	보험료	31,791	6,516	4,389	17,465	4,469	32,840	6,251	2,527
	증가율	34.6	4.8	102.3	-7.4	-1.7	3.3	-4.1	-42.4
	구성비	47.5	39.8	29.9	62.0	29.6	44.2	37.0	19.3
합계	보험료	66,900	16,375	14,691	28,174	15,097	74,337	16,877	13,100
	증가율	24.8	14.4	41.6	0.3	7.0	11.1	3.1	-10.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구성비는 연금부문 합계 중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자동차보험

■ FY2013 2/3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대물 담보 증가에 힘입어 4분기 동안의 역성장에서 벗어났으나 여전히 0.1% 증가에 그친 3조 2,190억 원의 저성장을 지속함.

- 대인배상 I 원수보험료는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 할인 특약과 블랙박스 할인 특약 확대 등 할인형 상품 판매가 늘어나 1.8% 감소한 7,849억 원을 시현함.
- 종합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자차 담보가 정률제 시행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대물 담보와 자손 담보가 회복세를 나타내어 전체 0.6% 증가한 2조 2,820억 원을 기록함.

〈표 23〉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2/3
대인 I		33,426 -3.4	8,111 -4.6	7,991 -6.9	8,048 -3.2	7,765 -3.3	31,915 -4.5	7,992 -1.5	7,849 -1.8
종합 보험	대인 II	13,323 3.2	3,288 1.3	3,274 -3.8	3,310 -1.5	3,200 -3.4	13,072 -1.9	3,295 0.2	3,271 -0.1
	대물	38,342 13.8	10,280 14.5	10,259 7.6	10,450 6.0	10,335 3.7	41,325 7.8	10,923 6.3	10,956 6.8
	자차	34,237 3.2	7,973 -7.0	7,749 -11.5	7,620 -9.9	7,311 -13.5	30,652 -10.5	7,144 -10.4	7,168 -7.5
	자손	4,572 4.1	1,128 1.2	1,144 -2.8	1,170 0.5	1,120 0.3	4,561 -0.2	1,167 3.5	1,191 4.2
	무보험	1,074 -5.7	254 -6.4	250 -10.3	250 -5.7	227 -12.0	982 -8.6	231 -9.2	233 -6.8
	소계	91,548 7.3	22,923 3.3	22,676 -2.0	22,801 -1.3	22,193 -4.0	90,593 -1.0	22,760 -0.7	22,820 0.6
	외화표시	122 19.2	30 9.9	23 -24.2	33 -14.2	25 -2.9	111 -8.9	34 11.9	23 2.7
	이륜자동차 ²⁾	637 12.1	268 54.6	211 28.6	161 8.0	152 0.7	792 24.2	250 -6.7	212 0.7
기타 ³⁾		4,682 31.8	1,284 18.1	1,256 4.5	1,225 1.8	1,241 4.2	5,006 6.9	1,303 1.5	1,285 2.3
합계		130,415 5.1	32,615 2.0	32,157 -2.9	32,268 -1.6	31,376 -3.5	128,416 -1.5	32,338 -0.9	32,190 0.1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3 2/3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대당보험료 감소와 지급보험금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7.2%p 상승한 89.3%로 악화됨.

○ 대인배상 I 손해율은 할인형 상품 확대에 따른 대당보험료 감소로 3.4%p 상승한 89.9%를 기록함.

- 종합보험 손해율은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이 확대되고 지급보험금 규모도 증가하여 8.6%p 상승한 89.3%를 나타냄.

〈표 24〉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¹⁾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2/3
대인 I	81.3	82.6	86.5	95.4	83.0	86.9	83.9	89.9
종합보험	대인 II	88.7	101.8	82.9	91.0	87.7	90.9	94.2
	대물	89.8	85.4	87.6	97.2	86.9	89.3	90.0
	자차	73.7	59.6	72.3	83.7	78.7	73.3	76.6
	자손	80.1	73.0	77.9	92.1	98.6	85.4	77.2
	무보험	60.1	50.6	64.2	56.2	40.2	53.0	55.1
	소계	82.6	77.3	80.7	90.8	84.3	83.3	85.1
외화표시	75.0	71.2	104.8	88.6	74.5	84.7	57.5	69.3
이륜자동차 ²⁾	88.3	95.9	86.4	77.6	67.7	81.2	90.8	94.3
기타 ³⁾	80.4	65.3	81.0	92.2	80.1	79.8	70.8	85.0
합계	82.2	78.2	82.1	91.9	83.7	84.0	84.4	89.3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손해율이며, FY2011부터 IFRS가 적용되며,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4) 일반손해보험

■ FY2013 2/3분기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 보증, 특종보험이 마이너스 성장하고 해상보험도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전년동기대비 0.1% 증가한 1조 9,813억 원의 저성장을 나타냄.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⁸⁾으로 일반화재 담보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공장화재 담보 실적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전체

8) 2013년 3월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으로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기존 다중이용업주들은 2013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하도록 규정함.

3.1% 줄어든 734억 원을 기록함.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비중이 큰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이 역성장하였으나 항공보험이 기저효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1.8% 늘어난 2,257억 원을 시현함.

〈표 25〉 일반손해보험²⁾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2/3
화재	보험료	2,636	782	758	946	808	3,293	755	734
	증가율	-0.9	25.3	26.7	24.8	23.2	25.0	-3.4	-3.1
	구성비	3.7	3.8	3.8	4.6	4.0	4.1	3.6	3.7
해상	보험료	8,699	2,356	2,217	2,165	1,493	8,230	2,122	2,257
	증가율	12.7	-1.5	3.7	18.1	-36.1	-5.4	-9.9	1.8
	구성비	12.3	11.4	11.2	10.6	7.5	10.2	10.0	11.4
보증	보험료	15,172	4,081	3,810	3,913	4,013	15,816	3,801	3,461
	증가율	16.1	15.1	4.8	0.1	-1.7	4.2	-6.9	-9.1
	구성비	21.4	19.8	19.2	19.2	20.1	19.6	18.0	17.5
특종	보험료	41,230	12,377	11,867	12,063	12,249	48,557	13,064	11,673
	증가율	11.1	18.9	15.5	9.4	28.6	17.8	5.6	-1.6
	구성비	58.2	60.1	59.9	59.1	61.3	60.1	61.8	58.9
해외 원보험	보험료	3,164	997	1,147	1,314	1,418	4,876	1,390	1,688
	증가율	36.1	56.6	72.1	53.8	40.8	54.1	39.5	47.1
	구성비	4.5	4.8	5.8	6.4	7.1	6.0	6.6	8.5
합계	보험료	70,901	20,593	19,798	20,401	19,981	80,773	21,132	19,813
	증가율	12.7	16.9	14.4	11.0	13.5	13.9	2.6	0.1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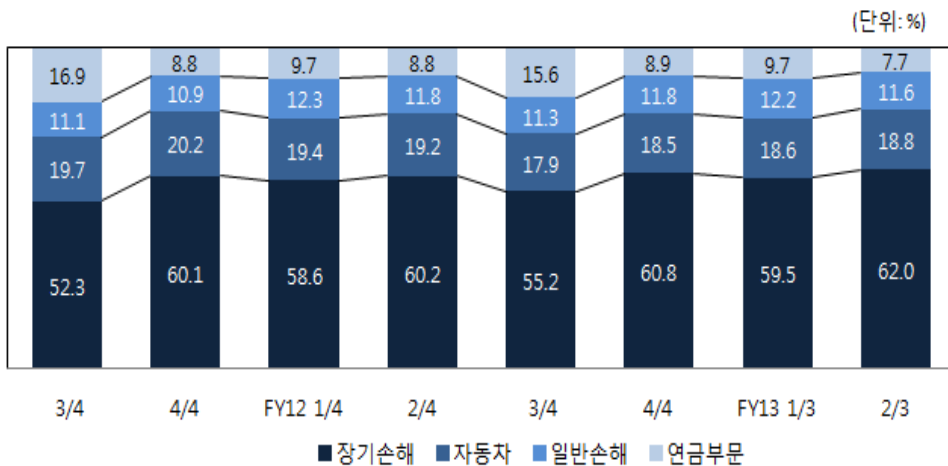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건설경기 부진과 보험료 조정 등으로 9.1%나 감소한 3,461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냄.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기술보험과 상해보험의 마이너스 성장과 종합보험 저성장으로 1.6% 감소한 1조 1,673억 원의 저성장을 기록함.
 - 기술보험 원수보험료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25.0% 감소하였으며, 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단체상해 증가세 둔화 등으로 0.2% 감소함.
 -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가계성 물건 감소와 기업성 물건 증가세 둔화로 0.4% 증가에 그침.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 FY2013 2/3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장기손해보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상승하였으나 자동차보험, 연금부문, 일반손해보험 비중은 하락함.
- 장기손해보험 비중은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둔화되었음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의 실적 부진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1.8%p 증가한 62.0%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 비중은 저성장이 계속되어 0.4%p 축소된 18.8%를 기록하였으며, 연금부문 비중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실적 부진으로 1.1%p 줄어든 7.7%를 나타냄.

〈그림 11〉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13 2/3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은 국내 중소형사 점유율이 확대된 반면, 상위 4사, 전업사, 그리고 외국사 점유율이 축소되었으며, 허핀달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0.0014 감소한 0.1459를 기록함.

- 상위 4사 점유율은 주요 판매상품인 저축성보험과 연금부문 실적 부진으로 0.2%p 축소된 69.9%를 기록함.
- 국내 중소형사는 다른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시현함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0.5%p 확대된 25.9%를 기록함.
- 전업사 점유율은 보증보험 실적 부진으로 0.3%p 낮아진 2.0%를 기록하였고, 외국사 점유율은 저성장이 계속되면서 0.1%p 줄어든 2.2%를 기록함.

〈표 26〉 손해보험산업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¹⁾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2/3
상위 4사	71.7	69.8	70.1	70.7	69.4	70.0	70.3	69.9
국내 중소형사 ²⁾	23.3	25.5	25.4	25.0	26.2	25.5	25.4	25.9
전업사	2.5	2.4	2.3	2.2	2.3	2.3	2.2	2.0
외국사	2.6	2.2	2.3	2.1	2.1	2.2	2.1	2.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온라인사	2.5	2.1	2.2	2.0	2.1	2.1	2.0	2.1
허핀달지수 ³⁾	0.1501	0.1434	0.1473	0.1465	0.1425	0.1448	0.1459	0.1459

주: 1)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이며,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I, II를 모두 포함함.

2) 국내 중소형사에는 국내 중소형사뿐만 아니라 국내 온라인사가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국내 및 외국계 재보사를 포함함. 외국사는 차터스(舊 AIG), ACE, 페더럴,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미쓰이스미토모뿐만 아니라 AXA손보, 에르고다움다이렉트와 같은 외국계 온라인사도 포함되었음. 온라인사는 주로 자동차보험에 주력하는 더케이손보, 현대하이카, 에르고다움다이렉트, AXA손보 실적을 따로 구분하여 파악한 것임.

3) 허핀달지수는 각 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13 2/3분기 전체 손해보험 손해율의 경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악화되었으나 장기손해보험을 비롯한 대부분 종목의 손해율이 개선되어 전년동기대비 0.6%p 하락한 81.8%를 나타냄.

○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대당보험료 감소와 지급보험금 증가세로 7.2%p 상승한 89.3%를 나타냄.

○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의 손해율은 대부분 발생손해액 증가율보다 경과보험료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개선됨.

■ FY2013 2/3분기 사업비율은 장기손해보험 사업비율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0.5%p 높아진 19.2%를 기록함.

〈표 27〉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¹⁾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2/3
손해율	장기손해보험 ²⁾	83.1	84.3	84.5	82.9	83.2	83.7	83.8	83.5
	자동차보험	82.2	78.2	82.1	91.9	83.7	84.0	84.4	89.3
	화재보험	59.0	59.1	68.2	52.7	56.1	59.2	56.8 ³⁾	60.9
	해상보험	57.2	64.3	49.7	56.1	77.8	61.5	48.6	58.0
	보증보험	55.0	61.0	68.6	48.1	72.3	62.3	155.0	31.7
	특종보험	68.0	61.1	79.8	72.1	69.3	70.6	59.8	71.1
	해외원보험	53.3	53.6	55.7	54.5	67.6	58.4	63.8	54.1
	해외수재보험	95.0	65.5	57.3	47.4	65.6	58.9	59.8	60.0
	전체	81.2	80.4	82.4	82.3	81.6	81.7	82.5	81.8
사업비율		18.4	18.2	18.7	20.0	21.1	19.5	19.5	19.2
합산비율		99.6	98.6	101.1	102.3	102.7	101.2	102.0	101.0

주: 1)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이며, FY2011부터 IFRS가 적용됨.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2)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을 감안한 재무손해율임.

3) 재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 환급을 일부 제외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장기손해보험 사업비율은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 호조 등으로 순사업비가 늘어나 1.0%p 높아진 18.3%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은 저성장 지속으로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2.8%p 하락한 19.1%를 나타냄.

■ FY2013 2/3분기 합산비율은 손해율 하락과 사업비율 상승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한 101.0%를 기록하였으며, 5분기 연속 100%를 상회하고 있음.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13 2/3분기 전체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A)은 투자영업이익 증가에 힘입어 6,797억 원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1.0% 감소함.

- 보험영업이익의 경우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둔화되고 지급보험금과 만기환급금은 증가하여 3,241억 원 적자를 기록함.
- 투자영업이익은 이자수익과 금융자산처분이익 증가 등으로 1조 2,372억 원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2.7% 감소함.

■ FY2013 2/3분기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손해보험회사⁹⁾의 당기순이익(B)은 자동차보험 실적 악화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3.1% 감소한 4,257억 원 흑자를 기록함.

- 18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영업이익은 5,558억 원 적자를 기록하였고, 투자영업이익은 1조 1,838억 원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9) 본고의 손해보험회사 수익성(자본이익률 등) 분석대상은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사를 기준으로 함.

〈표 28〉 손해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¹⁾

(단위: 십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2/3
총수익	보험영업	56,229	15,606	15,971	15,915	16,189	63,681	16,196	16,590
	투자영업	5,584	1,489	1,588	1,773	1,588	6,438	1,868	1,603
	기타	1,574	493	288	666	227	1,674	328	143
	소계	63,388	17,588	17,847	18,354	18,004	71,793	18,392	18,336
총비용	보험영업	56,795	15,621	16,354	16,457	16,807	65,237	16,749	16,914
	투자영업	1,529	377	316	581	375	1,649	665	366
	기타	1,705	523	315	721	233	1,793	359	203
	소계	60,030	16,520	16,985	17,760	17,415	68,679	17,774	17,483
수지차	보험영업	-566	-15	-382	-542	-618	-1,556	-553	-324
	투자영업	4,055	1,113	1,272	1,192	1,213	4,789	1,203	1,237
	기타	-131	-30	- 27	-56	-6	-119	-31	-61
	소계	3,358	1,068	862	594	589	3,114	618	852
법인세		906	251	176	156	142	726	180	173
당기순이익(A) ³⁾		2,452	817	686	438	446	2,388	439	680
		(20.7)	(-15.2)	(6.1)	(-7.1)	(21.9)	(-2.4)	(-46.3)	(-1.0)
당기순이익(B) ⁴⁾		1,994	644	554	313	350	1,861	516	426
		(79.0)	(-10.7)	(20.2)	(-14.9)	(-21.2)	(-6.7)	(-19.8)	(-23.1)

주: 1) 기간별 수치는 퇴직보험과 퇴직연금에 제외한 실적임.

2)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3)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포함한 전체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임.

4)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총부채 · 총자본〉

■ FY2013 2/3분기 손해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총계는 총부채와 총자본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13.1% 늘어난 165조 960억 원을 기록함.

○ 총부채는 비중이 큰 책임준비금이 증가한데다 특별계정부채도 늘어나 전체 15.0% 증가한 142조 5,286억 원을 기록함.

- 총자본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크게 감소하여 2.2% 증가에 그친 22조 5,674억 원을 나타냄.

〈표 29〉 손해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1/4	2/4	3/4	4/4	1/3	2/3	
책임준비금	금액	95,6	102,4	108,1	111,9	115,6	120,9	125,9	
	증가율 ¹⁾	32,5	26,2	26,3	24,0	21,0	18,1	16,5	
기타부채	금액	9,4	10,4	10,2	11,2	11,0	11,4	10,5	
	증가율	21,2	7,9	15,9	20,9	17,5	9,6	2,2	
특별계정부채	금액	5,0	5,4	5,6	6,3	6,3	6,1	6,2	
	증가율	34,9	28,0	44,0	28,7	24,8	14,1	10,9	
부채총계	금액	110,0	118,2	123,9	129,4	132,9	138,5	142,5	
	증가율	25,6	24,4	26,0	24,0	20,9	17,1	15,0	
자본금	금액	2,2	2,2	2,2	2,1	2,1	2,0	2,1	
	증가율	-31,6	-1,0	-2,1	-4,7	-5,1	-6,5	-5,7	
자본잉여금	금액	1,5	1,9	1,8	1,9	1,9	2,1	2,1	
	증가율	2,2	33,9	22,8	30,1	24,6	12,8	16,6	
이익잉여금	금액	12,6	12,8	13,6	14,1	14,4	14,7	15,3	
	증가율	67,0	11,5	14,8	14,8	14,0	14,1	12,9	
자본조정	금액	-0,2	-0,2	-0,6	-0,6	-0,6	-0,6	-0,6	
	증가율	-61,5	-17,2	104,7	87,1	148,7	140,9	9,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금액	3,8	3,7	5,1	4,9	5,7	3,6	3,7	
	증가율	25,7	21,3	71,8	45,6	51,4	-2,6	-27,2	
자본총계	금액	19,9	20,4	22,1	22,4	23,6	21,9	22,6	
	증가율	35,2	13,8	21,3	18,0	18,3	7,3	2,2	
부채및자본총계	금액	129,8	138,6	146,0	151,8	156,5	160,3	165,1	
	증가율	27,0	22,8	25,3	23,1	20,5	15,7	13,1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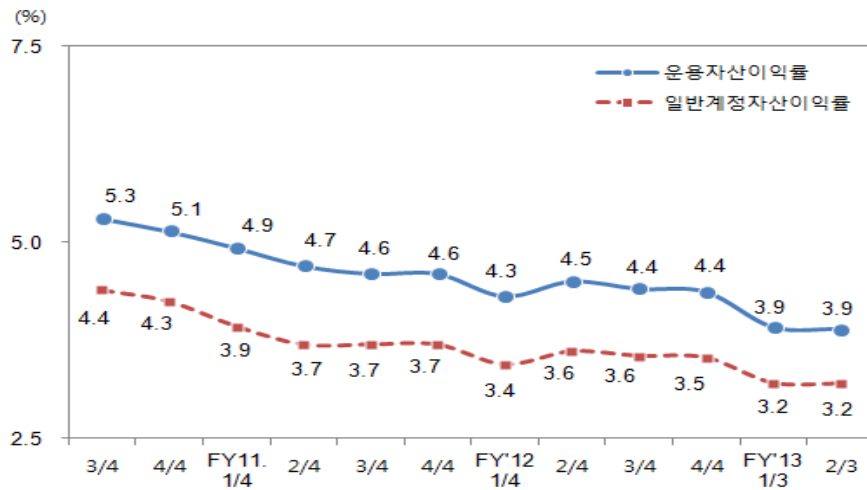
■ FY2013 2/3분기 손해보험산업 운용자산이익률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증권 이익률이 하락하여 전년동기대비 0.6%p 낮아진 3.9%를 기록함.

○ 유가증권 이익률은 주식과 채권 이익률이 하락으로 0.6%p 낮아진 3.9%를 기록하였으며, 현금과 예금 및 대출채권 이익률도 각각 1.9%p, 0.7%p 하락한 1.7%, 5.0%를 나타냄.

■ FY2013 2/3분기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은 유가증권 53.8%, 대출채권 19.9%, 현금과 예금 4.7%, 부동산 4.1% 순으로 나타남.¹⁰⁾

○ 유가증권과 대출채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4%p, 1.9%p 확대된 반면, 현금과 예금, 부동산 비중은 각각 1.2%p, 0.4%p 축소됨.

〈그림 12〉 운용자산과 일반계정자산 이익률 추이^{1),2)}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비운용자산까지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손익) × 연기준환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0) 일반계정자산은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으로 구분되며, 해당 수치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표 30〉 손해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FY2012						FY2013			
	2/4		3/4		4/4		1/3		2/3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	3.6	100.0	3.6	100.0	3.5	100.0	3.2	100.0	3.2
운용자산 계	80.9	4.5	81.5	4.4	81.9	4.4	81.9	3.9	82.4	3.9
현금과예금	5.9	3.6	5.3	2.8	4.7	3.2	5.0	3.7	4.7	1.7
유가증권	52.4	4.5	53.6	4.5	54.3	4.4	53.2	3.8	53.8	3.9
○ 당기손익인식증권 ³⁾	3.5	5.8	3.5	4.7	4.4	4.1	3.3	-0.1	3.8	1.6
- 주식	0.1	11.3	0.1	6.3	0.1	6.3	0.1	-14.0	0.2	2.1
- 채권 등	2.1	6.7	2.0	5.4	2.2	5.2	1.5	-1.5	1.6	0.7
- 수익증권	1.3	3.3	1.3	3.1	2.1	2.2	1.7	2.0	2.1	2.4
○ 매도가능증권	43.7	4.5	44.9	4.5	45.4	4.5	44.3	4.0	42.5	4.2
- 주식	4.2	0.3	4.4	0.5	4.0	-0.6	3.6	-1.7	3.4	0.4
- 채권 등	35.8	5.2	36.6	5.2	37.7	5.2	36.8	4.5	35.2	4.6
- 수익증권	3.7	2.6	3.8	3.0	3.7	3.4	3.9	5.0	3.9	3.7
○ 만기보유증권	3.7	5.4	3.9	5.3	2.9	6.1	4.2	4.9	6.2	4.1
- 채권 등	3.7	5.4	3.9	5.3	2.9	6.1	4.2	4.9	6.2	4.1
- 수익증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관재종속기업투자주식	1.5	0.9	1.4	1.4	1.6	0.3	1.4	2.4	1.4	1.7
대출채권	18.0	5.7	18.2	5.6	18.7	5.4	19.5	5.0	19.9	5.0
부동산	4.5	0.9	4.4	1.0	4.3	1.0	4.2	1.3	4.1	1.1
비운용자산	19.1	-0.1	18.5	0.0	18.1	0.0	18.1	0.0	17.6	3.9
총자산	100.0	3.4	100.0	3.4	100.0	3.4	100.0	3.1	100.0	3.0
일반계정	96.2	3.6	96.2	3.6	96.0	3.5	96.2	3.2	96.3	3.2
특별계정	3.8	0.0	3.8	0.0	4.0	0.0	3.8	0.0	3.7	0.0
총자산 규모	1,459,065		1,517,939		1,564,632		1,603,154		1,650,960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환산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FY2011 1/4 분기 이후 단기매매증권에서 당기손익인식증권으로 계정 명칭이 변경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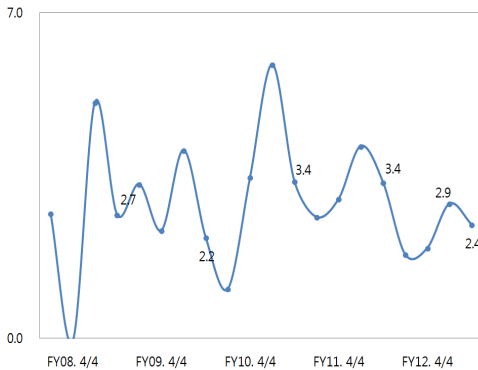
〈수익성〉

1) 자본이익률(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¹⁾

- FY2013 2/3분기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자동차보험 실적 악화에 따른 당기순이익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0%p 하락한 2.4%를 기록하였고 전분기대비로도 0.5%p 하락함.
- 대형사와 외국사들은 대부분 평균을 상회하는 자본이익률을 시현하였으나 중소형사들은 대부분 평균을 밑도는 수치를 기록함.
- 전업사들은 주요 판매상품인 자동차보험 실적 악화로 모두 음(-)의 자본이익률을 시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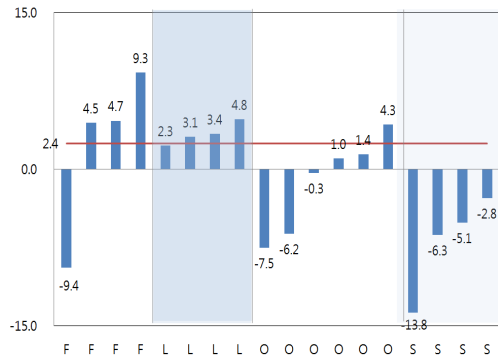
〈그림 13〉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단위: %)



〈그림 14〉 회사별 자본이익률^{1),2)}

(단위: %)



주: 1)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11)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R_t / E_t^o :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을 매출이익률(R_t / S_t :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자산회전율(S_t / A_t^o : 기중자산대비 매출액), 레버리지비율(A_t^o / E_t^o : 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로 분해하여 분석하며, 분석대상은 FY2011 4/4분기까지는 17개사, FY2012 1/4분기부터는 농협손해보험이 포함되어 18개사임.

■ FY2013 2/3분기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자본이익률의 경우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전업사 모두 전년동기대비 하락함.

- 대형사 자본이익률은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둔화와 연금보험 실적 부진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한 3.0%를 기록함.
- 중소형사, 외국사, 전업사 자본이익률은 자동차보험 실적 악화 등으로 각각 2.9%p, 2.5%p, 4.4%p 하락한 0.5%, 3.3%, -5.3%를 기록함.

〈표 31〉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¹⁾ 추이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연간 ²⁾	1/4 ³⁾	2/4	3/4	4/4	연간 ²⁾	1/3	2/3
대형사	17.6	4.3	3.4	2.3	2.2	12.6	2.9	3.0
중소형사	9.9	3.4	3.4	0.7	1.1	8.7	2.2	0.5
외국사	20.9	2.6	5.8	1.3	1.3	11.7	6.8	3.3
전업사	4.2	5.4	-0.9	-10.2	-0.4	-6.0	2.7	-5.3
전체	16.3	4.2	3.4	1.8	1.9	11.6	2.9	2.4

주: 1)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2)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년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3) FY2011 4/4분기까지는 17개사, FY2012 1/4분기부터는 농협손해보험이 포함되어 18개사업.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3 2/3분기 손해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7p 상승한 8.1배를 기록하였고 자산회전율과 매출이익률은 각각 1.3%p, 10.2%p 하락한 11.8%, -6.7%를 나타냄.¹²⁾

- 대형사 레버리지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7p 상승한 7.4배를 기록하였으며, 중소형사 레버리지비율은 0.2p 하락한 13.0배를 나타냄.
- 그룹별 자산회전율의 경우 모든 그룹에서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이는 원수보험료 저 성장과 지급보험금 증가로 보험영업적자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 중소형사와 전업사 매출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상승한 반면, 대형사와 외국사 매출 이익률은 하락함.

12) 자본이익률은 레버리지비율, 자산회전율, 매출이익률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표 32〉 손해보험산업 그룹별 자본이익률 분해

(단위: 배, %)

구분	레버리지비율 ¹⁾			자산회전율 ²⁾			매출이익률 ³⁾		
	FY2012 2/4	FY2013 1/3	FY2013 2/3	FY2012 2/4	FY2013 1/3	FY2013 2/3	FY2012 2/4	FY2013 1/3	FY2013 2/3
대형사	6.7	7.0	7.4	12.7	11.9	11.5	4.0	3.5	2.6
중소형사	13.2	12.7	13.0	13.8	12.1	12.0	1.9	1.4	3.5
외국사	2.4	4.6	2.4	23.7	22.5	22.3	10.3	12.1	0.3
전업사	4.5	4.7	4.6	17.7	17.4	17.5	-1.1	3.3	6.0
전체	7.4	7.7	8.1	13.1	12.1	11.8	3.5	3.1	-6.7

주: 1) 레버리지비율(배) = 기중자산 / 기중자본

2)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3)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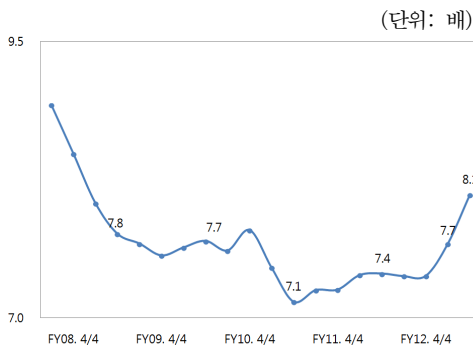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① 레버리지비율(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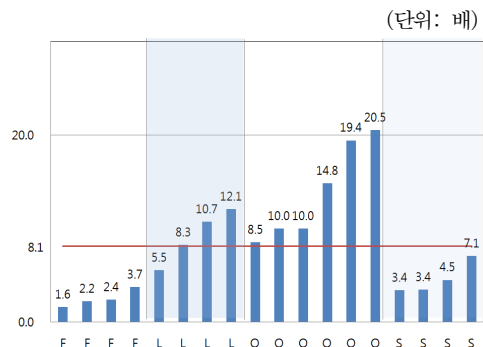
■ FY2013 2/3분기 손해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은 자산증가율이 자본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7p 상승한 8.1배를 기록함.

○ 대부분 중소형사와 대형사들의 레버리지 비율이 산업평균수준을 상회한 반면, 외국사와 전업사들은 모두 평균수준을 하회함.

〈그림 15〉 손해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



〈그림 16〉 회사별 레버리지비율^{1),2)}



주: 1)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2)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레버리지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33〉 FY2013 4/4분기 손해보험산업 자산 및 자본증가율¹⁾

(단위: %)

구분	자산증가율		자본증가율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대형사	13.4	3.1	0.1	3.2
중소형사	18.2	5.0	15.7	1.6
외국사	14.7	1.9	9.1	3.3
전업사	-1.8	2.0	-2.9	3.4
전체	14.3	3.5	2.3	3.0

주: 1) 손해보험회사의 자산 및 자본증가율은 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한 국내외 18개사를 대상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3 2/3분기 손해보험 그룹별 레버리지비율은 대형사와 전업사가 전년동기대비 상승한 반면, 중소형사는 하락함.

- 대형사와 전업사 레버리지비율은 자산증가율이 자본증가율을 상회하여 각각 0.7p, 0.1p 상승한 7.4배, 4.6배를 기록함.
- 중소형사 레버리지비율은 기중자본 증가가 기중자산 증가보다 더 크게 나타나 0.2p 하락한 13.0배를 나타냄.

〈표 34〉 손해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¹⁾ 추이

(단위: 배)

구분	FY2011	FY2012					FY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2/3
대형사	7.1	6.7	6.7	6.7	6.7	6.9	7.0	7.4
중소형사	14.7	13.9	13.2	12.9	12.8	13.7	12.7	13.0
외국사	3.0	2.4	2.4	2.4	2.5	2.5	2.5	2.4
전업사	4.7	4.6	4.5	4.7	4.8	4.8	4.7	4.6
전체	7.9	7.4	7.4	7.4	7.4	7.6	7.7	8.1

주: 1) 레버리지비율 = 기중자산 / 기중자본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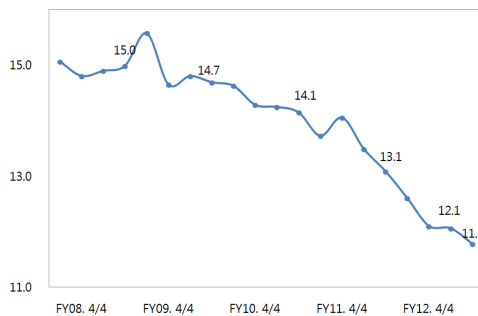
② 자산회전율(기중자산대비 매출액)

■ FY2013 2/3분기 손해보험산업 자산회전율은 영업수익 감소세로 전년동기대비 1.3%p 낮아진 11.8%를 기록하였으며, 자산회전률 감소세가 6분기 연속 계속되고 있음.

- 일부 외국사와 전업사 자산회전율의 경우 자산 규모가 작아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대부분 손해보험회사들의 자산회전율이 산업평균수준을 소폭 상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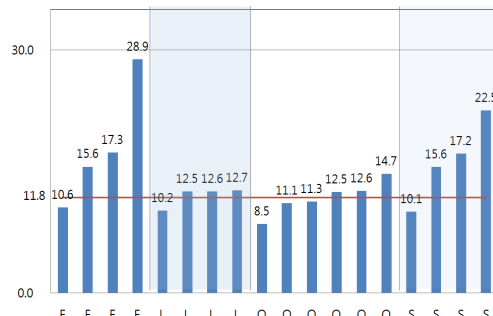
〈그림 17〉 손해보험산업 자산회전율

(단위: %)



〈그림 18〉 회사별 자산회전율^{1),2)}

(단위: %)



주: 1)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산회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3 2/3분기 손해보험산업 보험영업회전율은 전년동기대비 1.2%p 하락한 10.7%를 기록한 반면, 투자영업회전율은 전년동기대비 0.1%p 상승한 1.1%를 나타냄.

〈표 35〉 손해보험산업 자산회전율 분해

(단위: %)

구분	자산회전율 ¹⁾			보험영업회전율 ²⁾			투자영업회전율 ³⁾		
	FY2012 2/4	FY2013 1/3	FY2013 2/3	FY2012 2/4	FY2013 1/3	FY2013 2/3	FY2012 2/4	FY2013 1/3	FY2013 2/3
대형사	12.7	11.9	11.5	11.5	10.5	10.4	1.2	1.3	1.1
중소형사	13.8	12.1	12.0	12.5	11.0	11.0	1.3	1.1	1.0
외국사	23.7	22.5	22.3	23.1	21.9	21.7	0.6	0.6	0.5
전업사	17.7	17.4	17.5	16.9	16.7	16.8	0.8	0.8	0.7
전체	13.1	12.1	11.8	11.9	10.8	10.7	1.2	1.3	1.1

주: 1)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2)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3) 보험영업회전율 = 보험영업수익 / 기중자산

3) 투자영업회전율 = 투자영업수익 / 기중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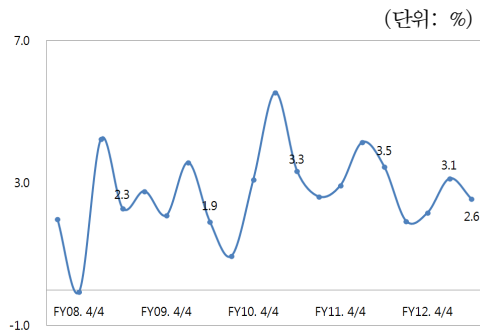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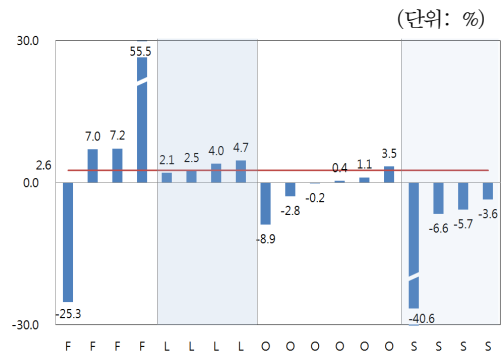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③ 매출이익률(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 FY2013 2/3분기 손해보험산업 매출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9%p 하락한 2.6%를 기록하였으며, 전분기대비로도 0.5%p 하락함.

- 자동차보험 실적 악화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대부분 중소형사와 전업사들이 음(-)의 매출이익률을 기록함.

〈그림 19〉 손해보험산업 매출이익률

〈그림 20〉 회사별 매출이익률^{1),2)}

주: 1)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2)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매출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3 2/3분기 손해보험산업 보험영업이익률과 투자영업이익률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0.5%p, 0.2%p 하락한 -3.3%, 7.1%를 기록함.

〈표 36〉 손해보험산업 매출이익률 분해

(단위: %)

구분	매출이익률 ¹⁾			보험영업 ²⁾			투자영업 ³⁾		
	FY2012 2/4	FY2013 1/3	FY2013 2/3	FY2012 2/4	FY2013 1/3	FY2013 2/3	FY2012 2/4	FY2013 1/3	FY2013 2/3
대형사	4.0	3.5	3.5	-2.0	-2.1	-2.4	7.3	6.9	7.4
중소형사	1.9	1.4	0.3	-5.7	-4.2	-5.9	7.8	6.7	6.9
외국사	10.3	12.1	6.0	10.0	11.4	4.5	2.4	2.5	1.7
전업사	-1.1	3.3	-6.7	-4.6	-0.1	-10.2	4.3	3.9	3.9
전체	3.5	3.1	2.6	-2.8	-2.4	-3.3	7.3	6.7	7.1

주: 1)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이익 + 특별계정이익 - 법인세비용

2) 보험영업이익률 = 보험영업이익 / 영업수익 *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3) 투자영업이익률 = 투자영업이익 / 영업수익 *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13 2/3분기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의 경우 임직원 채널 비중이 축소되고 대리점과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이 확대됨.

- 임직원 채널 비중은 주요 판매 상품인 퇴직연금 실적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1.2%p 감소한 12.3%를 기록함.
- 대리점 채널 비중과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임직원 채널 비중이 축소됨에 따라 각각 0.3%p, 0.8%p 증가한 43.2%, 12.4%를 기록함.

〈표 37〉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2/3
임직원	97,115	24,396	22,518	34,274	21,754	102,941	23,802	21,083
	15.9	14.5	13.5	19.0	12.8	15.0	13.7	12.3
설계사	189,640	49,886	52,119	52,267	52,017	206,290	53,442	53,409
	31.1	29.7	31.2	28.9	30.7	30.1	30.8	31.2
대리점	259,195	71,963	71,767	75,279	65,241	284,249	74,948	73,923
	42.5	42.8	42.9	41.7	38.5	41.5	43.2	43.2
중개사	4,424	1,113	1,206	1,421	1,063	4,803	1,248	1,334
	0.7	0.7	0.7	0.8	0.6	0.7	0.7	0.8
방카슈랑스	58,327	20,458	19,476	17,189	29,169	86,293	20,008	21,224
	9.6	12.2	11.6	9.5	17.2	12.6	11.5	12.4
공동인수	946	148	178	196	324	846	136	183
	0.2	0.1	0.1	0.1	0.2	0.1	0.1	0.1
전체	609,648	167,964	167,265	180,625	169,568	685,422	173,584	171,15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원수보험료 실적은 분기 기준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3) 원수보험료 실적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규모〉

■ FY2013 2/3분기 말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증가하였으나 설계사 수와 대리점 수는 감소함.

- 임직원 수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 채용이 모두 늘어나면서 전분기대비 626명 증가한 3만 3,570명을 기록함.
- 설계사 수는 상위 4개사¹³⁾를 중심으로 전속 및 교차설계사 수가 모두 감소하여 2,053명 줄어든 16만 6,915명을 나타냄.
- 대리점 수의 경우 법인대리점 수가 4분기 연속 증가하였으나 개인대리점 수 감소세가 계속되어 전체 232개 줄어든 3만 7,268개를 기록함.

13)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사를 의미함.

〈표 38〉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1/4	2/4	3/4	4/4	1/3	2/3
임직원	31,003	31,816	32,464	32,438	32,838	32,944	33,570
설계사	161,237	167,101	168,545	170,165	168,023	168,968	166,915
- 전속	88,179	92,179	93,400	95,017	93,167	93,712	92,952
- 교차	73,058	74,922	75,145	75,148	74,856	75,256	73,963
대리점	39,818	39,425	38,857	38,957	37,643	37,500	37,268
- 개인	27,844	27,445	26,929	26,399	24,419	24,063	23,666
- 법인	11,974	11,980	11,928	12,558	13,224	13,437	13,602

주: 교차모집설계사는 FY2008 2/4분기부터 허용되었으나, 설계사의 세분은 FY2008 4/4분기 업무보고서부터 수록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 록 I. 통계표

〈부록 표 I-1〉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4/4	1/4	2/4	3/4	4/4	1/4	2/4	3/4
국내총생산 성장률		3.4	2.8	2.4	1.6	1.5	1.5	2.3	3.3
경상수지		11,394	2,922	13,438	15,493	16,229	9,972	19,803	18,981
수출		140,370	134,846	140,130	133,125	139,768	135,328	141,167	136,786
수입		131,209	133,671	130,431	125,652	129,831	129,679	126,785	125,975
실업률		2.9	3.8	3.3	3	2.8	3.6	3.1	3.0
금리	국고채(3년)	3.41	3.45	3.39	2.88	2.81	2.68	2.67	2.92
	회사채(3년)	4.26	4.28	4.04	3.44	3.31	3.07	3.04	3.33
소비자물가지수		104.9	105.9	106.12	106.42	106.7	107.55	107.41	107.87
환율	원/달러	1,144.75	1,131.47	1,151.81	1,133.54	1,090.86	1,084.08	1,122.15	1,112.18
	원/엔화	1,479.67	1,427.86	1,436.85	1,441.20	1,346.13	1,175.64	1,137.42	1,124.22
KOSPI		1849.3	1972.55	1910.29	1902.32	1940.24	1985.4	1932.58	1,917.71
외환보유고		306,402	315,952	312,378	322,015	326,968	327,408	326,440	326,922

주: 1) 환율, 주가지수는 분기평균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부록 표 I -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1/4	2/4	3/4	4/4
보험 ¹⁾	121,898	139,042	174,037	201,794	195,836	139,623	138,497	-
- 생보	96,401	105,806	145,350	169,906	166,114	109,365	108,554	-
수입보험료	223,891	245,286	281,233	313,339	313,227	245,003	240,001	-
지급보험금	127,490	139,480	135,883	143,434	147,113	135,639	131,447	
- 손보	25,497	33,236	28,687	31,889	29,722	30,258	29,943	-
원수보험료	160,799	167,964	167,265	180,624	169,569	173,584	171,156	-
원수손해액	135,303	134,729	138,578	148,736	139,847	143,326	141,213	-
은행	269,108	120,525	113,355	104,974	123,354	182,746	-31,782	229,979
- 일반 ²⁾	190,485	108,131	54,395	118,680	48,120	147,443	-40,955	128,580
- 신탁	78,623	12,394	58,960	-13,706	75,234	35,303	9,173	101,399
증권 ³⁾	44,117	-33,365	67,718	-22,900	96,983	9,232	-5,597	-47,519
자산운용 ⁴⁾	50,029	83,820	32,104	21,299	183,595	44,093	-9,264	-41,835
종금 ⁵⁾	11,809	-490	-17,161	-2,493	-21,220	-11,420	1,082	2,444

주: 1)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실세총예금 + CD 순발행액

3) 고객예탁금 + RP매도 + CMA

4) 채권형 + MMF + 혼합형 + 주식형 + 기타

5) 발행어음 + CMA예탁금 + 어음매출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부록 표 I-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및 구성비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2/3
생존	보험료	179,425	58,357	89,359	91,316	97,580	336,612	53,144	53,996
	증가율	5.0	42.6	107.5	108.6	88.9	87.6	-8.9	-39.6
	구성비	20.4	23.8	31.8	29.1	31.2	29.2	21.7	22.5
사망	보험료	287,112	76,376	76,309	77,232	78,494	308,411	78,913	79,458
	증가율	0.0	6.8	6.5	7.6	8.8	7.4	3.3	4.1
	구성비	32.7	31.1	27.1	24.6	25.1	26.7	32.2	33.1
생사 혼합	보험료	122,378	46,073	54,615	52,905	68,084	221,677	47,606	46,222
	증가율	16.3	68.5	91.7	79.9	83.3	81.1	3.3	-15.4
	구성비	13.9	18.8	19.4	16.9	21.7	19.2	19.4	19.3
변액 보험	보험료	212,937	52,354	51,775	52,803	55,297	212,230	52,577	51,368
	증가율	9.7	-1.2	-5.4	1.3	4.1	-0.3	0.4	-0.8
	구성비	24.2	21.3	18.4	16.9	17.7	18.4	21.5	21.4
개인계	보험료	801,852	233,160	272,058	274,256	299,455	1,078,929	232,239	231,044
	증가율	5.9	20.9	37.5	39.1	39.9	34.6	-0.4	-15.1
	구성비	91.3	95.1	96.7	87.5	95.6	93.6	94.8	96.3
단체	보험료	76,508	12,126	9,175	39,083	13,772	74,156	12,765	8,957
	증가율	5.3	-32.0	1.5	-1.8	40.1	-3.1	5.3	-2.4
	구성비	8.7	4.9	3.3	12.5	4.4	6.4	5.2	3.7
합계	보험료	878,360	245,286	281,233	313,339	313,227	1,153,086	245,003	240,001
	증가율	5.8	16.5	35.9	32.3	39.9	31.3	-0.1	-14.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I-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 · 지급보험금 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2/3
생존 보험	지급보험금	100,720	25,718	26,885	28,993	28,657	110,254	26,096	26,434
	증가율	5.7	15.3	2.7	12.4	8.4	9.5	1.5	-1.7
	지급률	56.1	44.1	30.1	31.8	29.4	32.8	49.1	49.0
사망 보험	지급보험금	153,111	42,030	43,438	42,291	45,951	173,710	42,868	42,859
	증가율	4.0	16.7	14.5	10.7	12.2	13.5	2.0	-1.3
	지급률	53.3	55.0	56.9	54.8	58.5	56.3	54.3	53.9
생사 혼합 보험	지급보험금	53,032	30,094	24,049	23,177	27,628	104,948	27,646	25,171
	증가율	-8.9	145.7	84.7	75.2	90.1	97.9	-8.1	4.7
	지급률	43.3	65.3	44.0	43.8	40.6	47.3	58.1	54.5
변액 보험	지급보험금	114,772	27,824	29,795	30,903	30,318	118,839	26,178	28,021
	증가율	-11.3	-17.0	13.4	31.7	-3.7	3.5	-5.9	-6.0
	지급률	53.9	53.1	57.5	58.5	54.8	56.0	49.8	54.6
개인 보험계	지급보험금	421,635	125,666	124,167	125,365	132,553	507,751	122,788	122,485
	증가율	-2.0	20.7	20.0	24.5	16.9	20.4	-2.3	-1.4
	지급률	52.6	53.9	45.6	45.7	44.3	47.1	52.9	53.0
단체 보험계	지급보험금	95,315	13,814	11,716	18,069	14,560	58,159	12,851	8,963
	증가율	-10.9	-51.1	-15.0	-53.9	3.4	-39.0	-7.0	-23.5
	지급률	124.6	113.9	127.7	46.2	105.7	78.4	100.7	100.1
전체	지급보험금	516,950	139,480	135,883	143,434	147,113	565,911	135,639	131,447
	증가율	-3.8	5.4	15.9	2.6	15.4	9.5	-2.8	-3.3
	지급률	58.9	56.9	48.3	45.8	47.0	49.1	55.4	54.8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I-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 · 사업비증가율 및 사업비율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2/3
생존 보험	사업비	35,935	9,077	9,970	10,157	10,399	39,603	7,859	7,929
	증가율	9.1	3.1	9.1	15.1	13.4	10.2	-13.4	-20.5
	사업비율	20.0	15.6	11.2	11.1	10.7	11.8	14.8	14.7
사망 보험	사업비	81,056	21,511	22,634	23,625	25,280	93,050	23,143	23,723
	증가율	7.2	13.1	11.4	13.6	20.7	14.8	7.6	4.8
	사업비율	28.2	28.2	29.7	30.6	32.2	30.2	29.3	29.9
생사 혼합 보험	사업비	24,299	5,972	5,678	6,101	5,947	23,698	4,712	4,529
	증가율	11.2	-1.4	-7.6	3.8	-4.3	-2.5	-21.1	-20.2
	사업비율	19.9	13.0	10.4	11.5	8.7	10.7	9.9	9.8
개인 보험계	사업비	141,291	36,590	38,253	39,882	41,626	156,351	35,714	36,181
	증가율	8.3	8.0	7.5	12.4	14.6	10.7	-2.4	-5.4
	사업비율	17.6	15.7	14.1	14.5	13.9	14.5	15.4	15.7
단체 보험계	사업비	4,362	1,117	1,213	1,136	1,221	4,687	1,005	1,083
	증가율	3.4	14.1	15.3	-6.0	8.9	7.5	-10.0	-10.8
	사업비율	5.7	9.2	13.2	2.9	8.9	6.3	7.9	12.1
전체	사업비	145,652	37,707	39,466	41,018	42,847	161,038	36,719	37,263
	증가율	8.2	8.2	7.7	11.8	14.4	10.6	-2.6	-5.6
	사업비율	16.6	15.4	14.0	13.1	13.7	14.0	15.0	15.5

주: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임.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I-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비중 추이^{1),2)}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2/3
화재	보험료	2,636	782	758	946	808	3,293	755	734
	증가율 ³⁾	-0.9	25.3	26.7	24.8	23.2	25.0	-3.4	-3.1
	구성비	0.4	0.5	0.5	0.5	0.5	0.5	0.4	0.4
해상	보험료	8,699	2,356	2,217	2,165	1,493	8,230	2,122	2,257
	증가율	12.7	-1.5	3.7	18.1	-36.1	-5.4	-9.9	1.8
	구성비	1.4	1.4	1.3	1.2	0.9	1.2	1.2	1.3
자동차	보험료	130,415	32,615	32,157	32,268	31,376	128,416	32,338	32,190
	증가율	5.1	2.0	-2.9	-1.6	-3.5	-1.5	-0.9	0.1
	구성비	21.4	19.4	19.2	17.9	18.5	18.7	18.6	18.8
보증	보험료	15,172	4,081	3,810	3,913	4,013	15,816	3,801	3,461
	증가율	16.1	15.1	4.8	0.1	-1.7	4.2	-6.9	-9.1
	구성비	2.5	2.4	2.3	2.2	2.4	2.3	2.2	2.0
특종	보험료	41,230	12,377	11,867	12,063	12,249	48,557	13,064	11,673
	증가율	11.1	18.9	15.5	9.4	28.6	17.8	5.6	-1.6
	구성비	6.8	7.4	7.1	6.7	7.2	7.1	7.5	6.8
해외 원보험	보험료	3,164	997	1,147	1,314	1,418	4,876	1,390	1,688
	증가율	36.1	56.6	72.1	53.8	40.8	54.1	39.5	47.1
	구성비	0.5	0.6	0.7	0.7	0.8	0.7	0.8	1.0
장기 손해	보험료	341,432	98,381	100,619	99,782	103,114	401,896	103,238	106,053
	증가율	21.2	28.1	24.0	14.9	6.8	17.7	4.9	5.4
	구성비	56.0	58.6	60.2	55.2	60.8	58.6	59.5	62.0
개인 연금	보험료	34,273	9,857	10,296	10,707	10,628	41,489	10,622	10,573
	증가율	38.8	29.9	25.6	17.1	13.8	21.1	7.8	2.7
	구성비	5.6	5.9	6.2	5.9	6.3	6.1	6.1	6.2
퇴직 보험	보험료	835	1	6	2	0	9	3	0
	증가율	-84.2	-99.8	48.5	-97.7	-100.0	-99.0	229.6	-100.0
	구성비	0.1	0.0	0.0	0.0	0.0	0.0	0.0	0.0
퇴직 연금	보험료	31,791	6,516	4,389	17,465	4,469	32,840	6,251	2,527
	증가율	34.6	4.8	102.3	-7.4	-1.7	3.3	-4.1	-42.4
	구성비	5.2	3.9	2.6	9.7	2.6	4.8	3.6	1.5
계	보험료	609,648	167,964	167,265	180,624	169,569	685,422	173,584	171,156
	증가율	16.7	19.4	17.8	8.7	5.5	12.4	3.3	2.3

주: 1)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 퇴직보험은 퇴직연금을 포함함.

2) 기간별 수치는 해당 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I-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1),2),3)}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1/4	2/4	3/4	4/4	1/3	2/3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59.1	68.1	52.7	56.1	56.8 ⁴⁾	60.9
	사업비율	48.4	48.8	43.8	55.9	55.3	45.2
	합산비율	107.5	117.0	96.5	112.0	112.1	106.1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64.3	49.7	56.1	77.8	48.6	58.0
	사업비율	26.8	24.9	42.3	39.2	31.3	29.7
	합산비율	91.1	74.6	98.4	117.0	79.9	87.7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61.0	68.6	48.1	72.3	155.0	31.7
	사업비율	10.0	14.1	14.0	48.2	12.4	10.2
	합산비율	70.9	82.7	62.0	120.5	167.4	41.9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61.1	79.8	72.1	69.3	59.8	71.1
	사업비율	19.5	17.6	20.6	24.3	18.7	23.1
	합산비율	80.7	97.4	92.8	93.5	78.5	94.2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53.6	55.7	54.5	67.6	63.8	54.1
	사업비율	40.6	35.8	38.1	41.1	37.7	43.4
	합산비율	94.3	91.5	92.6	108.7	101.5	97.5
해외수재	경과손해율	65.5	57.3	47.4	65.6	59.8	60.0
	사업비율	35.3	28.7	60.1	1.9	30.3	27.6
	합산비율	100.8	85.9	107.5	67.5	90.1	87.6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78.2	82.1	91.9	83.7	84.4	89.3
	사업비율	20.8	21.9	21.6	21.4	21.2	19.1
	합산비율	99.0	103.9	113.5	105.2	105.6	108.4
장기보험 ³⁾	경과손해율	84.3	84.5	82.9	83.2	83.8	83.5
	사업비율	16.6	17.3	18.2	19.9	18.4	18.3
	합산비율	100.9	101.8	101.1	103.0	102.2	101.8
전체	경과손해율	80.4	82.4	82.3	81.6	82.5	81.8
	사업비율	18.2	18.7	20.0	21.1	19.5	19.2
	합산비율	98.6	101.1	102.3	102.7	102.0	101.0

주: 1) 기간별 수치는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이며, FY2011부터 IFRS가 적용됨.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임.

3) 경과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4) 재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 환급을 일부 제외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부 록 Ⅱ. 글로벌 이슈 발간 목록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53호 (10. 7)	미 연방정부 업무중단 사태의 원인과 영향 (김세중) · 미국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 관련 예산에 대한 상원과 하원의 대립으로 2014 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예산안이 부결되어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의 업무가 부분적으로 중단됨. · 정치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이어져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Huffington Post 등)
제253호 (10. 7)	일본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 (채원영) · 일본 정부가 발표한 소비세율 인상과 경기부양책으로 아베노믹스가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본 정부가 의도한 기업투자 증가와 일본 경제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보임. (WSJ,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제254호 (10. 14)	IMF, 신흥국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최원) · IMF는 2013년 10월 9일 신흥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으며 신흥국 경제성장률 둔화에 대하여 우려함. · 신흥국들의 경우 경제성장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외적인 요인에 의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뿐 아니라 자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WSJ, FT, 연합뉴스 등)
제255호 (10. 21)	유럽 경제 회복과 재정위기 진정국면 (이정환) · 최근 아일랜드, 그리스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유럽 재정위기가 진정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임. · 경기침체, 은행위기, 재정위기 악순환에 빠져있던 유럽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Financial Times 등)
제255호 (10. 21)	9월 중국의 수출 감소와 시사점 (이소양) · 신흥국 시장의 수요 감소, 수출 경쟁력 하락, 역기저효과 등으로 중국의 9월 수출 증가율이 -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짐.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가시화될 경우 신흥국 경제 불안이 중국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제한될 우려가 있음. (WSJ, FT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56호 (10, 28)	주요 선진국 주택가격 상승과 시사점 (김세중) · 최근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최저금리 정책이 부동산 버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Financial Times 등)
제256호 (10, 28)	미국 재정불안 지속의 영향과 시사점 (채원영) · 2013년 10월 16일 미국 정치권의 합의로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일시적으로 해소되었으나, 재정불안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적완화 축소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원화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출기업 채산성 악화와 내수부진 장기화가 우려됨. (FT, WSJ 등)
제257호 (11, 4)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방안 논의와 시사점 (최원) · 미 연준(Fed)의 3차 양적완화(QE3) 시행 이후 정책 종료 시점과 관련한 논란이 반복되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바 있음. · 장기적으로 양적완화 축소가 현실화되고 금리 수준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회사들에게 있어서 우호적인 자산운용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음. (WSJ, 파이낸셜뉴스 등)
제257호 (11, 4)	2013 IIF 연차 총회 주요 논의내용: 세계경제 및 금융산업 현안과 전망 (이아름) · 2013년 10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013 IIF(Institution of International Finance) 연차 총회에서 세계경제 및 금융산업 현안과 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세계경제는 신흥국의 경우 구조적 문제 및 중국의 성장 모멘텀 약화 등으로 고성장 추세로 회복이 어려운 반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함. (IIF, 국제금융센터 등)
제258호 (11, 11)	유럽, 중국 및 일본의 차별적 보험산업 규제 시정 요구 (이정환) · 2013년 10월 31일 유럽보험협회와 유럽재보험협회는 시장 진입 절차 및 인허가, 자본금, 자회사의 거래, 특정 시장 진입, 외화자금 유입, 특정 상품 독과점 등과 관련된 차별적 규제 철폐 또는 완화를 중국에 요구함. · 일본의 경우 유럽보험협회와 유럽재보험협회는 강력한 시장 경쟁자인 일본우정주식회사 및 공제에 대한 차별적 특혜 시정을 요구함. (유럽보험협회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58호 (11. 11)	신흥시장 도시화의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이소양) · 10월 31일 Swiss Re는 신흥시장의 도시인구가 2011년 27억 명에서 2030년 39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도시화 비율은 2011년 47%에서 2030년 5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신흥시장 도시화로 신흥시장의 보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Swiss Re)
제259호 (11. 18)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시사점 (김세중) · 11월 7일 유럽중앙은행 ECB는 시장의 금리동결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0.5%에서 0.25%로 0.25%p 인하한다고 발표함. ·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ECB의 갑작스러운 금리인하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선진국의 저금리 기조가 더욱 지속될 것으로 보임. (Financial Times 등)
제259호 (11. 18)	미국 3/4분기 경제성장률의 주요 내용과 전망 (채원영) · 미 상무부는 2013년 3/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 1.9%를 크게 상회하는 2.8%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내수경기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폐쇄의 영향이 포함될 4/4분기 경제성장세는 둔화할 전망이다. (FT, WSJ 등)
제260호 (11. 25)	중국의 개혁정책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이소양) · 11월 15일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경제체제, 사회복지, 정부 관리제도 및 사법체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정책을 발표하였음. ·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번 개혁정책이 중국 보험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기회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WSJ, Sina 등)
제260호 (11. 25)	일본의 3/4분기 경제성장률과 아베노믹스에 대한 엇갈린 전망 (이아름) · 2013년 상반기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고성장세를 보였던 가계소비와 수출이 2013년 3/4분기에는 부진하였으나, 공공투자 등 정부부문의 증가로 2012년 4/4분기 이래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함. · 3/4분기 성장률 둔화로 인해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 (Bloomberg, 국제금융센터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61호 (12. 2)	일본 생명보험,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이차 역마진 해소 (이정환) · 2013년 4~9월 주요 9개 생명보험회사 중 5개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이율이 예정이율을 상회하였음.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생명보험회사의 꾸준한 운용실적 개선,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화약세, 전 세계 증시의 주가 상승이 원인이라고 평가함. (니혼게이자이)
제261호 (12. 2)	엔화 약세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 (최원) · 아베노믹스 정책의 영향으로 달러 대비 엔화가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 확대로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음. · 향후에도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또한 엔화 가치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경제회복을 지연시키고 외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응 능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니혼게이자이, 연합뉴스 등)
제262호 (12. 9)	미국 주가에 대한 버블 논란과 시사점 (김세중) · 11월 21일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16,000포인트를 돌파하고, 11월 26일에는 나스닥 지수가 13년 만에 4,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주가에 대한 버블 우려가 제기됨. (Financial Times 등)
제262호 (12. 9)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세와 시사점 (채원영) · JP Morgan이 발표한 2013년 11월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2011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중국 등 신흥국의 제조업 지수 회복속도는 완만한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세가 차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신흥국의 경우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가 조기 축소 우려 등 불확실성이 상존함. (FT, WSJ 등)
제263호 (12. 16)	일본, GDP성장률 회복세 둔화 (최원) · 2013년 3/4분기 일본 GDP성장률이 크게 낮아지고 10월 경상수지도 9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 아베노믹스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화 변동성 확대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기관들은 일본의 주가와 장기금리 변동 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니혼게이자이, FT, 한국경제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63호 (12. 16)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와 유로존 경기에 대한 상반된 전망 (이아름) · 유럽중앙은행(ECB)은 2013년 12월 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25%로 동결한다고 밝힘. · 유로존 재정위기가 완화되면서 유로존을 중심으로 주요국 경기 전망이 개선되고 있지만 유로존 디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임. (OECD, FT 등)
제264호 (12. 23)	유로존 보험산업의 수익성 개선 (이정환) · 유럽중앙은행(ECB) 재무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유로존 보험산업의 수익성이 은행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저금리 지속으로 유로존 보험산업의 투자수익 감소가 우려되었으나, ALM을 통해 채권수익률 변동 리스크를 헤지하면서 저금리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부분적으로 해소됨. (유럽중앙은행)
제264호 (12. 23)	중국의 기업연금 개인소득세 개정 및 시사점 (이소양) · 12월 9일 중국 정부는 사적 사회보장체제인 기업연금 활성화를 위해 기업연금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 전문가들은 세법 개정으로 중국 기업연금기금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중국의 사례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적 부문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Sina, Xinhua 등)
제265호 (12. 30)	중국의 단기금리 급등 배경 및 시사점 (김세중) · 최근 중국 단기금리가 급등하면서 12월 20일 중국 인민은행은 3,000억 위안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였다고 발표함. · 인민은행은 은행권의 과도한 대출과 그림자 금융 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신용 축소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은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Financial Times 등)
제265호 (12. 30)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시사점 (채원영) · 미 연준은 2014년 1월부터 월간 자산매입규모를 현행 8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감축하기로 하였음. · 양적완화 축소 규모가 작고 초저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엔화 약세가 지속가능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 둔화와 이로 인한 내수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음. (FT, WSJ 등)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 7
- 2011-5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오병국,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김해식,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12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해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 연차보고서

- 제1호 2008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2호 2009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3호 2010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4호 2011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5호 2012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제6호 2013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영문발간물

-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 제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1 / KIRI, 2012.8
- 제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2 / KIRI, 2012.10
- 제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2 / KIRI, 2012.12
- 제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2 / KIRI, 2013.4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윤성훈 2013.7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계간
- 고령화리뷰 / 연 1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13년 겨울호 (통권 68호)

발행일	2014년 1월
-----	----------

발행인	강 호
-----	-----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연락처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57, 3775-9059)로 연락하여 주십시오.